

*The Hyowo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효원 영어영문학

| 2019. 2 | 제 37호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효원영어영문학

제 37 호

2019. 2

목 차

한국전쟁소설과 새로운 역사 쓰기 -창래 리의 『생존자』, 하 진의 『전쟁쓰레기』, 토니 모리슨의 『고향』을 중심으로	김 양 희 / 1
버지니아 울프의 후기 에세이로 다시 읽는 모더니즘	김 연 영 / 21
『테스』- 출현하는 주체, 전복시키는 주체.	손 아 영 / 37
내면을 향한 발걸음, 『댈러웨이 부인』	신 밝 음 / 59
영어 목적어생략 현상에 관한 연구	박 혜 미 / 75
A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of Promo Video for Henan Culture Based on Visual Grammar	Lihua, Pei / 93
The Function of Irony in Jane Austen's <i>Pride and Prejudice</i>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ve Principle	Zhang Yinjun / 109
한영 소설번역에서의 복합주제부 번역 양상 고찰 -텍스트적, 대인적 주제를 중심으로-	최 원 선 / 131
2017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149
2018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150

한국전쟁소설과 새로운 역사 쓰기 -창래 리의 『생존자』, 하 진의 『전쟁쓰레기』, 토니 모리슨의 『고향』을 중심으로

김 양 희

I. 들어가며: 한국전쟁소설과 세계문학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두 세대가 지났다. 전쟁의 기억은 전쟁에 연루된 사람들의 삶에 아직도 생생하나 많은 이들에게 잊혀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참전국 수가 가장 많고, 사상자의 수의 측면에서 보자면 1차 대전 다음으로 많고 베트남전쟁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망실되고 있다는 것은 애통한 일이다. 하지만 억압된 기억으로서의 전쟁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호출되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역설하며 한국전 이후의 전쟁과 분쟁 등 세계 역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전쟁은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 낸 전쟁으로,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적 정치 질서와 안보현안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미처 끝나기도 전에 종결돼 버린 전쟁인 것이다. 전쟁 이후 미국문화가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 ‘인간의 보편사’로서 다루는 방식은 많은 이들의 의식 속에 자기망각의 역사를 공고화하는 데 일조한다. 강우성은 이러한 망각된 전쟁으로서 한국전쟁은 “베트남 전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체험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며 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지와 관련된 집단적, 문화적 물음”을 제기한다고 하며 미국사회의 뿌리 깊은 무의식과 연관되어있다는 진단을 내린다.(221-223)

한국전쟁이 ‘잊힌 전쟁’으로 표상되는 상황은 미국의 한국전쟁 관련 소설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전 이전의 두 개의 전쟁 즉 1차대전과 2차대전 때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다. 작품 수의 측면에서 1,2차 대전에 관한 문학작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한국전쟁 소설이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히 출간되었던 시기인 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의 작품 수는 60여 편이며 전쟁 발발

50주년을 맞는 2000년 무렵까지 출간된 작품 수는 100여편이다.¹⁾ 또한 양차대전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나 노먼 메일러(Norman Mailer), 조셉 헬러(Joseph Heller)의 작품과 같은 대작들을 낳았다면 한국전쟁소설에서 그와 같은 작품성을 담보한 작품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전쟁의 재현 방식 역시 양차대전이나 한국전 이후에 일어난 베트남전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양상을 지닌다. 한국전쟁 소설은 ‘제한전’이라는 한국전쟁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압도적인 폭력으로 덮쳐와 인간사에 대한 허무와 부조리 그리고 상흔을 남긴 1차 세계대전이나, 인권, 민주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성전으로 기능했던 2차 대전에 비해, 공산주의 진영의 확산을 저지하고 3차 대전을 막는다는 명분아래 제한적으로 치러졌던 한국전쟁에서 전쟁 수행양상은 분명한 적이나 목표의 부재, 참전목적이 개인화되는 현상, 제한전이자 봉쇄전략이라는 ‘특이한 전쟁’에 대한 혼란 등의 성격을 띤다.²⁾ 한편 베트남 전쟁의 경우는 비록 미국이 패배했으나 반전운동과 대항문화를 이끌며 미국사회의 행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도, 패배도 아니며 기억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당혹스러운 한국전쟁은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무의식과 문화 속에 억압된 기억으로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식 역사’가 일률적으로 재단하여 제시함으로써 망실, 은폐하는 한국전의 또 다른 역사를 재현하려 시도하는 미국문학을 살펴본다. 전쟁 발발과 정전협정 50주년이 되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전쟁을 둘러싼 소설들이 적지 않게 출간되고 있는데, 이들 문학작품들은 기존의 한국전쟁소설과는 다른 재현양상을 지닌다. 5, 60년대 미국의 한국전쟁소설들이 공산주의 봉쇄전략으로서의 한국전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보편적 인간사나 영웅서사를 재현했다면,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소설들은 전쟁을 둘러싼 소수적이고 다각적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한다. 제인 앤 필립스(Jayne Anne Phillips)의 『라크와 터마이트』(*Lark & Termite*, 2009)는 한국전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의 하나인 노근리 양민학살을 다룬 소설로 학살 사건 당사자인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조차

- 1) 정연선, 「중단된 聖戰: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소설의 연구」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이기운, 신영덕, 임도한 엮음. 서울:국학자료원, 2003. 159-93.
- 2) 정연선, 위의 책. 정연선은 한국전쟁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태도와 분위기는 이전의 전쟁소설들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성격은 봉쇄전쟁, 제한전쟁이라는 한국전의 독특한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은 이전의 전쟁들과 달리 사명감이나 목적의식, 고뇌 없이 보편적인 인간의 현상으로 내면화된 전쟁이며 따라서 군대는 하나의 직업처럼 간주되고 전쟁 역시 개인적 차원으로 격하되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역사에서 도외시 해온 양민학살의 문제를 새로이 조명한다. 한국에서도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필립 로스(Philip Roth)는 2008년 『울분』(*Indignation*)이라는 소설에서 미국 동부의 유대인이자 노동계급출신의 평범한 대학생의 삶과 한국전쟁을 연관 짓는다. 전쟁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대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1950년대 초반 맥카시 광풍이 분 미국사회와 이념 전쟁의 여파가 일반 민중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설들에서 볼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소수자적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전쟁 직후에 집필되었으나 최근 국내 출간되어 반향을 일으키는 작품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공군비행사로 참전한 바 있는 제임스 설터(James Salter)는 『사냥꾼들』(*The Hunters*, 1956)은 스포츠게임과 경쟁을 즐기듯 전쟁에 임하며 실제 고통 받는 전장의 민중들의 삶에 무감한 군인들의 모습을 그린다. 2016년 국내에 번역출간된 이 소설은 전쟁의 참상과 충격을 바라보는 또 다른 서늘한 시선으로 주목받고 있다.³⁾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그의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제 3세계 문학」에서 모든 제3세계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민족적 알레고리’(national allegory)라는 공통 미학을 가진다고 말한다.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침투하고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된 오늘날 세계에서 제3세계는 서구적 근대체제에 대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운명의 이야기가 항상 공적으로 제3세계 문화와 사회의 궁지에 몰린 상황의 알레고리가 되는 것”(69)이다. 냉전 시기 미-소 패권 전쟁 가운데 발생했다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 역시 글로벌한 것과 로컬적인 것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하나의 세계사적 사건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을 둘러싼 문학들 가운데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소수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재현한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제3세계 경험의 전지구적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전쟁문학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작품들은 창래 리(Changrae Lee)의 『생존자』

3) 2000년대 이후 한국전쟁 소설에 관한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국내연구들이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최근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정현, 「타자의 시선으로 재현한 한국전쟁 서사화 양상 연구-하 진, 모레모 두란, 제임스 설터의 소설을 중심으로」(『어문논집』 제68집, 2016), 신주철, 「한국전쟁 관련 외국문학 작품의 의미와 그 이면-폴란드, 터키, 콜롬비아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한민족문화연구』 제38집, 2011), 진주영, 「한국전쟁과 장애 서사: 제인 앤 필립스의 『라크와 터마이트』, 토니 모리슨의 『고향』과 창래 리의 『행복한 자』를 중심으로」(『미국소설』 23권 3호, 2016), 유제분, 「전쟁과 치유의 서사-제인 앤 필립스의 『라크와 터마이트』와 노근리 양민 학살」(『현대영미소설』 제25권 1호, 2018) 등 참조.

(*The Surrendered*, 2010), 하 진(Ha Jin)의 『전쟁쓰레기』(*War Trash*, 2004),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고향』(*Home*, 2012)으로 비서구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생존자』는 전쟁고아와 백인 참전 군인을 비롯해 전쟁으로 인해 입은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관점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를 재서술 한다. 하 진의 작품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또 다른 전쟁의 온상지였던 국-공 내전과 그 희생양인 중국군 전쟁포로의 관점에서 전쟁을 다시 본다. 마지막으로 토니 모리슨의 소설에서는 반공주의의 광풍이 불던 1950년대 미국과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의 희생자이자 참전군인인 흑인 병사에게 전쟁은 어떤 상흔을 남겼는지 살펴본다. 한국전쟁에 관여했던 소수적이고 다양한 주체들의 문학적 재현이 어떻게 공적 역사가 말소한 소수자의 경험과 기억의 관점에서 역사 다시 쓰기를 수행하고 망각된 전쟁으로서 한국전쟁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탐사한다.

II. 전쟁폭력과 외상의 번역: 창래 리의 『생존자』

전쟁과 트라우마 서사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창래 리가 그의 작품들 속에서 일관되게 다뤄온 주제이다.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 1995)에서의 인종과 정체성으로 인해 외상을 앓는 삶, 『제스처 라이프』(*Gesture Life*, 1999)에서 2차 대전 당시 전장에서 만난 한국계의 일본 군의관과 위안부 여성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창래 리가 그리는 전쟁의 참상과 상흔은 기존의 미국소설 뿐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문학과 비교하여서도 독특하다. 기존의 전쟁소설들이 전쟁의 주요 참전 주체들의 관점에서 전쟁을 재현했다면 『생존자』에서 작가는 인종화된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전작들에서처럼 다양한 인종 특히 사회의 소수자적 존재의 시선에서 전쟁을 바라본다. 소수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인종, 민족, 국가, 젠더의 경계를 불문하고 다양한 민중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훑아보는 일은 초국가시대 한국전쟁의 문학적 재현을 일신하는 작업이 된다.

『생존자』는 전쟁의 압도적인 폭력과 그로 인한 외상의 문제에 집중한다. 이 소설은 기존의 소설들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전쟁희생자의 관점에서 전쟁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소설에서 재현되는 한국전쟁의 피해자는 모두 전시상황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전쟁고아인 한국인 소녀 준 한(June Han), 불구인 아버지의 죽음과 전장에서의 북

한군 소년포로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미국인 병사 헥터 브레넨(Hector Brennan), 1934년 만주선교사학살사건에서 부모를 잃고,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실비 테너(Sylvie Tanner)가 그들이다.

핏줄기가 무릎을 지나 허벅지로 흘러내리게 내버려 두었다. 피가 흘러내리는 창백한 다리는 감각이 없어지고 차갑고 얼얼했지만 그런 감각은 그녀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았다. (...) 그녀는 럼 목사아와 그의 아내의 시신이 덮여지지도 않은 채 선교원 안뜰에 눕혀져 있는 것을 보았다. 럼 부인의 얼굴을 덮고 있는 핏자국이 땅 위에 적막한 자국으로 남아있는 것을, 그리고 그들 위로 내리는 가느다란 눈발을 보았다.(*The Surrendered*, 229)

실비는 1930년대 일본군 점령 하 만주에서 적십자 봉사로서 사역 중이던 선교사 부모가 일본장교 암살범을 찾기 위해 들이닥친 일본군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들이 경험한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나 상흔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삶 전체를 지배하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된다. 캐시 캐루스(Cathy Caruth)는 트라우마란 갑작스럽고 재앙적인 사건의 압도적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종종 지연되거나 환각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11) 이와 같은 “트라우마의 역사적 힘”은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현실을 망각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 경험 자체에 내재하는 잠재성이다.(17) 이러한 트라우마의 사후성이 실비에게서 나타난다. 만주에서 선교사 집단학살 사건의 생존자로 살아남은 실비에게 전쟁이 준 상처는 단순히 일시적인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아니라 이후의 삶에 압도적이고 통제할 수 없이 뒤늦게 반복되며 내면을 망가뜨리는 것이 된다. 전쟁이 끝난 후의 삶에서도 생활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각이 없어지고’ 심지어 자신의 삶마저도 ‘그녀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방관하게 된다. 준과 역시 전쟁과 학살의 트라우마로 인해 자기파괴적인 삶을 살아간다. 아홉 살의 준은 피난길에 일가족을 잃는데, 아버지와 오빠가 간첩혐의로 의용군에게 끌려가고, 언니는 피난길에 육포 몇 조각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며 그를 저지하려던 어머니와 함께 공중폭격을 맞아 죽는다. 남은 쌍둥이 동생 둘은 기차의 급정차로 지붕에서 추락해 여동생은 즉사하고 남동생 지영은 다리가 잘린 채 쓰러져 있다. 떠나가는 열차에 살기위해 오르는 준에게, “나 찾으러 다시 올 거지?(*The Surrendered* 30)라

는 동생의 마지막 말은 이후 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강력한 충격으로 남게 된다.⁴⁾ 이후 눈앞에서 처참히 죽어간 가족 특히 죽어가는 동생을 버려두었다는 죄책감은 평생 준의 삶을 따라다닌다.

소설은 한국전을 무대로 하지만 서로 다른 전쟁들을 겪은 삶들을 병치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의미를 객관화하려 시도한다. 한국과 한국전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1859년 오스트리아와 사르데냐-프랑스 동맹 사이의 솔페리노(Solferino)전투, 1934년 만주사변을 중요한 모티브로 삼고 있다. 한국전쟁에 집중하는 대신 세 전쟁을 병치함으로써 소설은 각 인물들이 자신의 경험을 상대화하고 상대의 고통을 이해가능하고 번역가능하게 만든다. 한국전을 상대화하는 목소리는, 이념적 사명감이나 목적의식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참전했던 헥터의 입을 통해 나온다.

[한국인들]의 전쟁도 아니지 않은가. 마오의 전쟁이거나 트루만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전쟁일 뿐이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그 누구의 십자가도 아니었다. 애국심과 반발, 편협한 애국주의와 평화주의 때문에 미적지근한 공격 몇 번을 시도한 것이 전부이다. 이 전쟁은 동시에 너무 차갑고 너무 뜨겁다. 그래서 오만 명에 달하는 미군과 백 만 명 이 넘는 저들을 소멸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The Surrendered*, 103)

헥터는 손발 기형의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혼자 귀가해 내버려 둔 날 사망하자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해 참전을 결행한다. 하지만 그는 포로로 잡힌 한국군 소년병사가 미군들에게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사살당하는 데 자신이 방관자가 되고 심지어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처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헥터 역시 준과 실비와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와 억압된 인종전쟁 경험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마침내 내면과 존재마저 뿌리 뽑힌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한 점에서 헥터의 캐릭터는 2차 대전 당시 전장에서의 폭력, 특히 위안부 여인과의 사건으로 인해 내상을 입고 평생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닥터 하타(『제스처 라이프』), 이민자 2세로서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을 겪는 산업스파이 헨리(『네이티브 스피커』) 등 이와 같이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아웃사이드이자 어딘가

4) 한 매체 인터뷰에서 작가는 이 모티브를 실제 경험에서 가져왔으며, 아버지가 피난 열차에서 남동생을 잃은 경험에 바탕 했다고 밝힌바 있다. <https://www.wnyc.org/story/60196-the-surrendered>

속을 알 수 없는 의문스러운 캐릭터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헥터가 작가의 전작 속 남성인물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폭력적 상황을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타자와 연대를 모색해 간다는 점에 있다. 그는 자신이 참전한 한국전쟁이 “마오의 전쟁이거나 트루만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전쟁일 뿐”이라고 객관화하며 “애국심과 반발, 편협한 애국주의와 평화주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회의에 빠진다. 그럼으로써 준이라는 전쟁고아의 시선에서 본 한국전쟁과 실비가 겪은 만주학살, 그리고 오래 전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던 솔페리노 전투를 이해하려 하기 시작한다.

말년에 암환자가 된 준과 어느 날 종적을 감춘 아들 니콜라스, 필생의 상흔이 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한 헥터는 실비가 남겨 준 책 뒤낭의 『솔페리노의 전투』를 찾아 여정을 떠난다. 마침내 한 자리에 재회하게 된 이들은 함께 이탈리아의 솔페리노 추모관을 방문하며 자신들의 과거와 고통의 기억과 화해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7년 경 중국 수도 난징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민간인 대학살을 폭로한 아이리스 장(Iris Chang)은, 중국계 미국인 이민자인 부모님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난징의 참상과 그 은폐된 역사라는 현실을 접하고 『난징의 강간』(*The Rape of Nanking*)을 집필한다. 장은 난징학살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미국과 유럽이 이 아시아의 학살에 방관자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이어진 폭력과 전쟁들에마져 무감해지게 한다고 경고한다.(13-16) 『난징의 강간』의 집필은 결국 “난징에 남아 있는 수십만 개의 주인 모를 무덤에 바치는 묘비명”(220)으로서 공적 기억으로서의 역사가 말소한 타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씀으로서 타자의 희생을 애도하고 같은 오욕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한국전쟁을 무대로 하지만 역사상의 다른 전쟁들과의 관계 속에 둬으로써 한국전쟁을 객관화하는 『생존자』는 전쟁과 이산, 트라우마 등으로 치참하게 희생된 이름없는 이들을 애도하고 치유하는 문학이 된다.

Ⅲ. 전쟁포로의 시선으로 본 한국전쟁:

하 진의 『전쟁쓰레기』

중국계 미국인 작가 하 진은 잘 알려져 있다 시피 작가로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30세에 가까운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와 유학하다 귀국을 앞둔

1989년 이른바 천안문 사태에 충격을 받고 미국에 머물기로 결심, 영어로만 집필을 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러한 작가로서 인생역정은 작품들에도 구현되어 기다림 광인 멋진 추락 등의 작품에서 진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억압적인 면과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방 세계의 삶에 대해 그린다. 중국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시선을 견지한 그는 2004년 『전쟁쓰레기』를 쓴다. 『전쟁쓰레기』는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중국지원군(Chines People's Volunteer Army)들의 전쟁 경험과 거제도과 제주도, 부산 등의 포로수용소에서의 삶 그리고 귀국까지의 여정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쓴 소설이다. 한 인터뷰에서 진은 다음과 같이 책의 집필의도를 밝힌다. “제가 중국에서 군에 있을 때 군인들 대부분은 죽는 것보다 포로로 사로잡히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송환된 포로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봤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흡사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올바른 시민으로 남는 최선의 방법은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⁵⁾ 한국전쟁이 터진지 6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국전쟁의 당위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즉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이른바 ‘항미원조전쟁’으로서 당위성을 띤다.(김호웅, 9)⁶⁾ 한편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에게 한국전쟁은 공산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봉쇄전쟁이었다. 별다른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개인적 동기로 전쟁에 참여하고 휴전협상에 임했던 한 평범한 개인이 전쟁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 추락하는 과정을 다룬 『전쟁쓰레기』는 이와 같은 공식 역사가 그동안 도외시한 전쟁의 또 다른 면을 비춘다.

이 소설은 이념수호 전쟁이라는 대의에 가려져 있던 냉전이데올로기와 국가의 폭력을 고발한다. 포로로 잡힌 중공군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봄을 통해서다. 한국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포로들에게도 커다란 희생을 안겼다. 휴전 협정이 시작되는 1951년부터 1953년 7월 휴전이 선언되기까지 유엔군이 거제도포로수용소에 이송시킨 포로는 북한군 15만 여명, 중국군 2만여 명으로 최대 17만 여 명에 달했다.⁷⁾ 휴전 협상이 되자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바

5) <https://www.nytimes.com/2004/10/10/books/arts/view-from-the-prison-camp.html>

6) 김호웅, 「“6.25”전쟁과 남북분단에 대한 성찰과 문학적 서사-중국문학과 조선족문학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논총 제51집 2011, 05.

7) 김미향, 「포로 체험의 재구성 과 기억의 공유」, 『인문사회 21』, 제8권 제4호, 2017. p.1160에서 재인용.

로 포로교환 문제였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제시한 포로 규모가 차이가 나고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Voluntary Repatriation)이 협상테이블에서 관철되자 송환 원칙을 둘러싼 대립이 거듭되었다. 이에 따라 수용소의 포로조직 또한 점차 정 치적, 이념적으로 대립하여 희생을 낳았다.

『전쟁쓰레기』는 이러한 포로송환과정에서 공산진영 측 본토행을 택한 포로들과 국민당 계열의 타이완이나 중립국행을 택한 포로들 사이에 벌어졌던 대립을 배경으로 한다. 국민당 교육기관의 하나인 황푸 사관학교를 다니던 주인공 유유안은 공산주의자들이 패권을 장악한 후 1950년 겨울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유안은 참전 당시 비록 비당원이었으나 공산주의 이념이나 마오쩌둥의 사상에 별 다른 거부감이 없기도 했거니와 순전히 홀어머니와 약혼자가 있는 땅에 돌아오기 위해 공산당의 진영에 가담한다. 하지만 장비나 무기, 전략과 사기 등의 열세, 한국의 낯설고 척박한 환경으로 부상을 입고 패잔병이 된 후부터 전쟁에 회의를 품게 된다. 그러나 전장에서 경험한 고통은 거제도과 제주의 수용소에서 국-공 대립에 의해 자행되는 극악한 폭력의 전조에 불과했다.

그 [왕용] 가 나를 파멸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는 이미 여러 사람들을 중대 본부로 불러 공산주의 반대 서약을 시키고 그것을 공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차단해 버렸다. 그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요즘 왕용은 국민당 편이 수감자들 사이에 문신 운동을 장려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자진해서 팔뚝, 가슴, 배, 심지어 이마에 까지 문신을 새겼다. (...)‘마오쩌둥을 생포하자!’ ‘국민당에 충성하자!’ ‘공산주의를 근절하자!’와 같은 주로 직설적인 구호들이었다.(War Trash 120)

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내 운명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신뢰할까? 그들에게 나는 늘 미심쩍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전장과 항아에서 보여준 행동들은 내가 신뢰할 만하고 내 조국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았을까? (...) 아니, 그게 아니었다.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공산주의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 몰랐다. 내가 그들에게 함세하든 않든, 그들은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혼자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친구든 적이든 선택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중립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War Trash 187)

한국전쟁 당시 남한의 포로수용소에서 중국군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있어왔던 중국사회의 국-공내전의 연장전 상에 있다.⁸⁾ 소설은 포로의 눈을 통해 한국전쟁 속 존재했던 또 다른 전쟁의 실상을 비추고, 국가 민족 이데올로기의 폭거와 그에 의해 소모되고 스러져갔던 ‘벌거벗은 생명’이자 무고한 전쟁 희생자의 존재를 그린다. 친공세력이 지배하는 수용소에서 반공세력이 우세한 수용소로 옮겨 다니며 주인공은 갖은 차별과 회유, 협박, 심지어 고문과 같은 폭력들을 겪는다. 포로들이 본토나 타이완을 선택해야할 순간이 가까워 오며 따라 포로들 간의 대치 형국은 점차 급박해진다. 국민당 포로들은 처음에는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로 유안을 회유하다 나중에는 저항하는 그에게 강제문신을 새기고 만다. ‘마오쩌둥을 생포하자!’ ‘국민당에 충성하자!’ ‘공산주의를 근절하자!’와 같은 직설적인 문신을 강제로 새기는 것은 육체에 새겨진 폭력적 억압이라 할 것이다. 오로지 가족이 있는 본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 공산당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유안은 국민당 포로일당들의 이러한 행태에 본토행을 택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쪽 수용소로 넘어온 후 유안에게는 공산주의 역시 끊임없는 회의의 대상이 된다. 1년여 간 생활하는 동안 유안은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내며 지도부의 특별한 신임을 얻게 되지만 유안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회의를 갖게 하는 사건들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10월 1일 국경일 국기계양 사건 등 지도부의 봉기와 투쟁 명령들은 당의 체면 살리기와 신경전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유혈사태를 불러일으켜 병사들을 소모한다고 생각게 한다. 유안은 “1+1은 1”이라고 믿고 “승수의 힘을 믿”지 않으며 “사람이 중립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회의를 느낀다. 결정적으로 ‘신분재검사 사건’ 때 자신을 배신함으로써 자신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장기말’ 취급을 한 당에게 깊은 실망을 느낀다. 때로는 실제 전쟁보다도 더 고난어린 수용소 생활과 송환협상과정을 겪으며 유안은 자신은 언제나

8) 한국전쟁 중 중국군 포로수용소 상황은 1949년 장제스의 타이완 패주와 마오쩌둥의 신중국 선언이전의 중국의 내전 상황이 다시 한 번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참전 주체들의 시각에서 한국전쟁을 접근한 왕수평의 책 『한국전쟁-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나진희, 황선영 옮김, 글항아리, 2013.)에 의하면 1949년 장제스 군대의 부패와 타이완으로의 패주로 실망한 미국이 지원을 끊자, 위기상황에 빠진 장제스 군대를 구한 것이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회복에 성공한 장제스는 중국군 전쟁포로들을 본토가 아닌 타이완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 외교상의 국-공내전을 재개한다. 장제스가 포로의 타이완행을 내세웠던 이유 중에는 타이완을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외교적인 노림수와 함께 부족한 인력충원이라는 실질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60-66)

대체될 수 있는 한낱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War Trash* 279).

공산당행과 국민당 행 어느 곳으로도 결정하지 못하는 경계인이자, 전쟁과 정치대립의 호모 사케르라는 자각을 한 후 유안은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사유하게 된다. 그는 “한국인들이 왜 가끔씩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는지를 이해한다. 그들에게 우리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온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실제로 한국인들은 이 전쟁이라는 파괴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것에 반해 중국인들은 전쟁의 화염을 자신의 국경으로부터 멀리 유지하려는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며 “우리는 러시아를 위한 충알받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유안은 포로수용소 안의 격렬한 국-공내전을 경험하며,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한다(*War Trash* 302-303).

다음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어려울 것 같았다. 인도에서는 영어를 쓰지만, 그곳은 인구가 많고 실업률이 높은 나라였다. 게다가 카스트 제도까지 있다고 했다. 그곳으로 가면 나는 분명히 밑바닥 삶을 살게 될 것이었다. 영어를 쓰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다른 중립국은 없을까? 설득하기 위해 나를 부르면 이것부터 묻고 싶었다. 적당한 나라가 없다면 브라질로 갈 수도 있었다. 그곳은 광대하고, 기회가 더 많은 나라였다.(*War Trash* 326)

본토행이나, 타이완행이나, 그도 아니면 중립국행이나를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본토행을 택한 것이 무색하게도, 그를 맞이한 본토의 현실은 냉혹한 것이었다. 공산당은 송환된 포로에 대해 돌변한 태도를 보이는데 투항하지 않고 포로로 잡힌 것은 당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송환자들을 배신자, 스파이, 전쟁쓰레기 취급을 한다. 이는 인민군고위간부 포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들 모두 오지로 유배되어 남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한다. 유안이 본토를 택한 유일한 이유였던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약혼녀와는 ‘비겁한 전쟁포로와는 결혼시킬 수 없다’는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다. 그럼에도 유안은 운이 좋아 이후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게 되지만, 당에 의해 끊임없이 보복당하는 송환포로, 타이완행을 택해 성공적 삶을 사는 포로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지난날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뼈아픈 회한을 느낀다. 그러던 중 함께 수용소 생

활을 했던 차오린을 만나고, 페이 인민위원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 『전쟁쓰레기』라는 기록은 전쟁과 정치 이념의 대립을 포로라는 경계인의 위치로 겪어낸 자의 후일담, 디아스포라의 글쓰기이다. 이 기록은 전쟁의 폭력과 국가폭력, 이데올로기의 폭력 속에 가장 밑바닥에 피 흘리며 죽어간 존재들의 시각으로 한국전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IV. 한국전쟁과 인종주의: 토니 모리슨의 『고향』

토니 모리슨은 17세기 말 미국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20세기 후반 다문화 미국사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인종차별로 인한 미국 내 흑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여러 관점에서 천착해 왔다. 2012년 작 『고향』은 한국전쟁을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모리슨의 이전 작품에서도 인종문제와 전쟁의 폭력이라는 주제의식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솔라』에서는 1차 대전, 『빌러비드』에서는 남북전쟁,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희생되거나 살아 돌아와서도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그 예이다. 이처럼 전쟁에서 돌아온 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는 흑인 남성의 고통스런 트라우마는 모리슨의 일관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고향은 전쟁이라는 현대사회의 폭력과 인종차별문제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모리슨은 미국 인종차별주의의 피해자인 흑인 남성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겪는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전시 폭력의 가해자의 이야기와 미국의 극심한 인종차별이 겹치는 지점에 주목한다. 한국전쟁이 잊힌 전쟁이 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문학작품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 속 인종의 재현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은 40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미군은 한국전쟁에서 총 3만 6940명이 사상했다.(Cumings, 35) 참전한 전체 미군의 약 12%는 흑인 병사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소설의 문학적 재현은 대부분 백인작가와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종적 소수자인 흑인 여성작가의 목소리로 흑인병사의 참전 경험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문학적 성과라 할 것이다. 소설은 20세기 중반의 세계사적 두 사건을 병치함으로써 한국전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종주의가 단순히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자 정치학의 차원임을 심도 있게 드러내는 동시에, 인종적 소수자가

경험한 한국전을 들려줌으로써 소수적 민중들에 대한 다층적 차별과 억압이 존재한 하나의 전지구적 사건으로서 한국전쟁을 이해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소설은 주인공 프랭크 머니(Frank Money) 미국 남부에서 전쟁터로 그리고 그로부터 살아남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원형을 호머의 『오디세이』(*Odyssey*)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오디세이가 오디세우스가 전쟁과 모험을 거치고 마침내 이타카로 귀환하기 까지 모험담과 영웅서사를 보여준다면, 『고향』에서 나타나는 여로는 트라우마와 폭력으로 점철된 여정으로, 차라리 폴 길로이(Paul Gilroy)가 말한 대서양 제국주의 노예무역 통행로로서의 ‘블랙 아틀란틱’(Black Atlantic)에 가깝다.⁹⁾ 흑인 전쟁용사가 귀환하는 여정에 ‘고향’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부재한다. 제목이자 주제의식인 ‘고향’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향없음’의 메시지를 소설 내내 시사하게 된다. 1950년대 미국 남부 조지아주는 ‘고향없음’을 표상할 만큼 흑인에게 끔찍하고 암울한 장소이다.

조지아주의 로터스는 이 세상에서 최악의 장소이고 어떤 전쟁터보다 더 끔찍한 곳이다. 적어도 전쟁터에는 목표와 흥분, 도전이 있으며,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많지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곳이다. 죽음은 분명한 것이지만 살아있는 것도 그만큼 확실하다. 문제는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로터스에는 미래가 없고 (...) 숨 쉬는 것 외에는 목표도 없고 쟁취할 것도 없으며 누군가의 조용한 죽음 이외에는 생존하는 것도 생존할 가치가 있는 것도 없다.(Home 83)

“어떤 전쟁터보다 더 끔찍한 곳”로터스로 이주하기 전 프랭크의 가족은 텍사스에서 쫓겨난다. 1930년대 흑인들은 백인 집주인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날 수 있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이웃 노인 크라포드(Crawford)씨는 집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는데 “아마도 그가 자랑하던 증조할머니가 심었던 그 나무”아래에 묶여 두 눈이 도려내 진 채로 살해당한다.(10) 강제 퇴거 당한 흑인들이 가족우리나 화물차, 그리고 버려진 집에서 살아야 했던 가운데 프랭크 가족이 도착한 조지아 로터스에서 어린 프랭크와 씨 남매는 마을어귀에서 한 흑인아 백인들에 의해 생매장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이는 남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 된다. 남매의 부모는 농장 일을 하며

9) Paul Gilroy, *The Black Atlantic :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하루 열여섯 시간을 일하다가 병을 얻어 일찍 죽고 만다. 프랭크가 참전 군인이 되어 돌아온 북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분명한 목표 없이 서 있거나 걸터다니는 것”(9) 때문에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되어 체포된다. 여자친구 릴리(Lily)는 착실히 모은 돈으로 집을 사려 하지만 그 희망은 인종적 조건에 의해 좌절된다. 여동생이 있는 아틀란타로 가는 여정에서, 빌리 왓슨의 집에 머물게 되는 프랭크는 왓슨의 아들이 백인 경찰의 장난에 의해 팔에 총격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시카고로 가는 기차 안에서 어느 흑인 부부 중 남자는 백인들만 이용하는 기차칸 식당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린치를 당한다. 인종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장면은 여동생 씨가 그녀가 가정부로 일하는 닥터 보(Dr.Beau)의 집에서 우생학에 근거한 인체실험을 당하는 장면이다. 인종차별주의자이자 백인우월주의자인 닥터 보는 흑인여성들을 피어 산부인과 실험을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¹⁰⁾

프랭크는 “어떤 전쟁보다도 나쁜”(83) 로터스 마을을 벗어나고자 두 친구와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한다. 『고향』은 총 17장으로 된 소설로 사실 한국전쟁을 다룬 부분은 겨우 몇 개의 장에 불과하며 짤막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청과 시점의 끊임없는 변화, 플래시백 기법 등 형식과 구성이 독특한 소설은 한국전쟁을 여전히 중요한 모티브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전쟁 장면은 프랭크가 과거에 겪은 인종차별 트라우마에 관한 장들과 함께 플래시백 형식으로 등장한다. 마치 전쟁에서의 폭력적 경험이 착란과 분열의 형태로 프랭크 머니의 현실로 끊임없이 되돌아 오는 듯 하다. 인종차별을 피하기 위해 도피한 진짜 전쟁터에서 한국의 혹독한 환경과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프랭크는 바로 후회를 시작한다.

한국. 너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다. 너는 그곳을 결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황량한 경관을 묘사할 수 없지. 우선 추위에 대해 말해 볼게. 얼어버리는 것 이상이야. 한국의 추위는 고통스러워. (...) 가

10) 미국 인종차별의 역사는 노예 해방을 거친 뒤 1960년대 민권운동(Civil Rights Act)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는 짐 크로우법(Jim Crow Law)이 우세했다. 1960년대 미국남부를 배경으로 인종차별에 맞서는 세 여성의 삶을 그린 소설 『헬프』(The Help)에 잘 묘사된 것처럼, 흑인은 백인가정의 가정부로서 백인들의 아이를 돌보면서도, 병균을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식기류를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화장실도 별도로 써야했다(105). 인종주의 반대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조차 미국 남부의 일상에서 흑인은 비가시적인 존재로 낙인찍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 나쁜 것은 혼자 보초서는 것이야.(...) 네 눈과 귀는 움직임을 보고 듣도록 훈련되었지. 저것은 중공군의 소리인가? 중공군은 북한군보다 더 지긋지긋해. 중공군은 결코 포기란 없고, 멈추지 않아.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되어도 일어나서 너의 사타구니를 쏘 거야. 네가 오판을 하여 그들의 두 눈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탄환을 아끼지 말고 쏘야 해.(93-94)

한국의 추위도 같이 참전한 어릴 적 단짝친구 마이크(Mike)와 스템프(Stuff)의 잔혹한 죽음을 목격한 것, 그 분노로 인해 한국 민간인들에 대해 무차별 사살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프랭크가 고향 친구들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죄의식과 상처보다 더 심한 상처는 죄 없는 한국 소녀를 사살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보초를 설 때 먹을 것을 찾아 초소로 찾아 온 한국인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죽인다. “그러나 그 이전 그의 고향 친구의 죽음 이전, 그 [프랭크]는 다른 죽음을 목격했다. 그 초병이 그 소녀의 머리를 날리기 전에 쓰레기를 뒤지는 그 소녀는 오렌지를 움켜쥐며 환하게 웃고 남남이라고 말했다”(H 99)라고 마치 동료병사의 일처럼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인칭을 바꾸어 “내가 그 한국소녀의 얼굴을 쏘았다”며 프랭크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음을 털어놓는다. 이처럼 프랭크가 착란과 마음의 갈등 속에서 인칭을 교차해 가며 거듭 고백하듯이 이 사건은 전쟁 이후 프랭크의 삶에도 큰 정신적 충격과 죄의식을 안긴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한 백인 병사들과 흑인 병사들은 미국정부의 인종통합정책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함께 전투에 참여하였다. 흑인들은 인종통합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미국사회의 혹독한 인종차별로부터 도피할 수 있었지만 전쟁에서 돌아 온 후 그들은 미국 내의 변함 없는 인종차별과 대면해야 했다. 참전 후 정신착란 증세와 당시의 인종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프랭크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동생 씨(Ci)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병원을 탈출한다. 숨어든 인근 교회에서 만난 존 로크(John Locke) 목사는 참전에 대해 프랭크에게 “흑백 통합된 군대는 통합된 불행이다. 당신들은 모두 싸우러 갔다 돌아온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들을 개처럼 대접한다. 바꿔 말해 그들은 오히려 개에게 더 잘 해준다.”(18) 라고 일갈한다. 프랭크가 속한 미국사회는 참전군인 마저 인종을 앞세워 차별하는 사회로,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무역을 통해 미국 땅에 도착한 이래 오랜 세월동안

극심한 인종차별을 자행해 왔다. 『고향』은 끔찍한 인간 생매장에서부터 흑인 신체에 대한 우생학 실험, 흑인 부랑자에 대한 무차별적 감금, 그리고 흑인들을 백인 거주 지역에서 분리하는 거주 자유의 박탈 등 1950년 전후의 미국사회의 극심한 인종차별적 사회구조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프랭크에게 한국전 참전은 인종차별로부터의 도피이지만 전쟁 폭력의 가해자로서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트라우마의 중심에 위치한 한국소녀에 대한 성폭행과 폭력에 대한 억압된 기억으로 전쟁에서 돌아온 후 예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데, 전쟁 후에 분열증과 환각을 앓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고향』은 20세기 중반의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양상과 한국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병치하며 인종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상처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각기 다른 인종과 민족, 젠더, 신분의 참전자들과 전쟁 희생자들이 구성한 다원화된 역사적 기억을 보여주는 텍스트가 된다.

V. 나가며: 탈냉전시대의 한국전쟁소설

한국전쟁은 냉전이라는 양극시대 질서가 낳은 첫 번째 폭력적 사건이다. 냉전이라는 이념의 글로벌 충돌의 여파를 세계의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경험한 것은 아니다. 사회인류학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냉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유하는 권현익에 의하면, 서구에서는 냉전이 오랜 평화이자 상상의 전쟁이었다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탈식민 국가들에게는 일상의 일부로서 경험해야 했던 폭력이었다.(17-18) 냉전을 전자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후자의 측면은 은폐되고 말소된다. 한국전쟁이 망각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도 이와 같은 냉전의 역사적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냉전이 불안하게 얹힌 한국의 해방 정국에서 터져나온 한국전쟁은 이후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멘탈리티를 지배하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전쟁은 현대성의 특정한 패권 구조 속에 우연히 터져 나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세계 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세계사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쟁 발발과 정전협정으로부터 약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냉전과 한국전쟁의 온상지였던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남북 간의 기류는 급변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

년 한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이 있었다. 북미 관계 역시 큰 변화가 있어 최초 북미 정상상이 이루어졌다. 2019년 북한 측의 신년사에서는 한반도의 역사적인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의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남북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의 국면 가운데 한국전쟁과 같은 현대성의 사건을 돌아보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쟁의 망각을 딛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한국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는 미국문학작품들을 다루었다. 한국전쟁 50주년이 되는 2000년을 전후 해 출간된 한국전쟁소설들은 기존 소설들의 서구중심적 사유를 극복하는 시도로서 의미있다. 창래 리의 『생존자』, 하 진의 『전쟁쓰레기』, 토니 모리슨의 『고향』은 한국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면서도 기존의 미국소설의 전쟁 재현과는 상이한 양상을 지닌다. 기존의 문학작품들에서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던 소수자 혹은 전쟁이 낳은 부산물의 입장에서 전쟁의 재현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둘러싼 이와 같은 소수자들의 증언들은 한국전이 냉전 이념대립의 전장이나 극동 아시아 한 국가의 내전이 아니라, 인종, 국가, 민족, 정치이념을 넘어선 다양한 대립들의 격전지이기도 했음을 말해준다. 탈냉전, 초국가주의 시대에 한국전쟁을 증언하는 ‘또 다른 목소리’들은, 전쟁을 냉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축소, 은폐하려 했던 거대역사의 한계를 넘어, 잊혀진 전쟁을 복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서의 새로운 역사쓰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Work Cited

- 강우성, 「억압된 인종 공포: 미국문화와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김동환 외 지음,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2008.
-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이한중 옮김, 민음사, 2013.
- 김미향, 「포로 체험의 재구성과 기억의 공유」, 『인문사회 21』, 제8권 제4호, 2017.
- 왕수평. 『한국전쟁-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나진희, 황선영 옮김, 글항아리, 2013.
- 정연선, 「중단된 성전: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소설의 연구」,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이기윤, 신영덕, 임도한 엮음. 서울:국학자료원, 2003.
- Caruth, Cathy. *Unclaimed Expi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Chang, Iris. *The Rape of Nanking*, Basic Books, 2011.
- Cumings, Bruce. *The Korean War:A History*, Modern Library, 2010.
-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Diana Brydon, Ed. *Postcolonialism*. New York: Routledge, 2001.
- Jin, Ha. *War Trash*. New York: Vintage Books, 2004.
- Lee, Chang-rae. *The Surrendered*. New York: Riverhead, 2010.
- Morrison, Toni . *Home*. New York: Knopf, 2012.
- Paul Gilroy, *The Black Atlantic :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Stockett, Kathryn. *The Help*, Penguin Books, 2009.

Abstract

Korean War Narratives and Re-writing History: Focusing on Chang-rae Lee's *The Surrendered*, Ha Jin's *War Trash*, Toni Morrison's *Home*

Kim, Yanghui

Korean war(1950-1953) was one of the most historical events in the world in that not only did the war cause extraordinary casualties including civilians deaths and Korean Peninsula division, but also it has had an enormous impact on the culture, politics, and economics of most part of the world beyond both countries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the war has been considered as “forgotten war” for most Americans. It has been down sized or even repressed as a national trauma without being fully acknowledged, Around 2000, however, when it has been 50 years since the end of war and Korean Armistice Agreement, quite a few of the Korean War novels were published in American literature. In these novels, so called minority writers represent wartime from a war victims' point of view. Especially Changrae Lee's *The surrendered* portrays the wartime victims and their traumatic experiences, who comprise a Korean refugee girl, a survivor from massacre and American soldier with disability. In *Home* Toni Morrison deals with both traumatized Korean War veteran and the oppressive racism of African Americans during the post-war American society of the 1950s. Lastly, In *War Trash*, the Chinese American writer Ha jin criticizes the nationalism of Chinese communists from a standpoint of Korean War POWs. These literary representations of Korean War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newly understanding of Korean War and offer opportunities of re-writing small histories which have been oppressed by official history and mainstream narratives.

Key Words

Korean War novels, third-world literature, Cold War, Changrae Lee, Toni Morrison, Ha jin, re-writing history, small histories

버지니아 울프의 후기 에세이로 다시 읽는 모더니즘

김 언 영

I. 들어가며

모더니즘은 ‘무엇’이라는 식으로 정의되기를 거부하며 여전히 까다로운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모더니즘에 대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묘사는 적확해 보인다. 그는 “모더니스트 형식의 특징은 회극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 고상한 것과 저속한 것, 평범한 것과 이국적인 것,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이상할 정도로 병치한 것”(189)이라고 평한 바 있다. 예술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반동과 표현력에 대한 저항은 전형화된 틀로는 규명할 수 없는 가히 새로운 시도들이었다. 큐비즘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듯이 모더니즘 시기에는 형식적 실험들이 대거 등장했고 과거의 형식과 문체가 재해석·모방·패러디되기도 하였다. 예술 전반에 걸쳐 일어난 전례 없었던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에 많은 학자들은 나름의 입장을 제시해 왔다. 프레데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모더니즘이 근대성의 현실적인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였고 파편화된 시기에 재현이나 총체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하였다. 리타 펠스키(Rita Felski)는 모더니즘 텍스트가 리얼리즘이 얼버무린 근본적인 균열을 바로 그 텍스트의 구조 속에 구현함으로써 특권적인 인식론적 권위를 갖게 된다고 파악한다(63). 크리스토퍼 버틀러(Christopher Butler)는 모더니스트에게 형식을 선택하는 것은 불안정성에 대한 기호가 아니라 자유의 양상이었고, 이러한 형식의 다양성은 예술에서의 자유민주주의였다고 평한다(11-12). “모더니즘은 표면적인 문학적 인습의 안전성을 뛰어넘어, 현실이 유동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비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보다 진정한 리얼리즘”(Marcus 14)이라 보는 주장도 있다. 이들의 견해는 모두 모더니즘을 헤겔식의 변증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근대 사회에서 주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 사이의 균열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서 조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닌다.

모더니즘을 논함에 있어서 게오르그 루카치(Georg Lukacs)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설의 이론』에서 루카치는 근대를 “죄업이 완성된 상태”(184)로 표현하며 잃어버린 총체성을 다시 찾으려는 전형적인 개인에 관한 이야기인 소설의 역할을 높이 다뤘다. 그는 철저하게 “개인의 주관성과 객관적 현실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24)에 문학의 구체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모더니즘에서 주체는 객체로부터 분열되고 주체로부터 단절된 세계는 물화되어 버렸다. 모더니즘에서는 더 이상 총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할 전형(type)이 창조되지 않는다. 루카치의 시각에서 모더니즘 작품은 “구체적 전형성을 추상적 특수성으로 대체”(43)하는 경향에 다름 아니며 인간은 원래부터 비사회적이고 고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모더니즘이 세계로부터 소외된 개인들만을 이야기할 뿐 객관적 세계와의 연결은 탐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루카치 모더니즘 비판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이후 모더니즘을 둘러싼 비판적 인식과 논쟁의 근간이 되며 단편적으로 흘러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루카치의 비판은 당시 그가 놓였던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갈등과 정치적 상황의 격변을 고려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루카치는 스탈린 체제 하에 머물며 스탈린주의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체제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히틀러 몰락에 대한 갈망, 지식인들의 나치즘 참여에 대한 우려(Lukacs 27),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흔들림 없는 추구가 있었다. 루카치의 모더니즘 비판은 이러한 정치적 입장에서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루카치를 모더니즘 비판의 진영에 단순히 위치시키기 보다는 그가 발현한 총체성과 문학의 기능에 대한 논의의 유효성을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총체성 모색과 문학과와의 관계에 대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고의 2장에서는 전지구적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더니즘의 현재적 논의를 분석하고, 모더니즘 논의에서 주요한 담론으로서 작동하는 제국주의와 페미니즘을 살펴보겠다. 결국 이러한 담론이 모더니즘을 확장하며 운동하게 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의 담론들을 모더니즘의 상징적 여성작가인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1882-1941)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그녀의 후기 에세이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1929)과 『3기니』(*Three Guineas*)(1938)를 가져와 기존의 모더니즘 비판을 재고한다. 4장에서는 울프의 코즈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적 비전에 담긴 개인과 세계의 새로운 총체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¹⁾

II. 전지구적 모더니즘

현재 모더니즘 논의의 흐름을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 보자면, 먼저 모레티, 카자노바, 제임슨 등의 그룹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 하에서 세계는 불가피하게 하나의 경제적, 정치적 단위이며 각 국가는 불균등한 권력의 지형에 놓여 있음을 전제한다. 제임슨은 불균등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모더니즘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구조화된 불평등의 세계에서 부당한 조치의 정치적·경제적 결과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진영에서는 댄로쉬, 스피박, 길로이 등이 지구적 모더니즘을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이산 문화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다양한 지역 문화의 발현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근본적인 지구적 조건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점을 기술하려는 시도의 오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 전자가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문화의 불균등한 움직임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는 작품이 문화적인 맥락을 가로지르며 다양한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더니즘이 긴장관계에 놓인 지구적 운동이라는 사실의 직접적 증거가 되며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논의를 절충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모더니즘이 민족적 영토와 세계 자본주의에 독립적이고 심미적인 형태가 될 수 있는지와 모더니스트적 문화 생산이 국가 전통을 고취시키거나 침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의 관계 설정”(Kalliney 163)이 모더니즘 이해의 관건이 된다. 결국 모더니즘 연구의 미래는 문화 생산과 미학 및 정치 사이에 움직이는 생산적 긴장에 달려 있다.

모더니즘을 제국주의의 차원에서 논의함은 모더니즘에 내재하는 복수성을 드러내고 위치적 특수성에 따른 근대성의 문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광의의 작업들을 가능케 한다. 제국주의의 최고조기에 태동했던 모더니즘을 그것과 연결하여 연구하는 작업은 일견 당연해 보이고 모더니즘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시 읽을 것인가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불러 온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개별적인 주체성을 향한 모더니즘은 인식적 모순으로

1) 본고의 작품 인용은 *A Room of One's Own & Three Guineas*(1993)를 따른다. 작품 인용은 [Room], [Three]로 약기한 후 쪽수를 표기하겠다. 번역은 『자기만의 방』(이미에 옮김, 2006)과 『3기니』(태혜숙 옮김, 2007)를 참고하고 수정하였다.

작용하여 탐구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더니즘이 인간의 의식을 더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의도는 제국주의와 함께 서구의 의식을 다른 세계로 투영시키는 오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더니즘 작품에서 제국의 주인공들이 내보이는 섬세한 내면을 상황적 맥락 없이 독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모더니즘의 작용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황적이고 정치적인 질문들이 경시되던 모더니즘에 제국주의를 대입했을 때 우리는 모더니즘을 미학적으로만 독해할 수는 없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모더니즘을 정치와 역사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 여긴 지난 비평들에 반하며 모더니즘 다시 읽기의 필요성을 낳는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제국주의의 작용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모더니즘의 새로운 논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서구 중심으로 정전화되었던 모더니즘은 식민지/탈식민지의 역사적 현실 속에 놓인 작가들의 활동을 포함하면서 그 지형을 새롭게 그리게 되었다. 이를 통해 모더니즘은 서구 중심의 미학적 차원의 한계에서 벗어나와 정치, 역사적 범주에서 그것에 내재한 양가성과 혼종성을 드러내게 된다.

근대성 담론에서 여성이 어떻게 수용 혹은 배제 당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은 남성 중심의 근대성 자체에 균열을 내며 논의의 공간을 넓힌다.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의 담론에 여성의 문제가 제기될 때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의 본질적 관계와 모순들은 드러나게 된다. 즉, 근대의 권력관계에서 주변부적 인물인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근대성과 모더니즘에 대한 보다 다층적인 접근에 다름 아니다. 펠스키는 『근대성의 젠더』(*The Gender of Modernity*)에서 모더니즘이 본질적으로 비결정적이고 파편화된 사회의 본질을 진실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가정하며(63), 모더니즘을 페미니즘으로 독해하는 작업이 근대성에 의해 억압받은 여성의 경험을 남성적 경험의 부산물로 그리는 차원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적 글쓰기를 신비화하는 경향, 남성과 여성의 근대성의 경험을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단순한 페미니즘 이론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모더니즘을 페미니즘의 영역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근대성의 작동에 여성의 문제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체제에서 여성의 텍스트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밝혀내려는 시도여야 한다. 다음 장에서 분석될 버지니아 울프는 자신의 후기 에세이 두 편, 『자기만의 방』과 『3기니』에서 근대성의 지축인 제국주의, 민족주의, 파시즘이 같은 근원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여성의 문제를 대입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지정학적, 여성적 관점에 충실하게 위치하며 파시즘의 전횡과, 영국의 근대성, 제국주의적 확장을 비판했다. 울프의

페미니즘은 현재의 페미니즘 논의뿐만 아니라 모더니즘의 현재적 맥락과 연결하여 소환해 볼만하다.

Ⅲ. 울프 후기 에세이의 정치성

버지니아 울프는 모더니즘의 상징적 작가로 회자되고 있는 만큼이나 그녀의 작품 세계를 둘러싸고 많은 편견과 곡해가 있어왔다. 지적 엘리트 계층 출신이라는 태생적 위치와 귀족주의적 모임인 블룸즈버리(Bloomsbury)의 핵심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울프가 부르주아 계층만을 대변했을 뿐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대표작인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1925)에서 유려하게 사용된 “의식의 흐름” 기법은 그녀가 개인의 의식 세계에만 천착한 나머지 외부 사회의 실질적 문제와는 유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얻게 하는 큰 요인이 된다. 또한 울프의 글이 대중적인 여성의 일상적 삶에 무지하며 그들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한 근대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비난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들에 정신 질환과 자살로 이어졌던 울프의 전기적 사실까지 더해지며 모더니즘의 전형적 틀 안에서 그녀는 외부세계와 현실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작가로 박제되어 있다.

하지만 울프 비평은 후기 에세이들인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1929)과 『3기니』(*Three Guineas*)(1938)에 이르며 재논의의 필요성을 가진다. 두 에세이를 관통하여 인간이 처한 물적 환경이 개인의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진중한 문제의식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두 문제적 에세이를 통해 모더니스트로서 울프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힘들에 의해 인간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맑스의 유물론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르주아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편견과는 다르게 그녀는 실제 상당한 경제적 인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과 고정적인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는 글의 나머지를 기억나게 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 글에서 울프는 기존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섬세한 여성적 글쓰기로 여성의 현실적 문제를 진단했다. 그러나 죽기 삼 년 전인 1938년 출판한 마지막 에세이 『3기니』에서는 남성적 글쓰기 방식으로 선화하며 급진적인 정치적 입장을 보였다. 울프는 1927년부터 뉴스 클리핑, 청원서, 선언문, 노트 등을 『3기니』의 기초가 되는 세 개의 스크랩북에 붙여 넣고 논증의 사실로 사용하였다. 1930년대에 그녀는 여러 반파시스트 모임에 가입하며 반파시스트 소평론을 써야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고 스페

인 내란은 이를 더욱 자극하였다(Friedman, "Wartime" 2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간된 『3기니』를 통해 울프는 반전주의자로서의 입장을 밝히며 전쟁 방지는 여성의 교육과 사회 진출 등의 여성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기만의 방』에서의 논지는 『3기니』에서 긴박하고 직설적인 어조로 더욱 발전되고 있다. 이 두 에세이는 울프의 작품 경향에서 정치성이 드러나는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며 여기서 모더니스트로서의 울프는 다시 분석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두 에세이를 통해 울프는 파시즘을 가부장제, 제국주의와 같은 근원에서 뻗어 나오는 체제로 진단하고 있다. 파시즘이 확산되던 시기에 발표한 『자기만의 방』에서 울프는 파시즘과 영국의 제국주의, 가부장제를 극도의 남성성을 특징으로 한 군국주의 문화에서 생겨난 유사한 체제들로 규정한다. "여성은 수 세기 동안 남성의 모습을 실제 크기의 두 배로 확대 반사하는 마력을 지닌 거울 노릇"(Room 32)을 해왔고, "나폴레옹과 무솔리니는 여성의 열등함을 아주 힘주어 강조"(32)했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가부장적 권력과 파시즘이 연결되어 있고 그 근처에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3기니』에서 더욱 직설적으로 계속된다. 이 글은 영국의 파시스트 적들과 맞서도록 독자들을 자극하는 대신에 국내외에서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유사점을 강조한다(Friedman, "Wartime" 30). 『3기니』에서 울프는 남성 지배계층의 집단적인 의식과 욕망이 이념적 체제로서 파시즘과 제국주의로 표출되어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교육을 통해 남성은 전쟁을 옹호하는 성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며 전쟁을 미학화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지배욕을 합리화 한다는 것이 울프의 논지이다. 『3기니』보다 2년 앞서 발표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1936)에는 파시즘의 "정치적 미학화"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벤야민은 자본주의 생산조건과 생산력에 맞는 예술적 형식이 부재한 상황아래 파시즘이 예술의 전통적 개념들을 덧입음으로써 새로운 종교로서 정치를 미학화하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정치의 미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도달하는 정점은 바로 전쟁"(Benjamin 241)이라고 단언하였다. 울프는 이러한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근대성의 돌출된 형태인 파시즘과 제국주의에 대한 근원을 탐색하고 『자기만의 방』과 『3기니』를 통해 문학적으로 심도 깊게 대항해 나갔다.

울프가 시대적 모순에 대항한 방식은 다른 모더니즘 작품들과는 다르게 매우

현실적인 여성적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울프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중시하며, 매우 특정한 위치성에 준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를 먼저 언급하자면, 울프는 굉장히 경제적인 사고를 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여성의 문제와 그와 연관된 정치적 현상들의 방지에 전제되어야 함을 통찰하였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전제되지 않은 여성 문제의 제도적 변화가 얼마나 무용한지를 예측해낸 현실적 접근이다. 『자기만의 방』에서 숙모로부터 매월 오백 파운드의 유산을 받게 된 울프는 “투표권과 돈 중에서 돈이 더 무한히 중요해 보였다는 사실을 고백”(Room 34)한다. 유산 상속은 “사물을 그 자체로 생각하는 자유”(35)를 주었고 “지적 자유는 물질적인 것들에 달려 있다”(97)는 울프의 직접적인 말처럼 이 자유는 작가로서의 필수 조건을 충족시킨다. 파시즘이 정치를 미학화하며 예술을 악용하고 다수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파시즘에 기여하는 상황에서 울프가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적 자유를 주장했다는 사실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울프가 매우 특정한 위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봤을 때 그 위치성을 부르주아 여성으로서의 위치와 영국인으로서의 위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실제 『델러웨이 부인』 및 『등대로』(*To the Light House*)(1927) 등의 대표작에서 그녀는 중상류 계층의 여성들을 등장인물로 삼고 있으며 일반 대중 여성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작품경향은 그녀의 텍스트가 안일한 부르주아 여성의 자의식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술한 오해와 비판을 받게 된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하다. 그러나 『3기니』의 각 장은 방대한 주석이 뒤따르고 있고 그것은 이름 없던 여성들이 남긴 일기와 회상록, 신문과 잡지들로 독자를 연결하는 좌표역할을 한다. 이 중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3장의 미주 13을 통해 우리는 울프가 가진 계층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울프는 교육받은 자가 노동 계층의 대의명분을 채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집필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노동 계층의 경험도 공유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척’하기에만 매력을 느끼는 중산층을 “한량들”이라 비꼬아 지칭한다(Three 310). 그러면서 보통 가정주부에 대한 직접적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신문과 여성 노동 협회에서 발간하는 잡지를 높이 추천하며 그것을 읽기를 제안한다(311). 울프는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부르주아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노동 계층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일본학자 오카 마리는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에서 서구 주도의 페미니즘이 제국주의에서 이중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진단한바 있다. 북반구 여성이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몇 가지 공통분모만으로 제3세계 여성과 연대가능하다고 보는 태도가 가진 근본적인 편협성을 고발했다. 또한 수잔 프리드만(Susan Friedman)은 오늘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글로벌 문화적 지리학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engagement)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Kalliney 69 재인용), 그녀는 로컬적인 문제와 지구적 문제와의 연결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스피박의 “트랜스내셔널 리터러시”를 페미니즘이 나아갈 길로 꼽았다(Friedman, *Mappings* 68). 차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결합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현재의 페미니즘 맥락에서 자신의 독특한 여성적 입장에 기반하되 함몰되지 않고 타자의 경험을 향해 창을 낸 울프의 작업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

IV. 울프의 코즈모폴리타니즘²⁾

아일랜드의 비평가이자 작가인 마이클 크로닌(Michael Cronin)은 『번역과 정체성』(*Translation and Identity*)에서 코즈모폴리타니즘을 거시-코즈모폴리타니즘(macro-cosmopolitanism)과 미시-코즈모폴리타니즘(micro-cosmopolitanism)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거시-코즈모폴리타니즘은 코즈모폴리탄적 계기들을 제국의 건설, 거대한 민족국가의 전개, 또는 보다 최근의 초국가적 기구들의 설립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제도들이다. 미시-코즈모폴리타니즘은 더 작은 집단을 다양화하고 복잡화하려고 시도하는 접근방법으로서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코즈모폴리타니즘이다. 코즈모폴리탄적 접근방법에 대한 반복적 비판들 중의 하나가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난이었다면, 미시-코즈모폴리탄적 운동은 다양성, 차이,

2) 칸트, 마르크스, 엥겔스는 코즈모폴리타니즘을 둘러싼 근대 이후의 수많은 논쟁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칸트에게는 그것이 규범적(precriptive)인 범주인 반면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는 주로 서술적(descriptive)인 용어로 쓰인다. 칸트의 철학을 근간으로 한 규범적 코즈모폴리타니즘에서는 보편적 시민의식이 민족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갈등에 대한 도덕적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국가는 궁극적인 미학적·윤리적 문제의 중재자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개별 국가가 규제하지 않는 세계 표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다르게 맑스와 엥겔스는 세계의 주체에 대한 윤리적 지평을 개진하는 코즈모폴리타니즘의 가능성과 보편적 시민에 대한 전망에 있어 낙관적이지 않다. 그들의 견지에서 자본주의가 이미 그러한 역할을 하며, 노동을 할 수 있는 한 세계는 이미 국제적 성격을 소유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환을 사회의 미시적 차원에 위치지음으로써 코즈모폴리탄적 이상에 대한 고립된 엘리트들의 독점에 도전하고, 탐구의 범위가 무한히 작든 또는 무한히 크든 다른 뭔가가 바로 우리의 직접적 환경의 가까이에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크로닌은 코즈모폴리타니즘이 차이들과 단일한 장소들의 특별한 주장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34-44). 앞서의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3기니』는 페미니즘의 현대 이론가들이 미시-코즈모폴리타니즘과 연관시키는 개념들인 “위치”(situated), “특정”(particular)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울프는 영국성을 비난하면서도 끝까지 영국 여성의 위치성에 충실하였다. 그녀는 제국의 중심인 런던에 머무르며 정치성을 잃지 않고 문학 활동을 이어나갔는데 이는 미학을 추구하며 국외추방자가 되어 파리로 모여 들었던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등의 모더니스트들이나 제 3의 세계를 찾아 영국을 등진 D. H. 로렌스(D. H. Lawrence) 등과는 비견되는 행보이다. 많은 비평가들은 국외거주자들을 선택된 코즈모폴리탄으로 다뤘었지만 그들은 국가의 문화적 문맹을 탈출하기를 갈구하는 지적으로 분리된 예술가들이었다(Kalliney 59). 코즈모폴리타니즘은 완전한 지적이고 물질적인 분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런 종류의 코즈모폴리타니즘은 엘리트주의적 태도와 상대적인 부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정치적, 윤리적 분리의 한 형태로 비춰질 수 있다. 조이스가 아일랜드를 벗어나면서까지 추구한 미학은 그 나라의 대중이 겪는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한다. 오히려 존 밀링턴 싱(John Millington Synge)과 같은 민족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아일랜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아일랜드의 문화적 민족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한 장소에서 이국성의 흔적들을 알 수 있다(크로닌 43). 울프는 서구 근대성의 폐부에서 숨 쉬며 영국 자본주의 발달, 파시즘의 황포, 제국주의의 징후적 현상들을 직접 경험하였다. 영국의 지배구조에서 울프는 아웃사이드인 여성이었지만 그러한 위치에서의 경험 또한 근대성의 한 측면이며 발화되고 기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였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자기만의 방』에 나타난 이러한 여성적 경험의 잠재적인 권위 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Said 334).

울프의 코즈모폴리탄으로서의 비전은 『3기니』에서 피력한 급진적 선언에서 강렬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나에게는 국가가 없고,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나의 국가는 전 세계이다”(As a woman, I have no country. As a woman I want no country. As a woman my country is the whole world)(*Three* 234)라는 유명한 대목이다. 울프는 여성으로서 나에게는 국가가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국가의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녀에게 영국은 떨쳐낼 수 없는 애증의 대상이었다. 울프의 코즈모폴리탄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가는 궁극적인 윤리적 질문의 중재자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를 대체하는 코즈모폴리탄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코즈모폴리탄이라는 용어의 반의어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가주의”(Cheah 22)이다. 울프는 “공동의 인간성과 공동의 정의 또는 공동의 상식에 어떤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게 틀림없다”(Three 164)라고 피력하며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도덕적인 판단”(124)을 추구한다. 울프는 코즈모폴리타니즘적 전망을 그것이 단지 윤리적으로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찬성하지 않았다(Kalliney 60). 그녀에게 코즈모폴리타니즘은 지나친 민족주의나 여성·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해독제로서 기능할 수 있기에 세기의 정치적 제앙에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대처였다. 울프의 코즈모폴리탄 페미니즘은 여성의 주장을 경시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실용적인 응답이 되었고 직접적으로 자기민족중심주의, 여성혐오의 근대적 형태에 대항한다.

울프는 영국 여성으로서의 위치에 충실히 기반 하면서 세계로 향하는 미시적 코즈모폴리타니즘적 태도를 취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경험하지 못한 위치에서의 삶을 선볼리 대변하는 행위는 자신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보았다. 제인 마커스(Jane Marcus)는 2006년 『3기니』의 판본에 붙인 주석을 통해 울프가 『3기니』의 각 장에 첨부한 방대한 미주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것보다 가정적인 것을 포함시키는 대안적 역사를 위한 도서목록의 제공”이라고 하였다. 『3기니』의 미주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여성, 사교계 여성, 전문 여성 등의 다양한 계층이 써낸 다양한 텍스트를 만나게 된다. 독자는 여타의 독서에서는 불필요했던 번거로움을 겪게 되지만 결국 이러한 실험적 구성은 독자 스스로가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진실을 깨닫게 유도한다. 따라서 『3기니』의 기이할 정도로 방대한 양의 주석은 독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도구이자 텍스트를 세계로 여는 출구가 된다.

V. 나오며

모더니즘부터 우리는 완결된 텍스트를 기대하지 않는다. 모더니즘은 부재의 문학이자 균열의 문학으로서 재현될 수 없는 세계가 텍스트 속에 어떻게 균열로서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되었다. 모더니즘 문학의 핵심적 특징은 예를 들어,

『앨러웨이 부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외된 인간의 자의식에 대한 섬세한 독해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텍스트에 균열을 내며 울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전쟁의 상흔으로 피폐해진 인간들이며 이를 결정짓는 제국주의가 텍스트 너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내는 것은 독자의 역할이 되었다. 하지만 울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부장제를 비롯한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체제에 물든 인식과 의식, 그리고 기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물과 존재, 나아가 리얼리티 자체를 가시권으로 끌어내려 했다”(손영주 109). 울프의 그러한 사회 반영적 태도는 본고에서 다뤄진 『자기만의 방』과 『3기니』에 잘 나타나 있다. 울프는 두 에세이를 통해 영국의 체제나 보편적인 범주에 대항하며 개인적 입장에서 구체적인 문제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는 개인의 윤리적 의무의 정치적 표출이기도 하다.

울프는 영국성 내부에서 모더니티의 근원이 여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군국주의의 기치가 드높던 당시 영국 상황에서 파시즘과 가부장제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코즈모폴리탄적 비전을 과감하게 내비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자기만의 방』과 『3기니』의 정치적 메시지는 영국에서 그리고 작가로서 그녀의 입지를 좁힐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모더니즘의 관념성과 추상성에 대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작들로 대표적 모더니스트의 입지를 다진 울프가 후기 작업에서 보인 정치적 행보는 따라서 흥미롭다. 남성적 글쓰기 방식까지 차용한 울프의 체제 비판적 발화는 그녀가 예리한 시대인식을 가지고 정치적 지식인으로서의 문화적 대응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그녀에게 코즈모폴리타니즘은 여성문제, 제국주의에 대한 비교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울프의 코즈모폴리탄 전망이나 세계 시민에 대한 주장은 영국 부르주아 여성이라는 매우 특정한 위치에서의 견해였고 지역에서 보는 차이의 형태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그녀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 문제와 파시즘, 제국주의, 가부장제의 관계를 추적하는 등의 자신의 관심 활동에 기반하여 세계와 관계할 수 있었다.

울프의 문명사적 비판은 페미니즘과 코즈모폴리타니즘을 통해 인간 삶의 내적, 외적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공동의 관심사 즉 하나의 세계, 하나의 생명이 우리를 결합”(Three 271)하는 총체성으로 나아간다. 현재의 코즈모폴리탄은 문제적이고 불충분한 개념이기도 하고 어떤 위치에서 쓰는 지에 따라 개념 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모더니즘에서 로컬적인 코즈모폴리타니즘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에 사적인 세계와 공적인 세계의 새로운

통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울프는 “인간 정신이 경계들을 넘어서 다양성으로부터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인간 정신의 역량”(271)을 상상하였다. 울프는 개인과 사회, 남성과 여성, 정치와 윤리간의 이분법적 구조를 깨며 모더니즘 텍스트의 지평을 수정하였고 이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기 모더니즘에 가해진 비판 자체를 재고하게 한다. 현대의 세계 체제와 사상적 흐름에서 울프는 윤리적·정치적인 참여와 모더니스트로서 미학적 감각의 독특한 조합을 선보였던 인물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모더니즘은 광의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모델을 통해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요구에 답하는 것으로 규명된다. 그렇다면 모더니즘은 시대적인 문화사조에 국한되지 않고 열려 있으며 끊임없이 유동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된다. 모더니즘은 부유하는 공간과도 같으며 그것의 기능을 정치와 미학의 관계에 기반하여 현재의 지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무수한 작업을 가능케 한다.

Work Cited

- 루카치, 게오르크.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서울: 문예, 2007.
- 마리, 오카.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이재봉, 사이키 가쓰히로 옮김. 서울: 현암사, 2016.
- 손영주. ““생각하는 일이 나의 싸움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사유, 사물 언어.” 『영미문학페미니즘』. 22.2 (2014): 85-115.
- 울프, 버지니아. 『3기니』. 태혜숙 옮김. 서울: 이후, 2007.
- _____. 『자기만의 방』. 이미애 옮김. 서울: 민음사, 2006.
- 크로닌, 마이클. 『번역과 정체성』. 김용규, 황혜령 옮김. 서울: 동인, 2010.
- 펠스키, 리타. 『근대성의 켄더』. 김영찬, 심진경 옮김. 서울: 자음과모음, 2010.
- Benjamin, Walter.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Mechanical Reproduction.” *Illuminations*, Ed. Hannah Arendt, Trans. Harry Zohn: Schocken Books, 1968, 217-51.
- Butler, Christopher. *Modern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P, 2010.
- Cheah, Pheng. *Cosmopolitics: Thinking and Feeling beyond the Nation*. Minneapolis: Minnesota UP, 1998.
- Cronin, Michael. *Translation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06.
- Friedman, Susan Stanford. *Mappings: Feminism and the Cultural Geographies of Encounter*. Princeton: Princeton UP, 1998.
- _____. “Wartime Cosmopolitanism: Cosmofeminism in Virginia Woolf’s “Three Guineas” and Marjane Satrapi’s “Persepolis””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32. 1 (2013): 23-52.
- Jameson, Fredric. “Modernism and Imperialism.”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Modernism and Imperialism*. Minneapolis: Minnesota UP, 1990. 43-66.
- Kalliney, Peter. *Modernism in a Global Context*. New York: Bloomsbury, 2016.
- Lukacs, Georg. “The Ideology Of Modernism.” *Realism in Our Time: Literature and The Class Struggle*. New York: Harper & Row, 1964.
- Marcus, Laura. “Feminist Aesthetics and the New Realism.” *New Feminist*

Discourses, Ed. Isobel Armstrong, London: Routledge, 1992.

Said, Edward W.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1994.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 Three Guineas*. Ed. Michele Barrett, London: Penguin, 1993.

_____. *Three Guineas*. Ed. Mark Hussey, Orlando: Harvest, 2006.

Abstract

Re-reading Modernism in Virginia Woolf's Late Essays

Kim, Eon-young

This thesis analyzes global modernism through Virginia Woolf's late essays, *A Room of One's Own* and *Three Guineas*. In her essays, Woolf is deeply focused on her geopolitical and feminine point of view. She argued that imperialism, nationalism, and fascism, which are the pillars of modernity, are deeply linked to women's economic problems. Woolf's view of the cosmopolitan and its claims to the world's citizens were rooted in a very specific position, a British bourgeois woman. This made it possible to recognize and accept the forms of difference seen in the situated position. In fact, cosmopolitan is a controversial discourse to date and may be seen as another cultural form of imperialism. Nonetheless, the discussion of local cosmopolitan must continue since there is a new possibility of integr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world. Woolf's critique of civilization history went through feminism and cosmopolitanism into a totality that "a common interest unites us; it is one world, one life" (*Three* 271). Woolf's cosmopolitan feminism became a pragmatic answer to nationalism, which down played women's claims. Woolf, based on her position as a British woman, took a micro-cosmopolitan vision toward the world. As we follow the vast annotations of *Three Guinea*, we encounter various texts written by various classes of women. This experimental setup leads the reader to identify facts and ask questions, and to realize new truths. In that sense, the annotations of *Three Guinea* is not only a tool to urge the reader's actions but an window to open the text to the world. Woolf needs to be re-read as a figure who demonstrated a unique combination of ethic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modern world system and ideological trends. Through such work, modernism can be identified as answering the moral and political demands of society through a universal model in the broad sense. Modernism, then, is not limited to the age-old cultural history, but is open to new and local spaces. Modernism is like a floating space, and understanding its function in the present global context enables us to do continuous tasks.

Key Words

Modernism, Global Modernism, Cosmopolitanism, Feminism, Situated, Virginia Woolf, *Three Guineas*, *A Room of One's Own*

『테스』- 출현하는 주체, 전복시키는 주체.

손 아 영

1. 서론

토마스 하디(Thomas Hardy)의 『더버빌가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이하 『테스』)가 당시 기독교적 도덕주의에 비난받아 원문 일부를 수정해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혼모에 살인자인 여자를 ‘순수한 여성’(pure woman)으로 이름 지은 것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은 거세었다. 이후에도, 『테스』를 전형적인 여성성의 기준으로 비평하는 목소리는 지속되어왔다. 엘렌 무어(Ellen Moers)는 테스가 남성이 환상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으며(100) 존 베일리(John Bayley) 또한 남성의 환상이 테스의 창조에 큰 기여를 했다고 비평했다(188). 이 두 가지 논조의 비평은 전혀 다른 주장인 듯하지만, 묘하게도 테스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보여준다. 전자의 관점에서 테스는 ‘존재가 금지된’ 여성이며, 후자의 관점에서 테스는 ‘존재가 허상인’ 여성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관점 모두 테스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부합하지 않는 것, 기준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테스라는 인물에 대해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하는 비평도 있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하디의 인물들을 “주체성을 투명하게 표현하는 열린 책”이자 동시에 “읽을 수 없는 텍스트”(14)로 표현했으며, 힐리스 밀러(J.Hillis Miller)는 하디의 세계는 어떠한 위계도 없으며 일어나는 사건에도 아무런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평한 바 있다(13). 이 관점에서 보자면 테스는 다른 해석을 불러온다. 테스는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모두 내포하는 존재이며, 그녀의 세계는 위계와 가치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테스는 부정당하고 삭제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유와 무의 변증법적 논리를 벗어나는 어떤 초월적인 성질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가 『테스』를 “가장 동시대적 작품”(Country 384)으로 꼽은 것은 작품에 대한 또 다른 비평을 열어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윌리엄즈는 초기의 문화연구자로 문학에 기본을 둔 연구를 지속해왔다. 그는 특히 『테스』에는 “주체를 끝까지 지탱하는 힘”(Country 250)이 있다고 언급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다. 윌리엄즈의 평가를 통해 테스는 삭제되어야 할 비루한 존재에서 탈출해 삶을 건디며 지탱하는 강인한 존재로, 당대에서 배척되었던 반도덕적인 존재에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이해받는 선구적인 존재로 그 위상을 달리한다.

본 논문은 윌리엄즈의 논조에 동의하는 방향에서 『테스』에 나타나는 현대적인 주체성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이 발견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전되는, 가치체계 내에서 이동된 의미화의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견고한 관념과 개념의 조직망을 탈출해서 또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관찰하는 가운데서만 이해 가능하다. 테스에게는, 견고한 도덕의 체제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영역을 대면하는 주체가 출현하는 순간이 목격된다. 윌리엄즈의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는 인지의 가장자리에 잠재하는 출현 가능한 것들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테스에 내재하는, 순간적으로 출현하고 사라지는 주체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또한 이를 전개하기 위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고백에 대한 담론을 같이 살펴본다. 푸코는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를 통해 빅토리아 시대의 성에 대한 완전한 배척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추방된 성과 성의 고백이 담론화되는 과정을 구술한다. 푸코에게 권력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화 되는 것이며, 그 안에서 형성되는 담론은 권력관계에 종속되면서도 그것을 제한하는 양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대 도덕론에 기준하여 죄인으로 추락한 테스의 고백이 담론화되는 과정에서 가지는 힘을 재조명하게 해준다.

II. 레이먼드 윌리엄즈와 감정의 구조

『테스』의 논의에 앞서 윌리엄즈의 문화연구의 기조와 그가 수립하고자 했던 감정의 구조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정의 구조는 테스에 내재된, 순간적으로 출현하고 사라지는 이질적인 주체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좋은 토대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윌리엄즈는 초기의 문화연구자지만, 그의 일부 이론들은 현대의 문화연구 영역에서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실천적인 방향으로 현대 문화연구를 이끌어온 스튜어트 홀(Stuart Hall)과 윌리엄즈 사이에는 경험주의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홀은 윌리엄즈를 포함한 선대의 문화연구자들이 문학을 중심으로 경험(experience)에 치중한 연구에 집중하는 것을 비판했다. 홀은 구조주의 등 다른 영역에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며 경험을 중시하고 문학에 기본을 둔 기존의 경향에서 문화연구를 분리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이후 윌리엄즈의 연구들을 통해 문화연구의 영역을 다시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문화 연구를 탈-문학화 하고자 한 그의 시도를 따라가 보는 것은 윌리엄즈의 문학에 기본을 둔 문화연구가 가지는 동시대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의의를 제공할 수 있다.

홀은 문화주의를 발전시킨 이론 중 가장 주요한 것으로 구조주의를 꼽았다(54). 구조주의에서 의미화는 하나의 기표와 하나의 기의가 구조 안에서 만나면서 이루어진다. “의미와 지성은 세계 안으로 접합(articulated)” 되지만 “관계는 절대로 고정되지 않는다”(66). 따라서 의미는 접합되어 발화되기 이전에 이미 구조의 틈새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구조 안에서는 지성이 의미에게 발화권을 준다기보다 의미들이 지성과의 접합을 통해 발화권을 얻는 것이다. 구조에는 위계도 의도도 없다. 의미들은 틈새를 부유할 수도 구조 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으며, 접합되어 발화된 의미들은 기존의 의미들과 동등한 무게를 가진다. 이것은 평등한 발화권이 보장된 의미화를 양산해 내는 위계 없는 시스템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절대 완료되어 고정되지 않는다. 구조주의적 의미화 자체가 미처 접합되지 못한 함의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함의들이 구조 안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 운동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함의는 영원히 소모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구조주의는 다양성과 유동성, 위계 없는 평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문학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접합점의 ‘내밀함’이다. 구조주의가 위계 없는 작동으로 발화하는 주체를 양산해 내는 것은 다양성을 보장해 줄 뿐, 모든 접합점의 재질을 밀도 있게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나 진정한 다양성은 그 상이함이 전제될 때 확보된다. 따라서 상이함을 드러내기 위한 낱개의 항목들에 대한 질적인 고찰, 그 각각의 고유함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홀 또한 구조주의가 그 구조를 통해, 그리고 그 구조를 향해서 변화해가는 인간의 의식과 행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알아챈다. 그가 다시 경험과 문학에 바탕을 둔 윌리엄즈의 연구

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김용규 514).

사실 문화와 문학의 영역에서 의미의 내밀함을 확보하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속도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게오르크 루카치(Georg Lukacs)는 문학 작품의 총체성은 자연과 문화의 두 가지 층을 체험이 통과하며 구성된다고 했다(176). 이질의 층은 두 가지이며 경험은 인식의 총체를 형성하는 통로가 된다. 문학에 대해 루카치가 제시한 단층은 두 가지이지만, 문화의 영역에서 그러한 단층은 다수로 존재한다. 현대의 문화연구는 경계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키며 배제되었던 문화들, 이질적인 시간성을 회복하는데 까지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연구는 문화 각각에 대한 수많은 질적 상이함을 살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인 단절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문화연구의 입장에서 문학으로 구현되는 총체는 단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기적으로 매 순간 그 스스로를 새롭게 형성해 가는 문화는 그 스스로 그 찰나의 내밀함을 재현해 내기 위해서 생동하는 언어의 힘, 나아가 문학이 가진 텍스트적인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홀이 윌리엄즈의 작업을 다시 보고자 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윌즈엄즈의 작업들은 문학작품에 기반을 두면서도 인간 내부의 존재하는 재현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밀도 있게 살펴보기 때문이다. 그의 의미화의 접합점들은 무수하면서도 내밀하다. 그리고 문학은 분명 그 내밀함을 제공하는 풍족한 토양이다. 『시골과 도시』(*The Country and the City*)를 통해 그는 영문학사의 광범위한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이 검토는 경제, 사회, 관습 등 가시적인 영역에서 문학 작품들이 어떻게 외부를 받아들이고 또한 외부에 영향을 주는가를 포함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검토의 전부는 아니다. 윌리엄즈가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꼼꼼히 살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의 지점이다. 하디는 그가 주목하는 이러한 경계의 지점에 있는 대표적인 작가이며 그의 작품 또한 유사한 성격을 띤다.

윌리엄즈는 하디와 그의 작품들이 공공연하게 폄하되고 있었음을 주목한다. 그는 서머셋 모리 만찬에서 만난 하디에 대해 격식을 차려 갖춰 입고도 “묘하게도 흙의 모양을 가진다(strange look of soil)”(*Country* 287)라고 은근히 폄하한 구절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는 이 ‘묘한 흙의 모양’의 형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하디에 대해 탐색 가능한 모든 영역을 살살이 살핀다. 그는 하디의 작품, 인물, 낱개의 묘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지위, 가족의 구성과 이력, 작가적 입장, 친분과 그 관계의 성향, 심지어 그가 살던 집의 구조와 창문의

크기까지 표면으로 올려낸다. '묘한 모양'은 방대한 양의 자료와 지성의 추론, 수많은 인证과 반론을 통해 좀 더 알아보기 쉬운 어떤 형태로 바뀌어 나간다. 탐색 끝에 하디는 경계에 서있는 불안하면서도 확고한 인격체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연회복과 흙냄새의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한 그는 “유산계급도 차지인도 상인도 노동자도 아니다”(Country 289). 윌리엄즈는 하디가 어떠한 계층에도 확실히 속하지 못하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하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중심인물들을 진심으로 긍정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언제나 그들과 함께 머물며, 실제로 작가로서 발전 할수록 그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따라서 그의 모든 인물들 중에 그가 강력하게 긍정하는 인물은 테스와 주드-그는 그들이 패배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면서 애도하며, 시종일관 그들을 긍정한다-라는 것이다 (Country 308).

윌리엄즈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인물이 가지는 힘을 포착했다. 하디는 스스로 어떠한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불안한 주체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깊은 긍정과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의 주체가 가진 힘, 그리고 그러한 주체가 생산해 낸 창작물에 대해 윌리엄즈가 내린 평가이다. 윌리엄즈의 지성은 박탈된 하디의 또 다른 의미를 드러내었다. 그것은 당대에 하디가 비판받았던, 반도덕적인 작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윌리엄즈의 하디에 대한 분석은 그가 가진 지성의 사유와 그 재현의 경향에 대해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구조의 관점으로 볼 때 그의 지성은 분명 드러나지 못한 함의에 이끌리고 있다. 나아가 부유하는 함의들보다는 오히려 완료된 의미화의 박탈된 배면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다. 배면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시도는 의미의 다양성을 확보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구조 자체를 전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구조 안에서 완료된 의미화는 그 점착점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권위는 일시적이기는 하나 분명 주어진다. 구조는 완료된 의미의 권위를 확립하고 배면의 의미 자체를 배제하면서 형성된다. 그러나 완료된 의미화의 당위성이 의문에 처해지고 배면의 의미가 그 힘을 발휘 할 때 구조의 확립은 의심 받는다.

배제된 의미,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의미들을

후원하는 윌리엄즈의 지성의 경향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현실 속의 어떤 생산양식도, 나아가 어떤 사회질서도, 따라서 어떤 지배 문화도 인간의 모든 실천과 인간의 모든 에너지와 인간의 모든 의도를 송두리째 다 포괄하거나 탕진 할 수는 없다(*Marxism* 125).

윌리엄즈는 이론과 장치가 인간의 모든 내면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그를 경험주의의 틀 안으로 한계지은 확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이론과 장치에 대한 회의론적 입장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윌리엄즈의 하디에 대한 분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의지는 ‘탕진 할 수 없다’ 보다는 ‘탕진 되지 않는 채 남아 있는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탕진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그것이 가진 잠재력을 긍정하고 확신하기 위해 그의 지성을 헌신한다.

홀은 윌리엄즈가 예술에 특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경험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음을 비판 한 바 있다(28). 실제로 윌리엄즈는 마르크스주의에 일부 이해하고 동의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주로 문학을 판단하기보다 그것을 형성시키고, 문학을 대다수의 민중의 삶과 연결하는 방향에서 더 관심이 있었다(*Marxism* 2). 그가 바라보는 민중의 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괄 할 수 없고 탕진 될 수도 없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하디에 대한 애정 어린 평가를 내리는 것이나, 하디가 가진 작품을 지탱하는 힘을 재조명 하는 것과 상통한다. 문학과 민중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의 일부를 일부 인용하고자 한다.

“사소하고 영속하는(slighted and enduring)”사람들.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한정된 의미만을 지닌 ‘그림 같은’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의 투쟁-사랑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을 하기 위한,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투쟁-속에서 멸시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마다의 소외와 패배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게 해주는 충동을 함께 느끼며 건디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은 한 지방의 연속성일 뿐 아니라 역사와 민중의 연속성이기도 하다(*Country* 308).

사소하고 영속한다는 접합은 이원 대립을 동시에 발화시킨다. 존재조차 화두가 될 수 없는 미미한 것들과 시간을 거스르며 영구히 지속되는 장엄한 것들이 하나의 것으로 공존한다. 그것은 그려내거나 재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라나고 팽창하고, 충동들을 통해 그 한계에서 느껴지는 것들에 내맡겨지고, 그 ‘느껴짐’을 받아들이며 영속한다. 민중과 문학에 대한 윌리엄즈의 이러한 고찰을 문학과 예술을 특권화하는 목소리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문학과 예술의 기저에는 재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즈는 오히려 그 동의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중의 주체성을 무겁게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그것은 스스로의 한계가 파열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감내하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무한한 ‘느껴짐’에 내던져진 채 삶을 영속하기 위해 고단한 탐색과 확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내부에서 변영하는 주체가 아닌 경계에 처해진 주체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윌리엄즈가 고수한 문학에 기본을 둔 문화연구를 구시대적으로 치부하거나 안일하고 비실천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기는 어렵다. 윌리엄즈는 ‘형성되고 있는 중’인 상태에 관심을 보이고, 문학작품이나 경험을 또한 완결된 산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것이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Marxism 128-129). 그는 이러한 관심에 대한 결과를 감정의 구조라는 용어로 이론화하기를 시도 했으나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윌리엄즈 자신은 이것을 방법론적인 하나의 문화적 가설로 바라보고 문학과 예술을 다루는데 유용할 것이라 보았다(Marxism 132-133).

먼저 감정의 구조에 대한 윌리엄즈의 언급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르는 인용문은 그가 감정의 구조라 부르는 상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충동, 억제, 경향(tone) 등이 지닌 특징적인 요소, 특히 의식과 여러 관계가 가지는 특수한 정서적 요소인데, 이것은 생각과 대비되는 감정이 아니라 느껴진 것으로의 생각(thought as felt), 생각으로서의 느낌(feeling as thought)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살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서로 작용하는 연속적인 흐름 속에 놓여 있는, 현재적인 종류에 대한 실천적 의식(practical consciousness of a present kind)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소들을 하나의 구조로, 즉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긴장관계에 있는가 하면 동시에 또한 특수한 내적 관계를 맺는 하나의 세트로 규정하고 있다(Marxism 132).

여기서 윌리엄즈는 대립이항을 연결하면서도 분리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분리를 하나의 유기적인 운동으로 융합시키고자 시도한다. 그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

고자 하는 감정은 명백하게 구분 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놓일 때 발생한다. 그것은 ‘느껴진 생각’이자 ‘생각된 느낌’이기 때문이다. 이성과 감정의 경계가 무화되고 두 가지의 상이한 요소가 동시에 녹아 있는 상태이자 그 지점이다. 충동, 억제, 경향 등이 이러한 지점이 외부로 표출 되는 순간이 된다. 충동적인 것, 억제하거나 억제 되는 것, 취향과 경향 등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즉 현재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이 사유와 시간과 결합하여 이행되면 더 이상 충동, 억제, 경향이 아닌 하나의 행동 또는 결정으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융합된 정서적 상태를 연속적인 흐름에 있는 현재적인 것으로, 그리고 현재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의식의 상태로 바라본다. 결정과 행동 이전의 모호하게 융합된 지성과 감정의 상태, 그것이 지속적인 긴장관계 안에서 이후에 발생할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의 사건의 역사 이전에 존재하는 이성도 감정도 아닌 모호한 의식의 융합물에 대한 고찰이다.

앞선 인용문이 감정의 구조가 가지는 상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면, 다음의 인용문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것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융해된 형태(solution)로서 감정의 구조가 관계를 맺는 우선적인 대상은 부상하는 형성물이다. 그러나 이 특수한 융해는 단순한 변동이나 유동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짜인 하나의 형성물이며, 이는 의미론적 가용성의 가장자리에 바짝 접근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접합들이 물질적인 실행 속에서 발견되기까지는 앞선 형성물이 지닌 대부분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접합이 발견되는 것은 비교적 고립된 방식을 통해서 인데, 이 방식이 하나의 중요한 세대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흔히 후대에 가서야 이해된다. [. . .] 따라서 감정의 구조는 특수한 연결, 특수한 강조나 억압의 특수한 구조이고 [. . .] 심오한 출발점과 결론의 특수한 구조다. [. . .] 사회적 설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체험된 두려움과 수치심의 강렬함이 이제는 분산되고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Marxism 134).

융해된 형태로서의 감정의 구조는 특수한 접합이 발생하여 그것이 실행으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감정의 구조라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견과 존재는 별개이다. 발견 되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일종의 융합과 조직의 상태,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인 실행에 우선하여 존재한다. 또한 실행에 영향을 미

친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전체의 과정이 다음 세대에 가서야 이해된다고 말한다. 충동, 억제, 경향 등 현재적인 상태로만 표출되는 인지 불가능한 모호한 의식의 융합이 일종의 선험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배제 대상이 선험의 요소를 지닌다는 것은 가치 체제의 전복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소하고 개인적인,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의 현재적인 것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시성을 지닌다면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가시성이 없을 때조차 그것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윌리엄즈가 말한 대로 이것들은 ‘의미론적 가용성의 가장자리에 바짝’붙어 존재하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 의미화의 영역으로 밀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경계에서 잠시 내비쳐지는 일시적인 가시성일 뿐이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밝혀진다.

앞서 살펴본바 있는 하디에 대한 윌리엄즈의 고찰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그의 지성과 사유, 재현의 경향이자 의지이다. 그가 문학과 문학 작품에 대한 전방향의 고단한 탐색을 지속하는 이유는 문학과 민중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형성해 가고 있고 작품은 하나의 완결된 총체성이 아니라 여전히 구축되고 있는 세계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떠한 장치나 지배도 인간의 내면을 모두 소진 시킬 수 없듯이, 어떠한 이론도 작품이 가진 모든 내면을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은 지금은 비록 사소하고 지나칠 만한 것이지만 선험의 잠재력을 가진 것들이다. 이것이 후대에 가서야 이해 될 때는 이미 수많은 경험과 결정, 실천, 실행을 지나친 다음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작품은 새로운 또 한 겹의 의미를 덧입을 뿐 아니라 민중 또한 그것의 영향력으로 변화 되어 있을 것이다. 윌리엄즈의 이론은 그것이 침묵하게 정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시기의 문학이라도 현대적으로 재조명 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작품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미 하다.

Ⅲ. 출현하는 주체, 테스

그렇다면 그의 연구를 이어오는 방향으로 문학을 재조명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디의 『테스』를 살펴보자면, 그 이야기상의 전개 대부분이 작품의 주요 인물인 테스가 자신의 처녀성의 상실에 대해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의 실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스는 관습의 위반과 처벌, 그에

따른 죄책감 등 시대적인 토대 안에 충분히 녹아들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사랑과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평범하면서도 가장 대중적인 인물이라 보여진다. 테스가 당대의 모든 아내들에게 엄격한 관습으로 적용되던 ‘처녀성 보존’을 위반한 것은 스스로의 정확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던 그녀는 그 위반에 대한 처벌과 멸시를 받아들이며 또한 이에 합당한 죄책감을 가진다. 처녀성을 상실한 것은 ‘아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한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진정한 고난은 그녀와 부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녀 또한 박탈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욕망하게 만든 에인절의 등장 이후에 있다 하겠다. 시련은 그녀가 처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특정한 지위를 합법적으로 얻고자하는 욕망과, 동시에 그것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요소를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투쟁은 내재적인 것이다. 외부에서는 그녀의 내재적 투쟁이 그저 사소한 감정의 기복으로 비춰질 뿐이다.

테스는 그 투쟁을 지나칠 정도로 관습에 충실한 방법으로 겪어낸다. 그녀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에인절의 자비에 목숨까지 바칠 의향이 있다. 테스는 누구보다도 달게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 지점이 그녀가 관습에서 순응하는 이 과정에서 불현듯 발견된다. 이 지점은 테스가 에인절에게 그녀의 과거를 모두 고백한 이후에 있다. 위반에 대한 인정과 처벌에 대한 순응의 의지, 그리고 죄책감에 잠식된 주체가 보여주는 행동 치고 테스의 행동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에인절을 향한 그녀의 정서적 표출은 처벌에 대한 순응이 아닌 갑작스러운 분노에 가깝기 때문이다.

“제가 무엇을 했길래, 제가 무엇을 했길래요? 제가 말한 어떤 것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충되거나 그 마음을 거짓으로 입증하지 않아요. 제가 계획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에인절, 당신이 화를 내는 대상은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 안에 있지 않아요. 전 당신이 생각하는, 속일 작정이나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231)

이 지점의 이전 그리고 이후의 테스의 태도는 일관적이다. 고백에 대한 망설임이 오고 가기는 하지만 그녀의 에인절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태도는 “그

녀의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일편단심이며 순종적인지, 또 얼마나 오랜 고통과 정직과 인내와 성실을 보장하는지”(213)를 증명할 뿐이다. 고백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그녀의 기존의 태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인절이 몽유병 상태로 그녀를 안고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에인절이 자신을 “절대적 소유물로 여겨준다는 사실이 고마울 따름”이며 “그 과정에서 그가 그녀를 해칠 권리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248).

바로 이 지점, 유죄를 인정하고, 그 처벌에 대해 깊숙이 순응하고 동의하는 주체가 드러내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사라져 버리는 이 분노의 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점은 ‘아내가 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한 관습과 규율에 의해 억제 되고 배제되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출현하는 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응의 한가운데에서 출현하는 예기치 못한 반항과 저항이다. 테스의 분노의 정서는 억제된 것들이 분출하는 지점, 억제 되고 배제되었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이 가시성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장면이다. 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하지만 자기 보존적인 것들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작품의 곳곳에서 발견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소하고, 개인적이고, 연약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나열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테스가 알렉 더버빌에게 순결을 잃어버리던 날 밤 “흠잡을 데 없이 풍만하고 건장한 시골 처녀의 몸매”를 가진 카와 “카와 마찬가지로 더버빌과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산 다이아몬드의 여왕”이 테스의 웃음이 그들을 향한 비웃음이라 생각하고 다툼을 벌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알렉의 말에 올라타는 테스의 뒷모습을 향해 울려퍼지는 그녀들의 박장대소가 있다. 그 웃음은 검은 얼굴의 카, “술고래 새댁”, “카의 어머니” 모두가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웃음이다. 그들은 그 상황을 “프라이팬에서 불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하며 유희한다(66-68).

그들의 박장대소는 테스에 대한 조롱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암묵적인 자유로움이 도처에 존재함을 알고 있는 공모자들의 웃음이다. 하디는 곧이어 이 장면을 “장면의 정령과 달빛의 정령 그리고 자연의 정령이 술의 정령과 조화를 이뤄 하나가 된 것 같았다” (69)고 묘사하며 그들의 웃음을 긍정적으로 후원한다. 테스에게 주어진 어머니의 편지와 꾸중에도 이 증거들은 찾아볼 수 있다. 에인절과 결혼을 앞둔 테스에게 어머니는 진심으로 충고한다. 그녀는 과거의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하고 당부하며 “나도 니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이 나라에서

제일 지체높은 여자들도 한때 그렇고 그런일이 있었다”며 테스를 설득한다(191). 이것은 에인절의 어머니에 의해 재확인 되는데, 테스의 고백 이후 심란한 상태의 에인절을 보고 걱정에 찬 어머니가 “그 아이가 내력(history)을 알아봐야 할 어떤 일을 겪은 아이는 아니지?”(264)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언급은 당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숨겨진 ‘내력’들을 새삼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와 계급을 가로지르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테스와 동시대를 겪어내는 여자들, 그들의 어머니, 조금 앞선 세대의 기혼자들이 시대를 뛰어넘어 공유하는 비밀이며, 하급 계층의 테스의 어머니에서 독실한 기독교 상류 계층인 에인절의 어머니까지 전 계층의 여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함구를 명령받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진실에 가깝다.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끊임없이 거부되고 배제되고 함구하기를 요청받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작가의 태도가 모두 테스가 분출시킬 분노를 예견하고 지지하고 있다. 테스의 분노는 개인적이거나 변덕적인, 유약한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세대와 계층을 가로질러 존재하면서도 배제되었던 실행과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끼쳤던 영향력을 대변하는 것, 억제되었던 진실이 순간적으로 출현하는 심오한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사건과 정서를 충동적으로 겪어내는 테스는 더 이상 관습에 억눌린 순응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녀는 배제되고 억제되면서도 존재하는, 아직은 무의미의 영역에 있지만 그 타당한 의미가 다음 세대에 가서야 이해될 선형의 힘을 가진 어떤 것을 겪어내고 있는 주체이다. 바로 이러한 주체가 충동적인 분노의 정서에 놓인 테스를 통해 출현하는 순간이다.

윌리엄즈는 또한 감정의 구조가 “오로지 예술 작품 자체를 전체로서 체험할 때 인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Politics* 159). 동시대를 작품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작품을 재현이 하닌 총체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때 생기는 인식임을 말하는 것이다. 재현으로 이해 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화된 인식이다. 작품 내에 내재되어 있는 사소한 이질들과 틈새들이 체화되고, 경험의 총체성이 균열과 재구성을 통해 변형되어 간다. 그 균열과 재구성의 과정이 민중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테스의 분노의 표출은 사소한 이질의 지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무의미한 감정의 기복으로 받아들여 질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테스가 가진 대응 방식 중 바로 그 분노의 표출이 가장 타당한 반응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시대를 벗어나 다음 세대를 향해 있는 어떠한 성질이 당대의 이념에 잠식된 주체에게서 출현하고 사라진다. 이 심오하고

유의미한 사건을 목격하는 것은 오직 그 이질의 순간, 틈새의 어떤 곳을 지켜보는 과정에서만 일어난다.

IV. 전복시키는 주체, 테스

빅토리아 시대의 전면적인 성에 대한 억압이 오히려 테스의 이질적이고 선행적인 주체가 출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푸코는 빅토리아 시대에서부터 지속된 성의 억압에 대한 목적을 노동력의 차원에서 결합시킨다. 그에 따르면 “성을 그토록 엄격하게 억압하는 이유는 성이 전반적이고 집약적인 노동력의 동원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History* 6). 그렇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테스의 분노에 가까운 정서적 표출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명분을 얻는다. 테스의 개인사는 사실상 테스와 에인절 사이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정치와 그것이 추구하는 이윤이 집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테스는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부분에 대한 자기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유죄 판결은 인간 본연의 윤리나 최소한의 도덕성에 기본 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 권력의 이윤을 위한 것이었다. 에인절은 테스의 가장 친밀한 동지이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향한 명분 없는 공격에 가담한 배신자에 가깝다. 물론 그녀의 분노는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감응이다. 그 힘은 비록 미약하고 일시적이기는 하나 이것은 분명 테스의 주체성을 다른 위상으로 올린다.

나아가, 푸코가 성의 억압과 그것을 둘러싼 권력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고백’은 진실과 권력이 맞부딪히는 중요한 지점이며, 권력을 내재화 시키는 효율적인 장치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고백을 더 이상 속박적 권력의 효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러붙는데, 우리에게는 반대로 진실이 우리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서 드러나기만을 “요구하는”듯이 보이고, 진실이 드러나기에 이르지 않는 것은 진실이 속박되어 있고 난폭한 권력이 진실을 짓누르며 일종의 해방에 의해서만 마침내 진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History* 60).

테스의 고백 과정은 푸코가 언급한, 권력이 설치한 장치로서의 고백의 속성

을 촘촘하게 보여주는 충실한 예시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하디의 『테스』라는 작품 자체가 이 고백의 과정만을 묘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인절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죄책감은 그녀의 정신과 신체를 송두리째 점령한다. 그녀가 일상적인 행복감을 느끼려 할 때마다 죄책감은 그녀에게 들러붙고 고백 자체가 그녀를 채근한다. “투쟁은 공포스러울 정도였고(175), “소금기 어린 뜨거운 눈물이 새삼 흘러내렸으며”(199-200) 테스의 곁에는 “끈질기게 따라붙는 슬픔의 그림자”(215)가 있었다. 진실이 그녀 안의 속박에서 스스로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과정이다. 진실은 전 방향으로 그녀를 독촉한다. 진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부를 가진다는 것은 나쁜 짓이다. 그녀는 마지막 한 톨까지 대가를 치를 것”(223)이라고 그녀를 닦달한다. 진실을 고백하라는 의무는 너무나 깊숙한 곳에 내재화 되어 있다. 고백을 실행 시키려는 강제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작동한다는 것은 그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푸코는 “고백은 말하는 주체가 언표의 주어와 일치하는 담론의 관례이다. 또한 권력관계 안에서 전개되는 관례이기도 하다”고 언급한다(*History* 61). 고백은 하나의 담론이며 또한 권력관계 안에서 전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강제는 말하는 주체에 깊숙이 내재화되어 있다. 고백은 권력 관계가 피 지배자의 주체 안으로 침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에인절과 테스의 관계에서 또한 이를 증명 할 수 있다. 에인절의 테스에 대한 욕망은 그녀를 자신의 합법적인 아내로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합법화 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른 모든 욕망에 앞선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그녀를 제도권 안으로 밀어 넣어 클레어 부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테스를 제도 안에서 가시화 시키려는 에인절의 욕망과 그 제도권 안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을 테스의 도피의 과정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다. 연인 관계에서 약혼 관계로, 그리고 결혼을 목표로 하는 에인절의 구애는 전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강요와 회유의 반복으로 어찌 보면 전략, 또는 지속적인 공격에 가깝다.

이번에는 그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 . .] 이런식으로 클레어는 졸졸 흐르는 우유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집요하게 구애했다. 젖소 옆에서, 크림을 걷으면서, 버터와 치즈를 만들면서, 알을 품은 닭들이나 새끼를 낳는 돼지 사이에서, 소젖 짜는 일꾼으로 누구도 그런 남자의 구애를 받아본적이 없으리라 [. . .] 테스는 자신의 저항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181).

“권력지배의 효과는 소유에 의해서 아니라 배열, 조작, 전술, 기술, 작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Dicipline 57). 에인절의 ‘구애’의 과정은 권력이 퍼 지배자인 주체에 침투하여 전략적 기술들을 통해 서서히 그 주체를 잠식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전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노동과 함께 언제나 공존하기에 권력 관계는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 된다. ‘아내’가 되지 않으려는 테스의 의지는 번번이 묵살되고 그녀를 ‘아내’로 만들려는 에인절의 욕망이 둘의 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권력이 에인절에게 소유 되어 있었고 그것이 테스에게 행사되는 모양이 아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밀한 관계가 에인절의 주도적이고 끈질긴 전략을 통해 한쪽의 의지가 무화 되고 다른 한쪽의 의지가 관철되는 관계로 변질된다. 권력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화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고 행사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성립된 권력 관계 안에서 테스의 고백은 일종의 담론이다. 푸코에 따르면 고백의 담론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귀속시키지만, 지배의 심급은 듣는 사람 쪽에 있다(History 62). 고백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담론이며 듣는 사람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증거이다. 테스는 에인절의 요구가 관철되어 그녀를 합법적인 아내로 만드는 순간 고백한다. 고백의 담론은 권력의 힘이 완전히 행사되는 순간 발설된다. 테스는 에인절의 욕망에 순응하는 동시에 고백하여 그의 욕망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권력 관계는 성립됨과 동시에 와해되고 권력은 행사됨과 동시에 무효화된다. 그녀의 고백은 담론으로,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담론의 생산자로 권력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빠져나가고, 심지어 그것을 전복시키는 힘을 가진다.

담론은 침묵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권력에 굴복하지도 권력에 대항하여 일어 서지도 않는다. 담론이 권력의 도구이자 동시에 결과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장애물, 제동장치, 저항지점, 대립적 전략을 위한 거점일 수 있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작용을 인정해야 한다. 담론은 권력을 전하고 생산하고 강화하고 서서히 잠식시키고 노출시키고 약화시키고 가로막게 해준다. (History 101)

담론은 권력관계의 결과이자 동시에 그것을 제동하는 힘이다. 테스는 고백하여 권력 관계를 완성 시키고 즉시 그 관계를 전복 시킨다. 그들의 관계를 제도화시키고자 한 에인절의 전략은 성공하였지만 테스의 고백은 그 성공을 다시

무효화시킨다. 권력 관계를 성립시키고 그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망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공존하는 지점이며, 따라서 권력 관계의 전복이 가능해지는 지점이다. 고백은 권력 관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결과물이지만 권력 관계는 고백이 가진 담론적 힘을 통제 할 수 없다. 에인절은 고백하는 테스에 의해 권력자의 권위를 박탈당한다. 그의 욕망은 실현 될 수 없으며 관계는 전복된다. 시간이 지나 다시 테스를 만나고자 하는 에인절은 자신의 모습에 그녀가 혐오감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하게 된다(378).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주도했던 인물에서 상대방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인물로 전락한 것이다.

전략이 실행됨과 동시에 담론은 형성되기 시작한다. 고백의 필요성은 법의 영역 밖에서 연인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테스의 요청이 처음 거부된 순간에 발생한다. 담론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권력 관계가 강화 될수록 고백의 담론은 주체에게 갈등을 내재화 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 시키면서 형성된다. 그리고 갈등은 주체의 내면을 변화 시키면서 강화된다. 갈등은 공존할 수 없는 이항을 동시에 발화시킨다. 갈등은 주체에게 범법의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동시에 권력 관계에 복종하도록 명령한다. 갈등이 지속되는 한 주체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때의 사유는 지성의 의미화를 완결시키는 사유와는 다른 성질을 띤다.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이항대립이 공존을 지속하는 사유, 완료될 수 없는 의미화를 완료하고자 하는 고단한 탐색의 사유이다. 따라서 이것은 주체를 강제하는 사유, '사유하고 있음'상태에 주체를 몰아넣는 사유이다. 이렇게 의지가 박탈된 주체에게 익숙한 경험과 반대로 그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찰나들이 필연적으로 제공된다. 이항 대립의 공존, 그 이질의 틈새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테스는 범법과 합법, 죽음과 삶, 유죄와 무죄, 속박과 자유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고 가며 고백의 담론을 형성한다. 의지가 박탈된 수동적인 사유자의 모습이 테스가 고백을 결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현된다. 이 과정을 겪어낸, 고백하는 테스는 담론의 생산자이며 따라서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전복의 힘을 가지게 된다.

V. 결 론

본 논문은 몇 가지 논증을 통해 문학 작품 『테스』에 내재된 역동적인 주체성을 드러내고자 시도하였다. 첫째, 구조주의가 의미화의 위계 없는 양산을 보장

한다 하더라도 날개 의미들의 내밀함과 독특함은 보장 받아야 한다. 윌리엄즈는 무수한 의미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각각의 의미화에 무게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지성으로 고려될 수 있다. 둘째, 문학은 이러한 의미화를 위한 풍족한 토양이다. 문학은 이미 완료된 총체성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형성중인 것, 따라서 동시대적인 것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테스』 또한 여전히 의미화의 과정안에 있는 문학작품으로, 테스에게서 당대의 관습의 경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일종의 선형적 힘을 가진 주체가 출현함을 지켜보았고, 또한 권력 관계를 전복시키는 주체의 힘을 발견하였다. 윌리엄즈가 하디가 일상 세계를 작품의 토대로 고수한다는 것은 상당이 중요하다(*Country* 308)고 피력하면서도 『테스』를 가장 동시대적 작품으로 꼽은 것(*Country* 384)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디의 인물은 당대를 가장 충실히 겪어내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는 단서들 제공하며 지금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 때문이다. 문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비난했던 홀이(28) 윌리엄즈의 작업들로 문화의 영역을 재조명하기를 제안(190)하는 것은 문학이 포함하는 경계의 지점과 그것을 파고드는 지성의 힘을 그가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문학은 열려있고 언제나 형성중이며, 따라서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상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고찰은 많은 비평/사상가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따르면 “책을 해체하는 것이 텍스트의 표면을 벗기는 것이다”(18). 그에게 있어 책은 유한한 총체성이고 텍스트는 기호 사이의 공간과 의미 사이의 지연에 의해 미끄러지며 언제나 의미화의 과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의 완결된, 고정된 의미화를 해체하면 끝나지 않는 의미화의 과정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장 뤽 낭시(Jean Luc Nancy)는 “그 스스로를 재현이나 표현으로 간주하는 예술은 사실상 한계 지어진-끝나버린, 죽어버린-예술이다”(28) 고 했다. 예술이 스스로가 구축하고 있는 재현과 표현, 그 총체성을 경계를 넘어설 때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인 어떤 것, 동시대에 살아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음을 반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성에 따르면 “문학과 예술은 문학적 스토리나 예술 대상물의 유한성을 넘어서 흐르는 비어있음(emptyness)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 한다”(174). 문학은 그 스스로가 의도했던 재현을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비어 있음을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어있음을 경험 한다는 것은 ‘비었다’가 아닌 ‘비어있는 듯한, 존재하는 어떤 것’을 향해 있는 고찰이다. 이것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채 존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인지이다. 그리고

문학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근원적인 인지를 제공한다는 확언이다.

예술의 한 장르로서의 문학은 그 재현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인간 전체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없다는 비난은 일부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현의 예술로서 문학은 그 배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작품이든 그것은 선별되지 못해 재현되지 못한 존재들이 남아 있다는 증명이라는 것이다. 문학은 따라서 선별되어 재현의 장으로 떠오른 의미들과 그렇지 못한 채 부유하는 의미들의 경계를 포함한다. 그 경계를 탐색 하는 작업에 의해 문학은 동시대적 의미를 겹겹이 입게 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존하며, 영향을 주고받으며, 언제나 형성중인 과정으로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

Work Cited

김용규, 『혼종문화론』. 서울:소명출판, 2014.

Bayley, John. *An Essay on Har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Blake, Kathleen. "Pure Tess: Hardy on Knowing a Woman".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Fall 22.4 (1982): 698-705.

Derrida, Jacques.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_____.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University of Johns Hopkins Press, 1997.

Eagleton, Terry. *Thomas Hardy and Contemporary Literature Studies*, Eds. Tim Done and Peter Widdowson. New York: Palgrave, 2004.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1: the Will to Power*. Trans. Robert Hurley. London: Penguin, 1998.

_____. *Disciplin and Punish*.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Penguin Vintage Books, 1995.

Hardy, Thomas. *Tess of the D'urbervilles*. London: Penguin, 2003.

Hall, Stuart. *Cultural Studies 1983*. Eds. Jennifer Daryl Slack and Lawrence Grossberg.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2016.

Lee, Jae-Seong. *Post-Modern Ethics, Emptiness, and Literature: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 London: Lexington Books, 2015.

Lukacs, Georg. *The Theory of the Novel*. Trans. Anna Bostock. Whitstable: Whitstable Litho Printers Ltd, 1988.

Miller, J. Hillis. *Thomas Hardy: Distance and Des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Moers, Ellen. *Twentieth-Century Interpretation of Tess of the D'Urbervilles*. Eds. Albert La Valley. New Jersey: Prentice-Hall. 1960.

Nancy, Jean-Luc. "the Sublime offering". *Of the Sublime: Presence in Question*. Eds. Rodolphe Gasche and Mark C. Taylor. Trans. Jeffrey S. Libret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25-53.

Williams, Raymond. *The Country and the City*. London: Vintage, 2016.

- _____. *Marxism and litera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_____.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London: The Hogarth Press, 1958.
- _____. *Politics and Letters: Interview with New Left Review*, London: New Left Books, 1979.

Abstract

Tess of the Du'rbervilles: Subjectivity as the Emergent and the Subversive

Son, A Young

This study attempts to read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as a text to show a certain subjectivity whose nature involves somewhat emergent and subversive. This attempt is meaningful since the majority of the reviews on *Tess* has mainly discussed her identity based on immorality or wrongly described feminin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 of 'confession' not as the result but more of a process. The subjectivity which is being formed around the act of confession involves a certain degree of heterogeneity. This heterogeneity belongs more to the emergent and the subversive. Raymond Williams' 'structure of feeling' and Michel Foucault's discourses on confessions establish solid foundation to search and discover this kind of subjectivity as the one focuses on the emergents of ambiguous status - solution of reason and feeling - which interacts with next generation and the other proves the subversive power of discourses against power relationship. This all goes down to a way to reveal *Tess* not as an obedient woman or a tragic heroin but as the most contemporary subject who traverses and escapes the totality of the dialectic universe and moves toward the beyond of it.

Key Words

ess of the Du'rbervilles, Raymond Williams, Michel Foucault, structure of feeling, discourses of confession, subjectivity

내면을 향한 발걸음, 『델러웨이 부인』

신 밝 음

버지니아 울프(Virgina Woolf)는 특유의 서술방식으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델러웨이 부인』은 울프 특유의 굴파기 형식, 터널형식은 물론 등장인물들의 의식의 흐름을 따른 기술, 그리고 모자이크식으로 짜집기가 되어 줄거리가 완성되어지는 형식들이 잘 드러나 있다. 울프가 이러한 소설의 형식을 사용한 것은 그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드러내주는 데 탁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변적이고 알 수 없는, 한계가 지어져 있지 않은 영혼을, 비록 그것이 다소 일상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복잡하더라도 가능한 외적이고 무관한 것과 뒤섞이지 않게끔 전달하는 것이 소설가의 임무” (델러웨이 부인 250)라고 말하며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그녀의 소설 기법들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과 더불어 울프 특유의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초기 연구들이 울프의 페미니즘을 1차적인 것으로 보며 그것에서의 한계를 찾았다면 후기의 연구들은 그녀의 편지, 일기 등을 통해 그녀의 작품 저변에 이미 항상 “여성에 대한 생각들”이 내재되어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 그녀의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것이라고 한정짓는 것보다는 양성론, 두 성의 차이점과 대립점을 이해하고, 융합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울프가 주장해 온 여성적 글쓰기 또한 이 차이점을 긍정적으로 융합할 때 가능하다. 그녀가 말하는 여성적 글쓰기의 목적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회적 경계를 허물고, 조화를 이루며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현실의 사회전반에 무관심했었다는 평에 대한 오해 역시 그녀의 “나는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그것을 치열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일기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여성에 한정된 것이 아닌 사회전반의 억압을 비판하고 그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버지니아 울프는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여성으로 그녀의 작품이 그녀 특유의 소설기법, 페미니즘 등의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되어 왔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참고하되, 그녀의 ‘양성론적’ 페미니즘의 관점을 단지 여성/남성의 구분과 융합의 관점이 아닌 사회소수와 지배층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 살펴보려하며,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자신의 정체성확립을 하는 과정과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또한 클라리사와 셉티머스가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로부터의 탈출구를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산책’이라는 행위가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추가적으로 관찰하고 결과와 한계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1.

버지니아 울프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울프가 태어나고 성장한 시대¹⁾가 급격하게 여권이 신장되던 시기였던 것이 한몫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 직업군으로의 활동 또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문 직업군에 승인을 받은 여성들조차 그녀들이 그 영역에서 최고지위에 도전할 때면 어김없이 남성들의 음모에 맞닥뜨렸다(Foster 123). 여전히 사회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하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여성들이 온전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1차 세계대전 후 영국 사회는 19세기 이후 고착된 남성 중심의 제국주의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국주의 담론은 제국주의적 문명에 대한 예찬과 영국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었다(김금주 134). 이러한 경향은 국가에 대한 충성뿐만이 아니라 가장(남성)에 대한 존중과 과거 여성의 이상향(집안의 천사)을 되찾으려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은 당시 “집안일과 아이돌보기는 특히 여성의 ‘성스러운’역할”이었다고 말하며 집안의 ‘주인’, 즉 남성은 집을 홀독하고 경쟁이 심한 자본주의 세계에서부터 보호받는 장소, 이상화된 장소로 인식하며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고 주장한다(Gender 75-76). 여성들이 일꾼보다는 ‘천사’가 되기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여성들에게 권장되는 직업은 “결혼”만이 유일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성의 역할을 아내와 어머니로 제한하는 이상적 여성성의 이데올로기는 고등교육을

1)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에 태어나 1941년에 생을 마감한다. 그녀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며, 2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 목격하였다.

받은 여성들조차 가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정에 우선적 역할을 부여하고 일하는 여성은 이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남성들의 1/2 혹은 1/3의 보수에 해당하는 낮은 임금 지불을 정당화 했다 (Bridenthal, Koonz, and Stuard 329; Snaith 17 재인용). 그렇기에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웠으며 이는 결국 그녀들이 남성들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델러웨이 부인』의 가정교사 킬먼의 삶은 당시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작품에서 클라리사는 킬먼의 초라한 모습을 조롱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독신여성이며 그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항상 값싼 “방수코트”를 입고 다니며 삶에서의 행복은 “먹는 것”과 “엘리자베스를 만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델러웨이 부인, 즉 클라리사는 전반적으로 당시의 이상적 여성상에 잘 부합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녀의 남편인 리처드는 “매우 즐겁”다고 소문난 브루턴 부인의 오찬에 초대를 받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 리처드는 사회적으로 명성과 지위, 경제적 능력 또한 고루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클라리사는 자신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류층의 남성인 리처드 델러웨이와 결혼하였고, 엘리자베스라는 딸을 두었으며 사교활동을 활발히 하는 안주인의 역할을 대체적으로 잘 수행해나가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가 파티를 위한 꽃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의 그녀의 독백을 통해 그녀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이지만 그녀는 결핍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에 반복해서 질문을 던진다. 과거 사랑하던 피터 월시 대신 리처드를 선택한 결과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는 얻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간다.

그녀는 거리를 걸으며 스스로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스스로가 누군지를 잊은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뒤집어쓰고 있는 이 몸과 그것의 기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혀 아무것도 아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보이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존재말이다. 더 이상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닌, 단지 사람들과 더불어 본드 거리를 걸어가는, 놀라우면서도 엄숙한 행진에 동참하고 있을 뿐이다. 클라리사가 아닌 델러웨이 부인, 리처드 델러웨이의 부인으로서.

Often now this body she wore, this body, with all its capacities,

seemed nothing-nothing at all. She ha the oddest sense of being herself invisible, unseen; unknown; there being no more marrying, no more having of children now, but only this astonishing and rather solemn progress with the rest of them, up Bond Street, this being Mrs. Dalloway; not even Clarisa any more; this being Mrs. Richard Dalloway. (Woolf, 11)

클라리사는 더 이상 과거 사회와 정치에 대해 피터, 샬리와 함께 토론하던 ‘클라리사’가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를 잃어버렸고 거리를 산책하며 그것을 그 전의 어떤 때보다 더 명확하게 깨닫는다. 그녀가 자신은 더 이상 클라리사가 아니라 ‘미세스 델러웨이’라고 하며 자신의 ‘성’을 강조하는 것은 울프가 작품의 제목을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선택한 이유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울프는 그녀의 작품을 『클라리사』가 아닌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명명하면서 당시 여성들에게 억압적이었던 사회의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역설적으로 비판하였다. 더 이상 스스로를 클라리사로 언급하지 않고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더 이상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녀의 심리를 대변한다. 그녀가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당시 시대의 여성상을 더욱 선명하게 엿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이 자유롭게 직업을 가지고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직업군에 진출을 할 수 있더라도, 샬리와 레이디 브루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위치는 남성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으며 여성들의 역할은 결혼과 육아로 한정되는 사회였다. 제레미는 클라리사와 정치적 의견을 나누던 샬리 시턴이 이제 단순한 안주인²⁾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이 작품에서 가장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여성으로 등장하는 레이디 브루턴 역시 「더 타임즈」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품 전반에서 세속적이고 가볍다는 이유로 경멸받는 휴 휘트브레드에게 글쓰기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제시하며 당시 사회의 공적가치(The public values)들이 남성들에게 있었다(143)고 말한다. 레이디 브루턴에게 「더 타임즈」에 투고하는 일은 “남아프리카 원정대를 조직하는 것보다도 힘든 일이자, 싸움과 같이 느껴지는 것”(139)이었고 그렇기에 그녀는 휴에게 그 일을 부탁한다.

2) 그녀는 피터와의 대화에서 “난 아들이 다섯이나 있어요”(232)라고 자신의 모성애를 자랑하고, 피터는 그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다른 어떤 일에서도 느껴 보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곤 했다. 그렇기에 『더 타임스』에 편지 쓰는 감각을 지닌 -그 점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다- 휴 휘트브레드를 떠올렸다. 그녀 자신과는 완전히 다르게 구성된 존재, 편집자들의 마음에 들게끔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존재, 그는 단순히 탐욕이라 부를 수 없는 정열을 지니고 있었다. 레이디 브루턴은 종종 남자들이 우주의 법칙들에 대한 신비로운 조화를 존중하여-여성들은 불가능한-그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곤 했다. 그들은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무엇이 말해져야 하는지 알고 있다.

She used to feel the futality of her own womanhood as she felt it on no other occasion, and would turn gratefully to the thought of Hugh Whitbread who possessed-no one could doubt it-the art of writing letters to the Times. A being so differently constituted from herself, with such a command of language; able to put things as editors like them put; had passions which one could not call simply greed. Lady Bruton often suspended judgement upon men in deference to the mysterious accord in which they, but no woman, stood to the laws of the universe; knew how to put things; knew what was said.(Woolf, 109)

그녀의 기준에서 휴는 경박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나서는 일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이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적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녀가 가부장제도 하에 자신도 모르는 새 영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현실 사회에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당시의 여성에 대한 “이상적 여성상”이 남성들에게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았음은 클라리사와 킬먼의 대립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은 서로를 경멸하고 자신과 상대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 한편에는 자신이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선망으로 인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 클라리사는 킬먼을 값싼 “방수코트”를 입고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를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경멸조로 묘사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킬먼을 지나치게 경멸하는 그녀의 모습은 킬먼이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혼자의 시간, 독립적 생활, 더 나아가 엘리자베스와의 친밀한 관계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킬먼은 “학위가 있으며 이제껏 자기 힘으로 살아온 여자”이다. 하지만 클라리사는 “생각할 줄도, 글을 쓸 줄도

심지어 피아노를 칠 줄도 모르며, 아르메니아인과 터키인을 혼동하며, 적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154-55)했다. 또한 킬먼과 엘리자베스의 관계는 지금은 과거의 회상 속에서만 살고 있는, 한 때는 특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켈리 시튼을 떠올리게끔 한다. 결국 킬먼은 클라리사가 자신은 용기가 없어 선택하지 못한 선택지들을 상기시키게 만드는 상징적 존재다.

킬먼 역시 클라리사와 같은 여자들을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동정하고 경멸”(157)한다. 그녀는 그런 사치품들 속에서 그녀들이 어떻게 현재의 상황(여성들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억압받는다)에서 나아질 희망이 있겠냐며 비판한다. 특히 클라리사에 대해서는 “가장 무가치한 계층, 어설픈 교양을 지닌 부유층 출신”(156)이라고 묘사하며 파괴적일 정도의 감정을 드러낸다. 킬먼은 클라리사의 “영혼을 짓밟고 비웃고”(Woolf 125) 싶어 한다. 스스로의 능력³⁾에 자부심을 지니고 혼자 어떻게든 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여성성, 클라리사의 “발그레한 작은 얼굴, 섬세한 몸매, 세련된 분위기”등은 그녀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으로 변질된다. 분노와 경멸과 동시에 킬먼은 클라리사에 대한 자신의 이율배반적 감정을 인정하는 면모를 보인다.

나는 왜 그 여자를 닮고 싶어 할까? 왜?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델러웨이 부인을 경멸한다. 그 여자는 진지하지 않다. 선하지도 않다. 그녀의 삶은 허영과 거짓만으로 가득 차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클라리사 델러웨이가 자기를 비웃었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Why wish to resemble her? Why? She despised Mrs. Dalloway from the bottom of her heart. She was not serious. She was not good. Her life was a tissue of vanity and deceit. Yet Doris Kilman had been overcome. She had, as a matter of fact, very nearly burst into tears when Clarissa Dalloway laugh at her.(Woolf, 128)

그녀의 태도는 비록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사회에서 바라는 여성상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열등감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다. 클라리사

3) 그녀는 학위를 지니고 있는 지성 있는 여성이다. 엘리자베스는 킬먼을 “무서울 정도로 똑똑”하다고 평가한다.

가 “교양이 부족”하고, “성품이 나쁘다”할지라도, ‘완벽한 안주인’의 모습을 한 그녀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완벽히 들어맞는다.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형의 갈등은 그녀가 ‘이상적인 여성’의 롤모델로 보이는 클라리사를 마음 깊숙이 경멸하는 동시에 외경심을 품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심리상태를 지니게 만들었다. 그녀는 “왜 다른 여자들, 클라리사 델러웨이 같은 여자들은 당하지 않는 고통을, 그녀만 당해야 하는지?”(163)라고 워터커씨에게 물으며 그녀의 모순된 감정을 호소한다.

울프가 작품에서 “여성들도 수녀원장, 학장, 교장, 여성계의 고유 인사들이 되었다-그중 아무도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언급하듯이, 당시의 사회는 여성들에게 걸으로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한계 또한 명확히 지정해 둔 상태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형식상에 그쳤다. 이는 울프 자신이 본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글쓰기’를 하는 여성으로서 스스로의 경험이 반영된 자전적 부분에 속한다. 울프가 클라리사를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지만 사회가 정해둔 모델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인물로 묘사한 것은 당시 사회가 지니고 있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인과 당시대 여성들의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는 듯하다.

2.

“런던은 스미스라는 성의 젊은이들을 수백만 명은 삼켜 버렸다. 부모들이 그 래도 구별이 되라고 지어 준, 셉티머스니 뭐니 하는 특이한 이름들도 대수로울 것이 없었다.”(108)라는 셉티머스의 과거 회상은 당시 사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1925년 발매된 『델러웨이 부인』은 당시 영국 사회를 등장인물들의 독백과 거리의 배경들을 통해 묘사한다. 예를 들어 클라리사가 거리로 나선 유월 중순의 런던은 아직도 전후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들 존이 전사했다는 전보”(11)를 받은 폭스크로프트 부인의 사례와 피터 월시가 거리를 산책할 때 마주치는 “넬슨, 고든, 해블록” 동상들, “제복을 입고 총을 든 청년들”은 아직도 영국사회가 전쟁의 여파 속에 살고 있음은 물론 제국주의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피터는 그들을 보면서 “존중해야 해, 웃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존중해야해”라고 말하고, 넬슨, 고든, 해블록의 동상들을 “위대한 군인들”이라고 수식하며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당시의 현실

사회와 마찬가지로 『델러웨이 부인』의 런던은 여전히 전운이 그들이 드리워져 있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 있는 장소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강요하던 당시의 분위기는 작품 전반의 흐름을 지배하는 빅벤의 시계소리라는 장치에 의해 드러난다. 장면의 전환, 혹은 산책의 끝맺음 등은 항상 거리에 울려 퍼지는 시계소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주인공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목적을 잊고 상념에 빠져있을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시계소리가 그들을 재촉한다. 여기서 빅벤의 시계소리는 사회적 규범,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며,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맡은 바를 다하도록 종용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특히 시간에 집착하는 윌리엄 브래드쇼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그에게 시간은 곧 돈과 직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규범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안정은 그의 가장 최우선순위이다. 그렇기에 그는 환자들에게 그리고 셉티머스에게 사회의 규범에 맞추어 순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강요하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균형을 잃은 상태”로 규정하여 그들을 탄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려고 한다.

균형을 숭배함으로써 윌리엄 경은 자신뿐 아니라 영국 전체를 변형하게 만들었다. 영국의 광인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의 출산을 금지하고, 처벌하였으며 부적응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들이 그의 균형 감각을 공유할 때까지. 여자라면 레이디 브래드쇼의 균형각각을.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그를 존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했다.

Worshipping proportion, Sir William not only prospered himself but made England prosper, secluded her lunatics, forbade childbirth, penalised despair, made it impossible for the unfit to propagate their views until thy, too, shared his sense of proportion- his, if they were men, Lady Bradshaw's if they were women. so that not only did his colleagues respect him, his subordinates fear him. (Woolf, 99)

윌리엄의 균형은 즉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며, 이는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상’, ‘여성상’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즉, 윌리엄은 가부장제 혹은 당시 사회의 질서를 대변하고,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부인인 브래드쇼 부인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는 자유로이 연어를 잡았”던 여성이었다. 한때 스스로의

주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눈에 그토록 번질대며 타오르는 욕망, 지배와 권력에 대한 욕망의 불을 다스리기에 바빠, 그녀 자신은 졸아 들고 지워지고 닳아지고 다듬어진 채 뒷전에 물러서서 눈치를 보(129)는 여성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윌리엄과의 결혼생활은 그녀가 스스로가 누군지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으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녹아들어 여성의 ‘균형감각’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게 만든다. 김금주 역시 남성 중심의 제국주의적 담론이 윌리엄 브래드 쇼 박사가 강조하는 ‘균형’(proportion)과 ‘전환’(conversion)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델러웨이 부인』에서 재현되고 있으며, 그가 자신과 영국을 번성하게 하였다고 찬양하는 균형은 사회 내의 차이와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제국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동질적인 가치에 다름 아니다(134-35)라고 평가하며 작품 속 윌리엄의 상징성에 대해 주장한다. 즉 윌리엄이 강조하는 균형과 전환은 “주체의 욕망을 조정하고 그 대상을 특화시키며, 그 속에서 주체가 취하는 위치를 지정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욕망할 것인가”를 배우게 하면서(Zizek, Looking Awry 6 재인용), 사실상 인종적, 성적, 계급적인 측면에서 타자를 생산하고 억압하여 궁극적으로 불균형의 결과를 초래하는, 제국주의적 지배 담론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김금주 135).

작품에서 당시의 사회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는 윌리엄이 그의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들이대는 대상은 클라리사의 더블로 등장하는 셉티머스이다. 가부장제이데올로기의 피해자는 여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적용된다. 셉티머스는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상’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로 등장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지니게 된다. 당시의 사회는 여성들에게 ‘가정의 천사’와 같이 가정적이고 희생적인 모습만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에게는 강하고 용기 있는, 마초스타일의 모습을 강요하였다. 일례로, 그가 일하던 부동산중개업소의 고용주는 그가 일을 완벽히 해내는 것보다는 “약골처럼”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한다. 가부장적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시의 사회에서 셉티머스의 풍부한 감수성과 섬세함은 그저 ‘비정상’으로만 취급되었으며 그에게 남성다움을 강요하였다. 이에 세익스피어에 몰두하던 감수성 풍부한 사내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쟁터로 내몰리며, 그 속에서 사회가 바라던 남성다움을 완성한다. 전쟁 후 복귀한 일터에서 그는 “용감하고 남자다운” 모습에 대해 인정을 받으며 가정에서 그의 부인은 남편의 ‘남자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자랑한다. 하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한 대가로

그는 다른 종류의 ‘비정상’이 된다. 그는 더 이상 기쁨, 슬픔, 사랑 그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는 자신의 본모습이 아닌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회와 주변인물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클라리사의 상황보다 더 비극적이다. 클라리사의 경우 사회의 요구에 맞춘 현실이 정신적 고통과 혼란의 모양새로 나타났지만 셉티머스는 그것이 물리적인 형태의 병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회와 부딪쳐 깨부수어지는 법밖에 없다. 그렇기에 홈즈와 윌리엄으로 대표되는 사회체제의 억압적인 힘이 셉티머스를 레치아와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할 때 셉티머스가 그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는 것뿐이었다. 셉티머스는 실로 전쟁과 당시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셈이다.

3

린다 맥도웰은 여성과 지방의 상징적 조합에 대해 언급하는데 지방이라는 용어가 페미니스트 투쟁과 학문적인 페미니즘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쓰인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지방이라는 상징에는 중심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여성(지방)은 덜 중요한 것으로 폄하된다(57). 여기서 다시 울프의 페미니즘을 언급하겠다. 울프의 페미니즘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물리적으로 성을 나눴을 때의 여성을 말한다기보다는 젠더적으로 여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위를 좀 더 넓혀 생각해보면, 사회로부터 억압받고 소외된 인간 모두를 여성의 범주에 넣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그녀가 비판 받아왔던 것처럼 현실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님⁴⁾을 증명해보이기도 한다. 울프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당시의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4) 소철가 E.M. 포스터는 울프에 대해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일은 그녀의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장 기겟(Jean Guiguet)의 경우엔 “개인들간의 기계적인 관계-사회 구조에 의해 부여된, 계급과부의 개념에 지배되는-는 그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후에 출간된 그녀의 편지와 일기 등의 자료는 그녀가 사회전반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넬러웨이 부인』에 경우 상류계급이 영국사회의 전반을 아우르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클라리사의 세계를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Alex Zwerdling, “Mrs. Dalloway and th Social System”, Virginia Woolf and the Real World.(California:California UP, 1986), 120p.

『델러웨이 부인』의 클라리사는 물론, 셉티머스 역시도 그가 남성이라는 (물리적)성별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에서의 그의 위치가 ‘지방’⁵⁾에 속해있으며 이는 울프의 여성 안에 포함된다고 가정해야겠다. 결국, 『델러웨이 부인』의 두 주인공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지배담론의 피해자이자 그로 인해 타고난 자신의 모습을 부정당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과 남성의 모습에 스스로를 맞추고 순응해보려 노력하였으나 그로 인한 결과에 모순을 느끼며, 현재의 삶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한 셉티머스의 경우는 치료를 위해 만난 윌리엄에게 비정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취급받아진다. 이는 단지 윌리엄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가 이질적인 개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대변한다. 울프는 이와 같이 그저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한다는 이유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된 삶을 살아야하는 이들의 현실을 작품 속의 두 인물을 통해 보여주며, 그들이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을 제시하려한다.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세상 속에서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그 세계를 벗어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셉티머스의 자살과 클라리사의 파티 개최이다. 해결책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둘 모두 ‘산책’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울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파티와 자살이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낳은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 산책이라는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클라리사의 경우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호칭이 지니는 상징성과 실제 본인의 모습의 괴리를 느끼는 심리상태를 거리에서의 독백을 통해 표현한다. 이 작품에서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 대해 독백을 하는 장면의 대부분은 거리를 거닐고 있는 때인데, 이는 그녀가 집에 있을 때조차 무언의 압박에 시달린다는 것을 암시한다. ‘델러웨이 부인’은 집에서 완벽한 안주인이여야 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5) 젠더화된 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성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과의 조합에 대한 논쟁이 있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지방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공적-사적 분리와 명백히 관련된다. ...‘여성-전형적인 여성-지방’이라는 문화적으로 특수한 상징적 조합은 실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이라는 용어는 페미니스트 투쟁과 학문적인 페미니즘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쓰인다. 계급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보편론적 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지방-장소-로컬리티라는 조합은 일련의 이분법으로 묶여 있다. 그 이분법에서 핵심은 남성적과 여성적이라는 이분법이며, 지방-장소-여성 쪽은 덜 중요하다고 폄하된다.(Linda Mcdowell 55-57)

집은 휴식의 공간, 자신만의 방이 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런던의 거리를 산책하는 시간만이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는 클라리사가 “파티를 위한 꽃”을 사라나간다고 말하며 거리로 나온 이유이다. 독자들이 처음 작품을 접할 때는 마치 그녀의 궁극적인 목적이 ‘파티’인 듯해 보인다. 하지만 울프는 파티에서의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길을 나르고, 거리에 나섰을 때 떠오른 과거의 첫사랑과의 추억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의 그녀 스스로의 내면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파티’라는 결과물보다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어딘가를 향해가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울프의 또 다른, 짧은 에세이인 「거리 출몰하기」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나 있다. 울프는 당시 여성들이 거리를 나설 때, “난 정말 연필을 꼭 사야해”(“Really I must buy a pencil”)라는 말을 해야만 그들을 엄습하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회현실을 강조한다. 사실 그녀들이 연필을 사라나가는 이유는 단지 런던거리를 정처없이 걷고 (rambling) 싶었던 것뿐이다. 헨킨스의 지적처럼 울프는 거리를 산책하는 행위에서 여성으로서의 젠더가 보이지 않게 하는 보행자로서의 익명성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점에 주목한다(19 재인용). 『델러웨이 부인』에서 클라리사가 거리를 정처없이 걷는 이유 역시 그녀를 억압하는 사회에서, 쉴 수 없는 공간인 집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다. 그녀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실이 필요하였고 클라리사에게 있어서 ‘연필’은 ‘파티를 위한 꽃’이었던 것이다.

결국, 당시 사회에 여성이라는 입장, 사회의 약자이자 억압당하는 대상으로서의 인물이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으며, 사회적 억압에 대한 그녀 나름의 해결책으로 파티를 개최하는 것이다. 파티는 표면적으로는 그녀가 사회가 요구하는 ‘안주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가늠하는 수단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클라리사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153) 파티를 연다. 그녀에게 파티는 “하나의 봉헌”이다. 다양한 곳에 산재해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 파티를 열어 그들이 함께 모이게 하기 위해 파티를 연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억압받지 않고, 삶을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파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클라리사에게 파티는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

고 있는 것이다.

셉티머스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전쟁 후 남자다워진 모습으로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사회에서 바라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억압되어왔던 그의 정신은 한계를 넘어서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된다. 그와 막역한 사이였던 상사 에번스가 죽었을 때조차 그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그는 전쟁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굉장하다고 생각(110)하지만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공포에 휩싸이곤 한다. 이런 공포는 레치아가 모자를 만드는 모습을 볼 때면 완화되곤 하였는데, 그것이 그가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한 이유였다. 하지만 그의 정신적인 혼란은 일시적인 위안들로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 매혹되었던 셰익스피어를 다시 펴들었을 때 그는 그것에서 인류를 혐오하는 셰익스피어를 발견하고 공감한다. 그가 삶을 바라보는 인식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 탐욕스러운 짐승들, 지속적인 감정이라고는 없고 변덕과 허영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짐승들”의 자손을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식을 갖는 것도 거부한다. 그에게 사회는 “넘어진 자는 버리고 가는”(114) 곳이며, 홈즈나 윌리엄과 같은 인물들은 그에게 “짐승 같은 놈”, “인간 본성”이다. 셉티머스는 그에게 “균형감각”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윌리엄같은 인간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며, 거리를 거닐며 마주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자연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낸다. 그러나 홈즈가 그를 바깥사회와 격리하려는 것을 알고, 사회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일이 죽음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셉티머스는 닥터 홈즈가 자신을 방문한 때를 맞춰 필머 부인의 울타리 철책으로 곧장 몸을 던진다. “옳다, 봐라!”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자신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만든 사회에 저항을 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가 몸을 던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가 자살을 하는 것은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자, 그를 억압한 사회에 하는 복수이다. 사회가 그를 억압하고 재교육하는 것에서 죽음이라는 형태를 통해 자유로워진 것이다.

4.

울프에게 중요한 “자기만의 방”은 곧 정신적 독립과 연관된다. 하지만 당시 영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자기만의 방, 즉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집안의 다른 이들과 독립된 공간, 자신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은 사실

상 불가능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억압이 그들이 요구하는 남성상을 지니지 못한 남성에게도 역시 적용되었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울프는 ‘산책’을 여성과 남성을 아우르는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델러웨이 부인』에서의 그 초점은 클라리사로 맞추어져 있지만 산책을 하는 인물은 이 작품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그것이 여성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제시된다는 점이 그녀를 보통의 페미니즘과 구분 짓게 만든다. 이는 울프의 여성에 대한 인식, 여성이라는 물리적으로 성을 이분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닌, 인간존재로써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담론과 그에 의한 억압 등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두 인물들을 제시한다. 두 인물은 자신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파티’와 ‘자살’이라는 정반대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반대처럼 보이는 해결책이 나오기 위한 과정은 비슷한데, 두 인물 모두 산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울프가 그녀의 에세이 「거리 출몰하기」에서도 말했듯이, 거리를 걷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산책’의 의미보다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내면과의 조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재단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인물들이 산책,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서 인해 도출된 파티와 죽음이라는 결과는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사회적 억압에서의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세계로부터 떠나버리는 죽음이라든지, 하룻밤의 일로 지나가고 잊혀지게 될 파티라는 것으로 끝을 맺은 것은 결국 사회적 억압을 인식은 하지만 자신 또한 그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한계 역시 보이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러웨이 부인』을 통해 울프가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임에는 틀림없다.

Work Cited

- 김금주. 『버지니아 울프』. 「제국주의적 영국사회와 여성문제: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서울: 동인(2010) 129-152.
- 버지니아 울프. 『델러웨이 부인』. 최애리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9.
- 손영주. 「현대 도시와 두 겹의 응시: 버지니아 울프의 ‘거대한 눈’」. 『영미문학연구회』. (2013): 33-63.
- 이태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된 삶: 버지니아 울프 『델러웨이 부인』」. 『외국문학연구』. 11호 (2002): 383-404.
- Bethea, A. F. “Septimus Smith, the War-Shattered Christ Substitute in *Mrs. Dalloway*.” *The Explicator*. Heldref. 68.4 (2010): 249-252. Print.
- Bulson, E. “*Mrs. Dalloway* Here, There, Everywher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olorado. 52.1 (2014): 133-144. Print.
- Hoff, M “Woolf’s *MRS DALLOWAY*”. *The Explicator*. Heldref. 60.4 (2002): 205-207. Print.
- Mcdowell, Linda.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Minneapolis: Minnesota UP, 1999.
- Tambling, Jeremy. “Repression in *Mrs Dalloway*’s London”. *Essays in Criticism*. 39.2 (1989):137-155. Print.
- Wood, A. “Walking the Web in the Lost London of *Mrs. Dalloway*.” *Mosaic*. 36.2 (2003): 19-32. Print.
- Woolf, Virginia. *Mrs. Dalloway*. London: Harcourt, 1981.
- . “Street Haunting: A London Adventure”.(1930). Retrieved 9 June. 2017 from (<http://s.spachman.tripod.com/Woolf/streethaunting.htm>)
- Zwerdling, Alex. Virginia Woolf and the Real World. California: California UP, 1986.

Abstract

A Step toward the Inner World, *Mrs. Dalloway*

Shin, Balkeum

This thesis examines Woolf's androgynous feminism with her work *Mrs. Dalloway*. Woolf's feminism is known as a androgynous which focuses on difference rather than equality. She suggests the alternative way to find women's right by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The aim of this thesis to extend her feminism far more. Extending her scope of application not only women but to suppressed people. Woolf sketches two protagonists as a victim of the patriarchal ideology. She suggest 'to walk' as a way of meeting their inner world. In doing so, Clarissa can enjoy her life with others and Septimus can protect his own identity and soul. Nonetheless of its limitation in solution, it has a significance that she tries to show the social problem behind its glorious appearance in her own way.

Key Words

Virginia Woolf, Mrs. Dalloway, Inner World, Walking, meditation

영어 목적어생략 현상에 관한 연구

박 혜 미

1. 서론

본 연구는 영어 영목적어(null object) 현상의 유형별 분류와 논의를 제공하고 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비한정 목적어의 삭제와 한정 목적어의 삭제로 인해 나타나는 영목적어 현상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동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당연히 가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 목적어 없이 사용되는 동사들이 있다. eat과 sing 등과 같은 동사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 한국어에서도 나타난다. 언어학에서 이런 현상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한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 두 가지 동사유형에 속한다고 보고, 목적어 삭제 현상이라고 보기 보다는 동사유형의 전환(conversion)으로 이해하는 견해(Quirk, Greenbaum, Leech, and Svartvik, 1985)와 해당 동사가 자동사가 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타동사로 분류하되, 영목적어를 허용한다고 보는 견해(Allerton, 1982)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목적어 삭제의 결과적 형태가 영목적어라 보고, 문맥적 필요에 따라 ‘목적어 삭제’와 ‘영목적어’라는 두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목적어 유형에서 나타나는 영목적어 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비한정목적어 둘째 한정목적어 셋째 보어동반 목적어 넷째 재귀사목적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목적어 유형에서 나타나는 목적어 논항의 삭제 요인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관례적으로 영목적어 현상은 비한정목적어가 예상 가능한 전형적인 특성을 가져 삭제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 온 것에 대한 중요한 반론을 제기하는 목적을 갖는다.

2. 목적어 유형별 영목적어 사용 요인

영목적어란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나타나도록 예상되는 자리에서 목적어가 삭제되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a. John is eating sushi.

b. John is eating.

(Fillmore, 1986:2)

예시(1)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어 sushi가 맥락에 따라 삭제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어 삭제 현상이 나타나는 영어 동사는 eat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영어 동사들이 항상 목적어 삭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The tiger killed the snake’에서 목적어를 삭제하여 ‘*The tiger killed’와 같은 문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영목적어 현상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분석이 존재한다. 하나의 분석은 동사 eat가 자동사와 타동사 두 가지 동사유형에 속한다고 보고, 목적어 삭제 현상이라고 보기 보다는 동사유형의 전환(conversion)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Quirk, Greenbaum, Leech, and Svartvik, 1985). 두 번째 견해는 동사 eat가 자동사가 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타동사로 분류하되, 영목적어를 허용한다고 보는 견해(Allerton, 1982).

본 연구에서는 동사 eat에서 나타나는 목적어 삭제 현상을 두 번째 견해에 따라 타동사의 목적어 삭제 현상으로 이해하고 실제 코퍼스 자료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삭제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목적어의 유형을 비한정목적어 유형, 한정목적어 유형, 보어동반 목적어 유형 그리고 재귀목적어 유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2.1. 비한정 목적어의 삭제 요인

많은 동사들은 문법적으로 직접목적어와 함께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표현되지 않은 논항이 비한정 혹은 한정으로 이해되는 것은 동사에 의존적이다. 비한정 목적어는 삭제가 되어도 문장의 의미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반성의 의미적 특성을 가진다. 다음을 보자.

(2) a. Jack ate some food.

b. Jack ate

c. $\exists x \exists y$ x ate y

(Fillmore, 1986:2)

목적어가 실현된 (2a)와 영목적어 문장인 (2b)는 동일한 진리 조건적 의미 (2c)를 갖는다. 이는 ‘한 대상이 나머지 한 대상을 먹었다’와 같이 두 개의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b)가 단순히 ‘eating’이란 하나의 논항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한정 목적어 삭제 가능한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3) bake, carve, chop, clean, drink, eat, mend, sing, sweep, hunt,
write, read, rape, steal, sell, smoke....

(Allerton, 1982:68)

(4) a. Oliver was reading/painting/hoeing/cleaning.

b. I can't come now, because I'm cleaning

c. No, thanks. I don't smoke.

(Quirk, et al., 1985:723)

(5) a. Miss B paints well or draws well.

b. I wrote [a letter] to him a fortnight ago, but he hasn't
answered [my letter] yet.

c. He talks [nonsense]. He drinks [whisky].

(Jespersen, 1965:319)

위 예시에서, 동사들이 목적어를 갖지 않아 자동사형태로 보이거나 목적어가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목적어가 어떤 것인지는 짐작할 수 있어 목적어를 내용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동사들은 목적어 없이 그 자체로서 완전한 의미를 가지며, 삭제된 목적어가 어떤 특정맥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stereotypical, habitual, predictable, unimportant’한 특징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삭제된 목적어는 예상가능하거나 혹은 복원 가능한 경우에 삭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Givon, 1993).

이렇게 삭제되는 목적어의 지시범위는 대부분 제한적이다. Rice(1987)는 목적어가 삭제되었을 경우 복원 가능한 목적어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6) I ate (something).
(*an apple)

(7) John smokes (cigarettes)
(marijuana – in some circles)
(*cigars)
(*a pipe)
(*SMOKING MATERIALS)

(8) John drinks (alcohol)
(*water)
(*milk)
(*coffee)
(*LIQUIDS)

(9) Each afternoon, John reads (a book)
(*a magazine)
(*the newspaper)
(*PRINTED MATERIAL)
(Rice, 1987)

Rice(1987)는 목적어 삭제가 가능한 동사들 중에서도, ate는 something, smoke는 cigarettes와 marijuana, drink는 alcohol 등의 의미로 각각 사용될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Quirk et al(1985) 역시 동사 drink의 목적어는 의미상 알콜성 음료를 마시는 것에 한정되며, cleaning은 집안 청소를 의미하지만, ‘cleaning teeth’ 또는 ‘cleaning a pip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Fillmore(1986: 2)는 비한정 목적어 삭제요인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상당한

일반 의미적 목적어가 포함되는 경우와 의미적 구체성을 필요로 하는 두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 (10) a. When my tongue was paralyzed, I couldn't eat or drink.
 b. We've already eaten.
 c. I tried to stop drinking
 d. I spent the afternoon baking. (Fillmore, 1986:2)

(10a)의 경우 eat과 drink는 anything을 의미하는 반면, (10b)는 단순히 something의 의미가 아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미 식사를 했다'란 의미로 해석이 되며, '우리는 단지 땅콩 몇 조각을 먹었다'라는 의미로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10c)와 (10d) 역시 의미적 구체성을 요구하는데, (10c)의 drink는 일반적으로 알콜성 음료(alcoholic beverage)로 해석되어지며 (10d)의 bake는 빵 또는 패스츄리를 포함하나, 감자나 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삭제는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되어 일부 소수 동사에 한정되고, 잠재적인 목적어를 가지고 있되, 문장에 따라 삭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at, drink, learn등의 섭취(ingestive) 동사들이 비한정 목적어 삭제를 허용하는 주요부류에 속하는 것을 다수의 예시로부터 추론해 낼 수 있다(Marantz, 1984:193).

2.2. 한정목적어 삭제 요인

비한정목적어 삭제구문은 가능한 한 화자가 목적어에 대한 구체적 정체성을 염두에 둔 한정 목적어 삭제구문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한정 목적어 삭제는 언어외적 문맥에서는 현저성(salience)을 갖지만, 담화 상에서는 반드시 꼭 나타날 필요가 없어 목적어가 삭제된 경우이다. 따라서 담화 참여자들은 문장의 해석을 위하여 스스로 목적어를 찾으려 요구된다. 이 한정 목적어 삭제현상은 '지시적(deictic)'이며,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에서 일어난다(Noailly, 1997).

- (11) I went to see the cricket. George was watching already.
 (12) A: Show me your essay.
 B: I'll show you later. (Allerton, 1975:214)

위 예시들은 언어적 맥락으로부터 삭제된 목적어를 복원할 수 있다. (11)의

watch의 목적어는 cricket이고, (12)의 show의 목적어는 essay로 맥락으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문맥상 삭제된 것이다.

다음으로, 동사와 일종의 동족(cognate)관계로 볼 수 있는 목적어가 삭제되는 예를 살펴보자.

(13) a. Oliver waved (his hand) at us.

b. Oliver shrugged (his shoulder). (Allerton, 1982:70)

우리는 (13a)과 (13b)에서 빈칸 속 목적어가 동사 속에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속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his hand와 his shoulder가 어떤 추가적인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목적어 삭제의 유무를 통해 통사적으로 표면구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어 삭제 시(자동형), 어떤 하나의 신호로서 신체의 움직임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며, 목적어를 허용할 때(타동형), 우리가 특정 신체부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Allerton, 1982: 70). 이러한 경우, 목적어가 자동구문에서 동사에 합병, 혹은 ‘encapsulated’된 것으로 볼 수 있다(Lyons, 1977:262).

Levin(1993: 34)은 이 유형의 삭제를 신체-부분(body-part)을 나타내는 목적어의 삭제라 말하며, 동족목적어 삭제가 일어나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14) blink (eyes), clap (hands), nod (heads), point (fingers),
shrug (shoulders), squint (eyes), brush (teeth)....

(Levin, 1993:34)

이와 대조적으로, 삭제된 목적어가 복원될 수 있는 순수 언어적 맥락과는 달리, 상황까지 고려해야하는 비언어적 맥락에서의 목적어 삭제를 살펴보자.

(15) a. Push.

b. Shake well before use.

c. Dispose carefully. (Sadock, 1974:599)

d. Just heat and serve (Quirk, et al., 1985:847)

(15a)는 표지가 버튼 혹은 출입문에 붙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상황적으로 분명하다. 언어적 맥락 속 목적어 삭제와는 달리, 비언어적 맥락 속 목적어 삭제는 어떤 특정 목적어의 언급 없이는 의미가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청자는 문장 속 해석을 위해 스스로 목적어를 찾도록 요구된다.

이렇게 목적어가 통사적으로 표층구조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의미적, 해석상으로 목적어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설명문, 주의 표지, 지시문 등의 삭제된 부분의 완전한 해석을 위해서는 상황적 맥락뿐만 아니라 화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할 때 의미적으로 명확한 한정목적어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목적어 삭제 유형은 조리법이나 일련의 설명문에서 잘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며 Massam and Roberge(1989:134)는 이를 조리법적 맥락의 목적어 삭제(ROCT: recipe context empty object)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음 예시에서 비언어적 맥락의 목적어 삭제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6) Take the cake, mix 1 cup of water, and 3 eggs. Mix -- well
and beat -- for 5 minutes. Pour -- into a well-greased cake
pan and bake -- for 20 minutes. Remove -- from oven and cool
--.

(Massam and Roberge, 1989:134)

이러한 한정 목적어 삭제현상은 영어에서 뿐만 아니라, 아래의 (17)처럼 프랑스어와 같은 많은 언어들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아래 예시들을 살펴보면, 삭제된 목적어가 ‘독립된(delinked)’경우이며, 접어(clitic)에 의해 복원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목적어 삭제현상은 한정적이며 지시적이다.

- (17) a. On lui tendit une main. Pas besoin d'aide. Vexe', il ne'gligea
Ø et se releva...
'A hand was extended to him. Don't need help. Annoyed, he
ignored Ø and got up.....' (Larjavaara, 2000:48)
- b. A: Mai^trisez-vous vos interviews? C'est capital, les interviews.
B: Je mai^trise Ø.
A: 'Do you master your interviews? Interviews are very important.'
B: 'I master Ø.' (Larjavaara, 2000:50)
- c. Et la te^te qu'il fait le jour ou' on rapporte au logis un store

de'core' d'une photo de Marilyn...S'il de'teste Ø vraiment, on le case dans la salle de bain...

'And the look on his face the day you bring home a blind decorated with a photo of Marilyn [Monroe]...If he really hates Ø, you stick it in the bathroom...' (Noailly, 1997:100)

이러한 경우들은 동일한 맥락들 속에서 나타나며, 접어에 의해 복원되는 삭제된 목적어와 그 해석이 동일함에 따라 위 (17)의 예시들은 다음 (18)예시와 상응한다.

- (18) a. On lui tendit une main. Pas besoin d'aide. Vexe', il lai ne'gligea Øi.
 'A hand was extended to him. Don't need help. Annoyed, he ignored it.'
- b. A: Maîtrisez-vous vos interviews? C'est capital, les interviews.
 B: Je lesi maîtrise Øi.
 'I master them.'
- c. S'il lei de'teste Øi vraiment, on lei case Øi dans la salle de bain...
 'If he really hates it, you stick it in the bathroom...'

접어에 의해 복원되어지는 삭제된 목적어의 경우, 접어와 어휘적 명사 사이에서의 동일지시어가 추론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principle¹⁾을 적용해보면, 이러한 목적어 삭제가 정확하게 동일한 문맥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휘 명사와 삭제된 목적어 사이 동일지시어가 동일한 방식으로 추론되어진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Sarah Cummins and Yves Roberge, 2005:52).

2.3. 기타 목적어 삭제 요인

2.3.1. 보어 동반 목적어 삭제 요인

본 소절에서는 보어 동반 목적어 유형에서의 목적어 삭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1) 화자가 '...p...'라고 말하면서(그가 알고 있는 바에 비추어보면) '...more than p ...'를 대화상 함축한다는 하계적 I-함축을 이끌어내는데 이용될 수 있는 상계적 화용원리.

한다. 이 유형의 삭제에서는 목적어 삭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어의 삭제가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Bresnan and Zaenen, 1990; Wechsler, 1997; Rappaport Hovav and Levin, 1998).

첫 번째로, 목적어는 만약 이차술어의 주어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 술어가 결과적, 묘사적이든 상관없이 목적어가 삭제되어질 수 없다.

- (19) a. They were pounding the metal (flat).
- b. They were pounding.
- c. *They were pounding flat.

- (20) a. They were eating the fish (raw).
- b. They were eating.
- c. *They were eating raw.

(Bresnan and Zaenen, 1990; Wechsler, 1997; Rappaport Hovav and Levin, 1998).

이러한 보어 동반 목적어 유형에서의 삭제를 Bach(1979)의 관점에서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데, 이 일반화에 의하면 영어 직접목적어 통제자는 삭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 (21) a. John promised (Mary/Ø) to leave soon.
- b. John persuaded (Mary/*Ø) to leave soon. (Bach, 1979)

위 (21)의 예시에서 동사 promise는 주어 통제 동사이므로 목적어가 삭제되어질 수 있는 반면에, persuade는 목적어 통제 동사이므로 이 직접목적어 통제자는 삭제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다양한 전치사구 보어까지 확장되어 적용 가능하다(Bresnan and Zaenen, 1990; Wechsler, 1997; Rappaport Hovav and Levin, 1998).

- (22) a. Martha is carving.
- b. Martha is carving a toy.
- c. Martha is carving a piece of wood.

- d. Martha is carving a toy from a piece of wood.
- e. Martha is carving a piece of wood into a toy.
- f. ? Martha is carving from a piece of wood.
- g. *Martha is carving into a toy.

(Wechsler, 1997:129)

Levin(1993)의 주장에 따르면, carve와 같은 재료-제품 교체동사(material-product alternation)의 경우, 목적어 명사구는 (22b)의 carving의 제품이거나 혹은 (22c)처럼 재료를 나타낸다. 또한, NP-PP 보어유형의 경우, (22d)와 (22e)처럼 제품과 재료 둘 다 나타내어질 수 있다. 그러나 PP가 나타날 때, NP는 (22f)와 (22g)에서처럼 삭제될 수 없다.

2.3.2. 재귀대명사 목적어 삭제 요인

본 소절에서는 목적어로 기능하는 재귀대명사 또는 상호대명사가 삭제되는 경우를 논의하고자 한다. Emma(1987)은 재귀대명사 삭제를 허용하는 동사는 극히 한정 부류의 동사에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Emma(1987)은 이러한 동사들을 ‘본질적으로 재귀적인 동사(inherently reflexives verbs)’라고 명명하였는데, 독일어(*sich beeilen*, *sich wundern*, *sich schamen*, *sich ereignen*, etc.) 및 많은 유럽언어들과는 대조적으로 영어에서는 ‘본질적으로 재귀적인 동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to pride oneself, to absent oneself from, to avail oneself of something, to perjure oneself 등).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 (23) a. I washed/ dressed/ shaved [myself]
- b. John should bathe [himself]
- c. John should exercise [his body]
- d. I feel [myself] cold. We kept [ourselves] warm by walking to and fro.
- e. She recovered [herself] from her long illness.

(Jespersen, 1965:319-355)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재귀대명사는 특별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한, 예상 가능한 것들이고, 삭제되었을 경우 복원 가능한 것들이다. (23)에서 일반적

으로 삭제 된 목적어는 재귀대명사 myself, himself, ourselves, herself 이며 이러한 목적어 삭제를 허용하는 동사를 반재귀적(semi-reflexive)동사²⁾라 부르며 다음 동사들이 해당된다(Quirk et al., 1985:358).

(24) 반재귀적(semi-reflexive)동사류

adjust(oneself) to	dress (oneself)
hide(oneself)	identify (oneself) with
prepare (oneself) for	prove (oneself) (to be)
wash (oneself)	worry (oneself)

위에 나타난 반재귀적 동사들을 내향적(introverted) 동사라고 부르며, 이 부류의 동사가 재귀대명사 목적어를 갖게 되면 대체로 잉여적이며, 문장 속 의미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삭제는 보통 표층구조에서 선택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 중의성 문제를 지닌다(Haiman, 1982). 다음 예문을 보자.

(25) He never shaves before lunch.

(26) a. He never shaves others before lunch.

b. He never shaves himself before lunch. (Haiman, 1982:185)

(25)의 경우, (26a)와 (26b)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26a)에서 그는 점심 전에 다른 사람들(손님으로 추정되는)을 절대 면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26b)에서 그는 점심 전에 자신이 절대 면도하지 않는다는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25)는 (26a)비재귀적 목적어와 (26b)재귀적 목적어 둘 다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성창섭, 1991:54).

그러나 재귀대명사가 중의성(ambiguity)이 없는 경우에도 재귀동사들이 목적

2) Quirk et al.(1985: 357-8)은 재귀대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부류를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pride, object, avail등과 같이 항상 재귀대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하는 재귀적(reflexive) 동사, 둘째, behave, shave, dress 등 과 같이 약간의 의미 변화, 또는 의미 변화 없이 재귀대명사 목적어가 삭제될 수 있는 반재귀적(semi-reflexive)동사, 그리고 셋째, blame, accuse, admire 등과 같이 재귀대명사와 특별히 관련되는 것이 아닌 비재귀적(non-reflexive)동사로 구분한다.

어를 삭제하기도 하며, 따라서 재귀대명사가 쓰일 때와 삭제된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들을 통해 재귀대명사의 사용유무가 의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a. He washed himself in the cold water.

b. He washed in the cold water.

(28) a. Mary dressed herself neatly.

b. Mary dressed neatly.

(조운용, 2007:180)

통상적으로 wash는 샤워 또는 세수를 하는 행위이나 (27a)에서 cold water로 씻는다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손을 씻는 정도의 가벼운 행위가 아닌 온몸을 샤워 또는 목욕을 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himself의 추가적인 의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27a)와 (27b)사이에는 문맥 전후관계에서 화용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28a)와 (28b)에서도 단순히 ‘옷을 입다’는 표현은 dress라는 동사로도 충분히 표현 할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의상을 차려입는다면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 문장 ‘He dressed himself for a ride’의 경우는 승마를 위한 특정한 목적으로 승마복장으로 차려입는 것으로 단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himself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령문에서 ‘지금 옷을 입으시오’란 의미로 사용될 때 역시 ‘Dress at once’보다 ‘Dress yourself at once’가 더 적절하다(조운용, 2007:180).

Jespersen(1965) 역시 아래의 예시들을 바탕으로 재귀대명사의 유무로 인한 의미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29) a. He proved himself (to be) a fine fellow.

b. He prove (to be) a fine fellow.

(30) a. We kept ourselves warm by walking to and fro.

b. We kept warm.

(Jespersen, 1965:355)

재귀대명사가 사용된 (29a)에서는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는 의도가 엇보이나, (29b)는 그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점을 단순히 설명하는 정도이다. (30a)의 경우에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몸이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의지가 엇보이는 반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30b)과 의미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재귀대명사 목적어 삭제 유무는 의미 차이 및 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마음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Jespersen, 1965:355).

마지막으로 재귀대명사 삭제와 유사한 상호대명사 삭제를 살펴보겠다.

(31) They met/courted/married/fought/divorced/kissed (each other)

(31)예시의 동사들이 목적어로 상호대명사 each other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동사들 역시 삭제된 목적어들이 예상 가능한 것들이고, 삭제 시 복원 가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상호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32) hug, embrace, greet, know, kill, meet, love... (Levin, 1933:36)

(33) Sam and Sue married in haste and represented at leisure.

(33)에서 married에 대한 목적어가 실제로 표층 구조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문맥상 each other이란 상호적 해석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Grady(1978)는 kiss, hug, embrace 등의 동사들의 경우, 명확하게 주어가 두 사람 이상을 지칭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어를 삭제한다면 비문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34) a. *Sam hugged.

b. *Mary embraced.

c. *Ellen chitchatted Helen.

(O'Grady, 1978:102)

따라서 상호대명사 목적어를 삭제하는 경우, 행위자(agent)와 대상(theme) 둘 다 문장 내에 명확하게 지시되어야만 상호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현대영어사용에 있어 빈번하게 나타나는 목적어 삭제현상을 목적어의 성격에 따라 비한정 목적어, 한정 목적어, 보어 동반 목적어 그리고 재귀대명사 목적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통사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목적어 생략부분의 의미해석과 목적어 생략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미론 및 화용론적인 특성까지 함께 분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영어의 목적어는 동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목적어가 없는 경우를 단순히 자동사가 쓰인 것이라 상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즉 의미적으로는 순수한 타동사가 표층구조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장성분의 생략 중 현대영어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목적어 생략을 생략 부분과 그 생략된 목적어를 복원하였을 때 해석에 따라 비한정적인 생략, 한정적 생략, 목적 보어 생략 그리고 재귀,상호대명사 생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비한정적 목적어 생략은 타동사의 자동적 변이 형태에서 외현적 직접 목적어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각 동사는 의미적으로 비한정적인, 전형적인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고 담화참여자생는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담화상에서 그 중요성이 희박하며, 생략되는 목적어는 대부분 그 지시범위가 한정된다.

한정적 목적어 생략은 비한정적 목적어 생략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어의 언급 없이는 그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불완전한 경우의 생략이며, 독자나 청자가 문장의 해석을 위해 생략된 목적어를 스스로 찾도록 요구된다. 따라서 이 생략을 허용하는 동사가 타동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유형의 목적어 생략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소수의 동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사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재귀대명사 목적어의 생략을 허용하는 소수의 동사들이 있는데 그 범위는 상당히 한정된다. 그리고 이 생략은 거의 언제나 중의성의 문제를 수반하며, 동사에 따라 이 잠재적 중의성의 정도가 다른것으로 나타난다.

Work Cited

- 강범모(Kang, B. M.). 2008. 언어기술을 위한 코퍼스의 구축과 빈도(통계) 활용
(Building Corpora and Making Use of Frequency (Statistics) for
Linguistic Descriptions). 「한국사전학」(Journal of Korealex), (12),
7-40.
- 박순봉(Park, S. B.). 1998. 영어 타동성 자동사 구문 연구(A Study of the
Transitive Intransi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현대영미어문학」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25.1, 171-186.
- 정다정(Jung, D. J.). 2014. 영어 영목적어에 대한 말뭉치 기반 분석(A
Corpus-based Analysis of Null Complements in English).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M.A. Thesis.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조운용(Jo, U. Y.). 2007. 인칭채귀대명사의 통사적 화용적 특성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yntactic and Pragmatic Properties of Reflexive
Personal Pronoun). 「현대영미어문학」(The Association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25(1), 171-186.
- Allerton, D. 1975. Deletion and Proform Reduction. *Journal of Linguistics* 11,
3-237.
- _____. 1982. *Valency and English Verb*. London: Academic Press.
- Bach, E. 1979. Control in Montague Grammar. *Linguistic Inquiry* 10(4), 515 -
31.
- Bresnan, J. and A. Zaenen. 1990. Deep Unaccusativity in LFG. In Dziwirek,
K., P. Farrell, and E. Meijas-Bikandi (eds.), *Grammatical Relations:
A Cross-Theoretical Perspective*. Stanford, Calif.: CSLI. 45-57.
- Bresnan, J., and L. Moshi. 1990. Object Asymmetries in Comparative Bantu
Syntax. *Linguistic Inquiry* 21(2), 147 - 55.
- Browne, W. 1971. Verbs and Unspecified NP Deletion. *Linguistic Inquiry*
2:259-260.
- Duskova, L. 1976. A Note on Intransitive in the English Verb. *Philologica
Pragensia* 19: 172-182.

- Emma, G. 1987. *The Typology of Reflexives*. Berlin: Mouton de Gruyter.
- Fillmore, C. 1986. Pragmatically Controlled Zero Anaphora. *BLS* 12: 95 - 107.
- Givo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1.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_____. 1993. *English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aiman, J. 1982. High Transitivity in Hua. In Hopper, P. and S. Thompso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15(Studies in Transi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_____. 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II.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_____. 1965. *The Philosophy of Grammar*. New York: Bantam.
- Larjavaara, M. 2000. *Pré'sence ou Absence de L'objet: Limites du Possible Enfrançais Contemporain*. Helsinki: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 Lehrer, D. 1970. Verbs and Deletable Objects. *Lingua* 25, 227-253.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L: The U of Chicago Press.
-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Semantics Vol.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antz, P. 1984. *On the Nature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 Massam, D. and Y. Roberge. 1989. Recipe Context Null Object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20-1, 134-139
- Noailly, M. 1997. *Les Myste'res de la Transitivity Invisible*. *Langages* 127, 96 - 109.
- O'Grady, W. 1978. *Transitivity, Grammatical Relations and Voice in a Theory of Word-Based Grammar*.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ppaport-Hovav, M., and B. Levin. 1988. *Building Verb Meanings*. In Butt, M. and W. Geuder (eds.), *The Projection of Arguments: Lexical and Compositional Facto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e, S. 1987. *Toward a Cognitive Model of Transitivity*. Ph.D. Dissertation. UCSD.
- Sadock, J. 1974. Read at Your Own Risk: Syntactic and Semantic Horrors You Can Find in Your Medicine Chest. *CLS 10*, 599-608.
- Sarah, C., and Y. Roberge. 2005. *A Modular Account Of Null Objects In French*. Blackwell Publishing.
- Wechsler, S. 1997. Prepositional Phrases from the Twilight Zone. *Nordic Journal of Linguistics 20*(2), 127-54.

Abstract

A Study on the Null Objects According to Definiteness of Objects in English

Hyemi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linguistic factors for null object phenomena in English. In this paper, we classify the objects to talk about the factors for null objects in the following way: an indefinite object, a definite object, an object with its complement and a reflexive pronoun object. It is claimed that the deletion of an indefinite object is usually not context-dependent since it is predictable and stereotypical, while that of a definite object is context-dependent since the readers are expected to recover the definite objects for themselves if they want to understand the sentences.

A small group of verbs allow the deletion of their reflexive pronoun objects. This kind of deletion almost always accompanies the problem of ambiguity; the potential ambiguity of this group of sentences does not manifest itself to the same degree in each different verbs. Similarly, a few verbs have reciprocal pronoun object understood and deleted. Since the objects in English have very close relations with verbs, we analyze the verbs which allow their objects to be deleted. The recoverability of the object deletion is more frequently shown when the scope is more definite.

Key Words

object deletion, null object, definiteness, object complement, null reflexives, English

A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of Promo Video for Henan Culture Based on Visual Grammar

Lihua, Pei

1. Introduction

In China, the promo video for a region's culture firstly emerged in the 1990s, through displaying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natural and humanistic landscapes,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it is to achieve the purpose of tourism recommendation and attracting investment and promoting a region's urban influences. Nowadays, more and more provinces like Henan (China) favor this means of communication. Since 2013,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concept of "One Belt, One Road" in China, it provides a golden opportunity for cities to go to the world, so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provincial propaganda.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great changes have taken place in media technology. The application of multimedia technology is widely used, people may simultaneously communicate and share information through more than one semiotic resources such as image, sound, color, gestures, etc. Therefore, the single-mode discourse analysis which is based on the text of only language itself is gradually developing towards multi-modal orientation.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flourished in the 1990s. Much of the work in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draws from Halliday's (1978) social semiotic approach to language, a view that considers language as one among a number of semiotic resources (such as gesture, images and music) that people use to communicate, or make meaning with

each other. However, it was not until in 2003 that the studies of it were introduced to China. Although many scholars have overcome some restrictions of the study of discourse analysis and put it into a new height, most of their focus is on static discourse in this field, such as posters, newspapers, and covers of magazines, so it is practically necessary to analyze the meaning construction of dynamic discourse from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Therefore, the current study aims to make a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of the dynamic promo video for Henan culture named “Amazing Henan—Where China Began” from perspectives of representational, interactive and compositional meanings based on the framework of visual grammar advanced from systematic-functional grammar, deeply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different modes and how the visual modes of images, characters, and cultural implications are combined to construct meaning, and besides providing a theoretical reference for the future creation of promo videos concerned with Chinese culture. This study also enhances people’s multimodal literacy and makes a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dynamic promo video discourses and the viewers.

2. Theoretical Framework

2.1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Single mode expresses meaning by means of one semiotic resource, for example, the written language.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 integrated way consisting of sound, image, video and other semiotic resources are applied to give more vivid information. Therefore, it inevitably transferred from traditional single-mode discourse analysis to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Lemke (2002) suggested that “language, gesture, music and etc., what we call sign systems or semiotic resource systems, cooperating with each other can be defined as multimodality.” Van Leeuwen put (2005: 281)

“Multimodality refers to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semiotic modes, for example, language and music in a communicative artifact or event.” Baldry and Thibault (2006) proposed that “multimodality is about many co-deployed and co-contextualized different semiotic resource systems that contribute to make specific meanings.” Brian (2012) described that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considers how texts draw on modes of communication such as pictures, film, video, images and sound in combination with words to make meaning. While in China, Li (2003) was the first scholar to introduce Van Leeuwen’s theory into China, she pointed that three meta-functions in his theory correspond with three meta-functions in Halliday’s systematic functional grammar. She stated that multimodality means “compounded discourses or texts which realize meanings through more than one of any semiotic codes.” Zhu (2007) pointed that “multimodality ‘involves two or more kinds of modalities of semiotic system’”. In spite of studies both at home and abroad, it is shown by different linguists that multimodality is the combination of verbal, audio, and visual modes in combination with media to create meaning.

2.2 Visual Grammar

Based on Halliday’s systematic-functional grammar which considers language as a semiotic system, scholars in the social semiotics believe that other social semiotics can also make meaning apart from language. Therefore, they focus on extending systematic-functional grammar to other multimodal discourse. The most influential scholars are Kress & Van Leeuwen, being the pioneers to apply systematic-functional grammar to the analysis of visual semiotics, whose book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1996) made the visual grammar come into being. In systematic-functional grammar, Halliday (1978) put forward that language has three meta-functions: ideational function, interpersonal function and textual function. Then they applied the meta-functions of language in systematic-functional grammar into visual images. In this book, they presented that there were three meanings of visual images: representational

meaning, interactive meaning and compositional meaning to analyze visual images.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Kress & Van Leeuwen, 2006) referred to “a process in which the markers of signs, whether child or adult, seek to make a representation of some object or entity, whether physical or semiotic, and in which their interest in the object, at the point of making the representation, is a complex one, arising out of the cultural, social and psycho-logical history of the sign-maker, and focused by the specific context in which the sign-marker produces the sing.” This meaning is in accordance with the ideational meta-function, which can be then subcategorized into conceptual structure and narrative structure. In every image, there are participants whose relations lead to the different processes of images. The interactive meaning build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images and viewers. Many kinds of means can realize interactive meanings: contact, social distance, and attitude. In addition, the interactive meaning can also be realized through modality. Kress & Van Leeuwen deemed (2006) that “the composition of the whole is the way in which the representational and interactive elements are made to relate to each other, the way they are integrated into meaningful whole”. The compositional meaning is realized through three resources: information value, salience and framing.

3. Promo Videos for Henan Culture

Henan is situated at the heart of China along the Yellow river, which is a traditional agricultural and populous province. On this fertile land great civilization had been created, ranging back in time to the *Peiligang* culture, dating back to 8000 years, and *Yangshao* culture, dating back to 6000 years.

The promo videos for Henan culture chosen as research data, as a typical dynamic text, exhibits to the world Henan Province's distinctive and unique image successfully and promotes this province's regional pride and confidence in about 8 minutes. This video was cooperatively produced by the People's Government of Henan Province and Henan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on 13th April, 2018, and then communicated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television and the Internet. (<http://henan.qq.com/a/20180414/005383.htm>) The video introduces a picturesque and comprehensive provincial image: birthplace of Oracle Bone Inscriptions, cradle of four great inventions and ancient commercial civilizations, recognition of 6 World Cultural Heritages, home of *Shaolin Kungfu* and *Chen's Taiji*, nourishing 13 dynasties' capital Luoyang, 10 dynasties' capital Kaifeng, contrast of infrastructural development in the past decades, great convenience of modern high railway network and transportation and even global co-operations in many industries. The images are constantly changing and the rhythm of this video is like floating clouds and flowing water a natural and flowing style of enjoyment. It brings viewers an endless aftertaste.

4.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of Promo Video for Henan Culture from Visual Gramma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re adopted to calculate the distribution of the processes in the images of promo video for Henan culture. First of all, all the images were cut from the promo video through Video Player. Then the process of each representative image is classified. Finally, the author will aim to analyze visual modes or images based on Kress and Van Leeuwen's visual grammar from three aspects: representational meaning, interactive meaning and compositional meaning. The analysis of visual modes in the video is the most prominent part, providing some basic information about what the participants in the image are doing.

4.1 Representational Meaning

All the representational meanings are revealed from some shots from narrative and conceptual aspects. In the narrative aspect, there are participants and narrative process of action involved. The following are a series of narrative processes of action. The process of action is represented by the contrast of color, position and background.



Figure 1



Figure 2

In Figure 1 and Figure 2, there are several monks playing *Shaolin Kungfu* forcefully and perfectly, which is a kind of *Quanshu* invented in *Henan Shaolin Temple*. It has unique cultural and practical values, if these skills are practiced to certain high levels, the unimaginable special function of self-guard will be achieved. Therefore, upon seeing, the audience will image about the essence of *Shaolin Kungfu* at that moment and deeply impressed by the sophisticated and profound Henan *Wushu* culture.



Figure 3



Figure 4

In Figure 3, two hands become the participant and the action is a chef is stretching noodles skillfully in the air and behind him there is a large red plaque saying: *Huimian* in golden Chinese characters (stew noodles), highligh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Henan noodles. Henan stewed noodles is one of the three popular, delicious and affordable foods in Henan.

Every year, 2 billion bowls of stewed noodles are consumed by Henanese. It gathers soup-stock, meat, vegetables and staple together, catering our desire for flavor and daily requirements for nutri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broth added to, there are three main flavors, tastes of beef, mutton and seafood, especially mutton stewed noodles have a typical function of keeping warm and is thus a pretty choice in cold winter. So food is a kind of culture built on tongue. The audience can get a wonderful feast from this shot.

In Figure 4, there are two participants. A male and female are playing the *Chen's Taiji*, a kind of Chinese traditional shadow boxing. The background is a typical *Taiji Diagram*, only having two colors: black and white. Both people wear a suit of white and black loose clothes, their arms are starching with the knee bending. They seem relaxed and serious-minded when they are playing the *Taiji*. As an ancient *Kongfu*, *Taiji* includes quan, sword, broadsword, spear, push-hand, etc. Especially the push-hand is well known for its tactic and technique, a powerful and aggressive opponent can be defeated by a small clever attack or an abrupt explosive power. *Taiji* is a practice with a perfect combination of physical movement, deep breath and meditation, it can improve our immune system, central nervous system, and strengthen the fitness. So through long years' practice, many chronic diseases can be effectively cured or relieved. No matter you are young or aged, male or female, no matter strong or weak, slim or overweight, you all can choose *Taiji* as your ideal physical exercise. When practicing it quietly and slowly, you can sense the existing of air and fully enjoy the aerobic bath, meanwhile you can also feel all the movements like the rhythmically uninterrupted waves.



Figure 5



Figure 6

In Figure 5, within the shot there is a hand, touching the Yellow River, which is the most important birthplace of Chinese civilization. The magnificent momentum of the Yellow River and its spirit of advancing bravely symbolically reflect the Chinese nation's character of perseverance, invincibility and tenacity. The view of Yellow River can stir up an upsurge of emotion and be proud of being a Chinese.

In Figure 6, five people dressed in traditional Chinese red are doing the process of waist-drum dance. Waist drum dance usually involves many people, sometimes hundreds, is a magnificent sight for the viewers. During the performance, the drum is hung slantingly on the left-side of the performer's waist, and the dancer, with the drumsticks in each hand, dances and beats the drum at the same time. The waist drum dance is characterized by strong and varied rhythm, vigorous and dynamic style. The drumbeats also vary from slow to insistent beats. So the viewers can feel the Henannese's passion and warmth for life in the countryside.

4.2 Interactive Meaning

Interactive meaning refers to the relation among the producer, the object and the viewer. The social relation is formed by the interactive between image and the viewer which influences the attitude of the audience to the objects. Kress & Van Leeuwen (2006) stated that there exists an "image act" when the image is expressing the message. The "image act" is made

by the direction of the participants' eye line to the viewer. These participants in these shots make involvement with the viewers. From Figure 7 to Figure 11 reveal the people's touching interactive meanings.



Figure 7



Figure 8

In Figure 7, there is one participant in the shot: a smiling boy. The boy is watching closely, curiously and happily a big cherry, this boy's eye line is direct to the cherry which established an interactive action with the cherry, hinting "Wa-oh, it is so delicious!" Actually, some surprising facts are reflected from this unusual cherry, for these cherries were imported from far-away tropical Chile across Pacific Ocean for 28 hours. All these embody the great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nowadays and effectively shorten the distance between cities and provide great convenience for our daily life.

In Figure 8, there is an actor of Yu Opera with make-up, who wears the custom of Yu Opera which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traditional Chinese local operas in China. It embodies the wisdom of the ancient Chinese people, integrating the finest arts together and makes people feel refreshing. In the scene, this actor is shot from the horizontal and close-distance angle and his eye line is looking straight and builds an eye contact with the audience, so that the audience can sense a series of emotional changes on his face in each episode: sorrow, happiness, bitterness, etc.



Figure 9



Figure 10

In Figure 9, there is a handsome and well-dressed man looking far away. From the interactive eye contact it establishes, we can feel that he is hopefully looking forward to a better life in the future and his ambition arises from his heart. From his facial expressions, full confidence is flown out. It communicates to our audience if one looks at the longer run, a lot of positive things in life are happening.

In Figure 10, it is a close-up and front shot. A smiling boy is the only participant within this shot. This boy is looking straight at the camera, establishing the eye contact with the audience. His face occupies the whole screen and it provides a closeness. The image aims to read as real and true. Looking at the lovely smiling faces of children, like flowers in full bloom, it is suggested that the future of our country will bloom like these children.



Figure 11

In Figure 11, there are three participants in the shot, it is a medium shot in which father, mother and their daughter are taking their family photo. The countless loving families that gather fill the city with love, which emphasized the part of love in the video. A family photo records a commemoration of family reunion and a manifestation of organizational unity, every family member is a cohesive force of unity and harmony from the heart, it sets a moment for family reunion, love and dream. So it conveys the harmonious feelings and Chinese dreams of different families in China.

The following shots will show the static objects' interactive meaning.



Figure 12



Figure 13

In Figure 12, it is a typical vertical perspective in high angle. The participant in the shot is the typical ancient times' architecture, which is generally surrounded by many trees and pavilions. The vertical perspective in high angle can show the panorama and totally gives the viewers a visualized impression to the scene that the producer wants to show. There are some other architectural shots in the video, which all show a great respect for the classical architecture and the admiration for the Chinese splendid civilization.

In Figure 13, the participant is the Zhengzhou's prosperous junction which is the biggest flyover in Henan Province. It is obvious that the shot belongs to vertical perspective in high angle. The panorama here is majestic and deeply by the well-developed transportation. Therefore, symbolically it is a

leading light in China's green development. So such shots as Figure 12 and 13 in high angle above show that the viewers can have an absolute commanding height to appreciate the frame the producer wants to show.



Figure 14



Figure 15

The analysis of interactive meanings can also be from the aspects of modality such as in Figure 14 and 15, there are three types of modalities: high modality, medium modality and low modality. Usually, high modality refers to the shot with high color saturation, medium modality refers the shot with medium color saturation and low modality refers to the shot with black and white. In Figure 14 and 15, although there are not many colors embedded, they both have high color saturation. The left is the hundreds of Chinese family names, carrying rich meanings and the origin of which can be traced back to thousands of years ago. The aim is to promote the Chinese characters' essence. The right scene is the *Longmen* Grottoes, which are located in the south of *Luoyang* City. *Longmen* Grottoes, *Yungang* Caves and *Mogao* Caves are regarded as the three most famous treasure houses of stone inscriptions in China. No doubt, those shots belong to the high modality. The scene in the shot is so beautiful that it catches the eyes of the views immediately.

4.3 Compositional Meaning

The compositional meaning relates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and

interactive meaning of the image to each other by three subsystems: informational value, salience and framing. Information value is the layout of elements in the image. Its layout mainly includes left-right position, top-bottom position and center-margin position. Apart from the placement of elements in an image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elements, salience can also serve this function. Factors affecting salience include size, sharpness of focus, color contrasts and other specific cultural factors such as the appearance of a human figure or an influential cultural symbol.



Figure 16



Figure 17

In Figure 16, it shows the center-margin position within the information value, a tower is placed in the center, which is a symbol of Zhengzhou, and its margin is the sky at sunrise. It symbolizes Zhengzhou has an ambition to become a central national city. In Figure 17, at the very beginning of this video, the logo in this shot grabs the viewers' attention, which is written "China in the new era: wonderful Henan, global partnership" because of its big size and various colors. The logo is salient and important because it not only shows the vitality of Henan, but also conveys the unique charm of Henan local culture.

5. Conclusion

Under the framework of Kress and Van Leeuwen's visual grammar, the

paper conducts a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of dynamic promo video for Henan culture from representational meaning, interactive meaning and compositional meaning. It is found that representational meaning, interactive meaning and compositional meaning work together to reveal the theme of the promo video for Henan culture, the inter-relatedness of each mode in the promo video greatly attract the viewers' attention. Though the study is carried out with great efforts, it is unavoidable that there are still some limitations which need to be pointed out, because of the limited space and the video resources, three meanings are not equally adopted in this paper. The interactive meaning takes up the most proportion, representational meaning ranks the second and the compositional meaning only takes up a small part. Therefore, in the future research, there should be more modalities involved in the analysis, such as dialogue, monologue, sound, language attitude and others, and the three meanings of visual grammar should be adopted in a more equal way. What's more, the researchers can do some feedback of the viewers in order to grasp their real feelings and make a comparison and finally take the best advantage of the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with the visual grammar. In spite of these, the research is still a new try of promo video for Henan culture.

Work Cited

- Baldry, A. & Thibault, P. 2006. Multimodal Transcription and Text Analysis. London: Equinox.
- Brian Paltridge. 2012. Discourse Analysis. London: Bloomsbury.
- Halliday.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 Kress, G. & Van Leeuwen, T. 199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London: Routledge.
- Kress, G. & Van Leeuwen, T. 200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2nd edn), London: Routledge.
- Lemke, J.L. 2002. Travels in hyper-modality. London: Routledge.
- Van Leeuwen, T. 2005. Introducing Social Semiotics. London: Routledge: 281.
- Li, Z. 2003. A Social Semiotic Analysis of Multimodality. *Nanjing: Foreign Languages Research* 5.
- Zhu, Y. 2007. Theory and Methodology of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Haerbin: Foreign Language Research*, 5: 82-84.
- Promo Video resource: (<http://henan.qq.com/a/20180414/005383.htm>)

초록

다모형 담화 아래 시각 문법에 근거한 허난 문화 홍보영상 분석

Lihua, Pei

본 연구는 시각문법을 이론으로 하여 재현의미 인터랙티브의미 그리고 구도의 의미의 세 가지 각도에서 허난문화 홍보 영상'놀라운 허난--어디가 중국의 기원인가'에 대해 다모형 담화 분석을 할 것이다. 동적인 홍보 영상 내 각 다른 모형 간의 관계, 그래픽 특징 그리고 문화내포 어떻게 서로 결합하여 홍보 영상의 전체적의 의미를 전달하느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앞으로 중국 문화 홍보 영상 제작에 참고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고 홍보 영상에 대한 다모성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다모형 담화 분석, 허난 문화 홍보 영상, 시각 문법

The Function of Irony in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ve Principle

Zhang Yinjun

1. Introduction

Jane Austen was one of the greatest novelists in the eighteenth century in British literature with six well-known novels, *Sense and Sensibility*, *Pride and Prejudice*, *Mansfield Park*, *Emma*, *Northanger Abbey* and *Persuasion*. Jane Austen's works are famous for their vivid well-rounded portrayal of characters, simple but refined languages as well as natural but surprising plot designs thus enjoy great popularity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e eighteenth century, irony was used in literary works in Europe. Deep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 irony becomes one of the most obvious and sparkling rhetorical devices in Jane Austen's works. Jane Austen's novels received great attention at the end of 19th century and the early study of her works stemmed from the 20th century. In 1939, Mary Lascelle published her work *Jane Austen and Her Art* (Zhu, 2001), which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studied Jane Austen and her works for the first time. Her exploration of Jane Austen's works from vocabulary, language and structure also provided valuable experiences for researchers later on. With increasing attention and focus on Jane Austen's works, critics and scholars began to try different perspectives and due to the emergence of literary pragmatics in 1970s and its development in 1980s, the study of Jane Austen's works expanded from mere structure, language, character and sociological background to linguistic fields.

In 1970s, semantics was used as a tool to analyze the meanings of words, phrases and systems in Jane Austen's works. Since then, more and more researchers made attempts to put linguistic knowledge into research. However, those efforts emphasized more on the stylistics and narratology embodied in the works and lacked linguistic theoretical support.

As for irony in Jane Austen's works, it was first put forward by Richard Simpson in 1870 as "criticism, humor, irony, the judgment not of one that gives sentence but of the mimic who quizzes while he mocks, are her characteristics." (Richard, 1870) But most of the studies on irony followed in Jane Austen's works were guided by literature search and few by linguistic theories.

Compared with plentiful and varied research abroad, the study of Jane Austen's works in China was much delayed. Although the study of Jane Austen's works was much more varied and colorful in 1990s and in 2000s its research methods began to involve linguistic knowledge, it was still insufficient in depth.

Take Austen's art of irony as an instance. All the six novels of Austen's used irony a lot, which can be seen in word choices, structure, intonation, character and the disposition of different scenes. But domestic research on Austen's art of irony mostly focused on one or two aspects, characterization or plot structure, to analyze the features of Austen's art of irony (王, 熊, 2006). What's more, when using the concept of irony in analyses, *Pride and Prejudice* and *Emma* are more preferred as the study objectives while the study of irony in other four novels was comparatively less.

It can be realized that applying new theories and finding new angles in exploring Jane Austen's works must be of necessity and great importance. With linguistic theories as guide, research on irony in Jane Austen's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linguistics will be feasible.

This thesis is aimed at analyzing the functions of irony in characterization in Jane Austin's *Pride and Prejudice* through the cooperative principle and the four maxims within the scope of literary linguistics and trying to demonstrate from a new perspective. The dissertation contains five parts.

The first part is an introduction of the current study of Jane Austen's works both at home and abroad. The second part will introduce the background of irony, the history of irony and the pragmatic study of irony; the theory used in this thesis, the theory of implicature, and the main points of the cooperative principle. In the third part, it will give a brief introduction to Jane Austen and make a summary of the study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Pride and Prejudice*. The kernel of this thesis, the fourth part will analyze the function of irony in characterization in *Pride and Prejudice* under the guidance of the cooperative principle and give out examples in detail. The last part is the conclusion part, in which a summary of how irony helps characterization will be drawn and the insufficiency of this thesis will be discussed.

2. Backgrounds of Irony and the Cooperative Principle

2.1 Literature review of irony

Henry Watson Fowler, in *The King's English*, says "any definition of irony—though hundreds might be given, and very few of them would be accepted—must include this, that the surface meaning and the underlying meaning of what is said are not the ¹⁾same."

The English word "irony" referred by Fowler, actually originated from the Greek word "eirōn" (徐, 2007), a character in comedy of ancient Greece, who usually successfully defeated his braggart opponent by feigning himself to be in disadvantage. This was mentioned by philosopher Aristotle in his article "Nicomachean Ethics", where he defined it as "in the form of understatement, self-depreciation, and its possessor the self-depreciator". Although the study on irony was early started by Aristotle, it didn't officially appear until *The Republic* written by Plato around 380 BC as "eironeia", meaning "dissimulation, feigned ignorance".

1) Henry, F.W. Irony. [online]. Available from: <http://en.wikipedia.org/wiki/Irony>.

In 1502 irony came into English for the first time as “yronye” in *Thordynary of erysten men*, meaning “the way a man says one and gives to understand the contrary” (黃, 1996). In the late 17th century and early 18th century, irony became widely accepted and deeply sophisticated. A lot of distinguished writers including Shakespeare, Jonson, Dryden, Defoe, Swift, Voltaire, Pope, Johnson, Fielding, Gibbon and Goethe used irony skillfully. Coming this far, irony expanded to these satirical works. Due to this ironic tradition, irony also became an outstanding feature in Jane Austen’s works and added lustre to her characterization. Up to now, it’s realized that irony is not only a figure of speech and applied only to rhetoric, but a common but also important element in daily conversation and of great meaning to linguistic study.

Generally, iron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which are verbal irony, dramatic irony and situational irony.

According to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by Abrams and Hartman (2009), verbal irony is a statement in which the meaning that a speaker employs is sharply different from the meaning that is ostensibly expressed. The ironic statement usually involves the explicit expression of one attitude or evaluation, but within dications in the overall speech-situation that the speaker intends a very different, and often opposite, attitude or evaluation. Verbal irony usually draws support from particular words of grammar to express the different.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defines dramatic irony as the incongruity created when the (tragic) significance of a character’s speech or actions is revealed to the audience but unknown to the character concerned; the literary device so used, orig. in Greek tragedy.

For the definition of situational irony, it can be referred to Lars Elleström (2002) who writes:

“Situational irony, ... is most broadly defined as a situation where the outcome is incongruous with what was expected, but it is also more generally understood as a situation that includes contradictions or sharp contrasts.”

2.2 The pragmatic study of irony: The Cooperative Principle

The cooperative principle was put forward by the Oxford philosopher Herbert Paul Grice in 1975, who introduced it in his article "Logic and conversation" as "Make your contribution such as it is required, at the stage at which it occurs, by the accepted purpose or direction of the talk exchange in which you are engaged."

During an implicature, people are supposed to keep their conversation oriented by certain rules, though may be unconscious; the rules will function as orbits and make the implicature efficient and informative. The cooperative principle aims at working as the rules. To be cooperative, the two participants involved in a conversation should have a consensus that the speaker will observe the cooperative principle and the listener gives his answer with the presumption that the speaker observes the principle. Jiang (2000) gives a better analogy, for some unwritten laws, such as, that women and children are saved first from a sinking ship; that one is not supposed to make *ad hominem* comments at academic conferences, etc.

To better explain the cooperative principle, Paul Grice borrows from the German philosopher Immanuel Kant four categories: quantity, quality, relation and manner. The four categories are also called as the four maxims, which are supposed to help explain the link between the utterance and what is implied²⁾.

The category of Quantity, concerned with the quantity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has two maxims:

1.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 of the exchange).

2.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For example, Grice says, "If you are assisting me to mend the car, I expect your contribution to be neither more or less than is required" and when "I need four screws; I expect you to hand me four, rather than two or

2) The following detailed explanation of the four maxims and the given examples are all from Grice's *Studies in the Way of Words*, from page 22-40.

six". In the category of Quality, there is a supermaxim: try to make your contribution one that is true, and two specific maxims as follows:

1.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2.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In terms of quality, Grice says "I expect your contribution to be genuine and not spurious. If I need sugar as an ingredient in the cake you are assisting me to make, I do not expect you to hand me salt; if I need a spoon, I do not expect a trick spoon made of rubber".

The category of Relation has a single maxim "Be relevant". "Though the maxim itself is terse," Grice goes on, "its formulation conceals a number of problems that exercise me a good deal: questions about what different kinds and focuses of relevance there may be, how these shift in the course of a talk exchange, how to allow for the fact that subjects of conversation are legitimately changed, and so on."

For example, "I expect a partner's contribution to be appropriate to immediate needs at each stage of the transaction; if I am mixing ingredients for a cake, I do not expect to be handed a good book, or even an oven cloth (thought this might be an appropriate contribution at a later stage)".

The category of Manner, different from others, relates not "to what is said but, rather, to HOW what is said to be said". There is a supermaxim "Be perspicuous" and the specific maxims are:

1.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Hard to understand;
2. Avoid ambiguity;
3. Be brief (avoid unnecessary prolixity);
4. Be orderly.

In terms of manner, Grice says "I expect a partner to make it clear what contribution he is making, and to execute his performance with reasonable dispatch".

It can be easily found that the purpose of setting and observing cooperative principles is to help people better conduct a conversation. During daily communication, the cooperative principle and the four maxims guide us to say things as required, relevant, brief and clear with true and adequate

information. It will make the conversation efficient and also reduce misunderstandings. Just as Grice concludes, "it is just a well-recognized empirical fact that people DO behave in these ways; they have learned to do so in childhood and not lost the habit of doing so; and, instead, it would involve a good deal of effort to make a radical departure from the habit. It is much easier, for example, to tell the truth than to invent lies."

3. The introduction of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The ³⁾novel is set at the turn of the 19th century, centering on atypical family of the landed gentry, the Bennet family, especially the heroine Elizabeth and describing how she overcomes her prejudice and harvests a happy marriage. The Bennet family lives at Longbourn. Mr. Bennet is a clergyman and has a sum of money. He is a witty, humorous man while at the same time a little bit neglectful of educating his young daughters. Mrs. Bennet is the mother of her five daughters but in contrast with Mr. Bennet, she is ignorant, clumsy, vulgar and shallow and all her intentions for life is to marry her five daughters to wealthy men. Jane is the oldest girl among the five sisters and is superior in her kind heart and outstanding beauty; Elizabeth is the second elder girl in the family and like her father, she is also intelligent and incisive in conversation. The third sister, Mary, is industrious, devout and good at music but weak in taste; Kitty, the fourth sister, relies on her sisters a lot and the youngest sister, Lydia, is much like her mother, vulgar and not well-bred.

The story begins with the news that a single, wealthy, handsome young man, Mr. Bingley will move to Netherfield Park to be the Bennets' neighborhood. In a ball held to introduce Mr. Bingley to the neighborhood, as a young and promising man, Mr. Bingley wins high praise because of his

3) The summary of *Pride and Prejudice* is base on the book *Pride and Prejudice*, Wang, X. & Ji, F. (eds.) (2009), 1sted. Beijing: Tsing Hua University Press.

gentleness, kindness and amiability. However, his intimate friend Mr. Darcy is thought to be proud and arrogant because he seldom talks to others and prefers to be alone. During the ball, Mr. Bingley singles Jane out and dances with her twice, which shows his attention on her while Jane also expresses her admiration for Mr. Bingley to Elizabeth after the ball. On the contrary, the talk between Mr. Bingley and Mr. Darcy, which is directed against Elizabeth later, is heard by Elizabeth and as a result, Mr. Darcy is disliked and thought to be proud and arrogant.

Caroline Bingley sends an invitation to Jane for dining, and during the trip, Jane was caught in heavy rain and got a severe cold, thus had to stay at Netherfield for several days. Elizabeth, worried about her sister's health, walked to Netherfield and happened to live with Mr. Darcy there where Mr. Darcy began to find her more attractive and put more attention on her.

When Jane recovers and comes back home, Mr. Bennet announces the news that his cousin, a clergyman, Mr. Collins is going to pay a visit to them. Mr. Collins talks a lot about his employer Lady Catherine de Bourgh and speaks highly of her nobleness and beauty, which shows Mr. Bennet and Elizabeth his obsequious gesture. Soon, the Bennets find that Mr. Collins actually comes here with the hope to pick himself a wife among the five girls and he finally singles Elizabeth out. Due to an unexpected chance, Elizabeth makes acquaintance with Mr. Wickham, a militia officer who claims to be familiar with Mr. Darcy since childhood and also the son of Mr. Darcy's father's steward. Elizabeth likes Mr. Wickham at the first glance and talks to him. Mr. Wickham describes how Mr. Darcy privately takes possession of the money Mr. Darcy's father leaves to him and makes him suffered, which deepens Elizabeth's prejudice against Mr. Darcy.

Mr. Bingley holds a ball at Netherfield sometime later, and Mr. Darcy thinks that Mr. Bingley is going to marry Jane. However, Mrs. Bennet, together with the three young sisters, behaves in poor manners and decorum. The next day, Mr. Collins makes a proposal of marriage to Elizabeth but Elizabeth refuses in accordance with her own wills. On the other hand, Mr. Collins immediately turns to Elizabeth's intimate friend

Charlotte Lucas, and makes an engagement with her. Mr. Bingley's sudden leaving Netherfield and returns to London without any greeting or explanation misleads Elizabeth into thinking that it is Mr. Darcy and Caroline Bingley that conspire to separate Mr. Bingley from Jane.

After Mr. Bingley quits Netherfield, Jane receives several letters from Caroline Bingley, saying that Mr. Bingley doesn't love her and persuades her to give up. Jane is very sad but finally decides to pay a visit to her aunt and uncle Gardiner in London with the hope of meeting Mr. Bingley and making sure whether this is his true feelings but just in vain. Jane is extremely disappointed and understands that Caroline Bingley isn't a true friend and Mr. Bingley doesn't love her.

In the spring, Elizabeth is invited to have a visit to Charlotte and Mr. Collins and happens to meet Lady Catherine de Bourgh, Mr. Darcy's aunt and is invited to visit Rosings Park, where she meets Mr. Darcy, who's also paying a visit by chance. Mr. Darcy expresses his affection to Elizabeth and proposes marriage to her, still in an arrogant way though. Elizabeth recalls Mr. Wickham's statements and also what Mr. Bingley has done to Jane, feeling fury burning in her breast, then, she begins to criticize Mr. Darcy for his behavior and refuses his proposal at last. Mr. Darcy is totally shocked to hear those criticisms, leaving a letter to Elizabeth as explanation. In the letter, he says in fact, Wickham had exchanged his legacies for a cash payment and when he spends lavishly and uses it up, he attempts to elope with Georgiana, his dear sister, to secure her fortune for himself. Regarding Jane and Bingley, Darcy says he persuades Mr. Bingley to leave for London because Jane doesn't show her affection to Mr. Bingley and this misleads him into thinking that Jane doesn't love Mr. Bingley. Besides, due to the improper behavior of Mrs. Bennet and her three younger daughters, he has to warn Mr. Bingley the possibility of their wanting his property. Elizabeth, though unwilling to believe, has to admit Mr. Darcy has no fault in doing so and begins to reflect on whether she has misjudged him.

In the next summer, Elizabeth comes to Pemberley, Darcy's estate together with her aunt and uncle, and gets to know that Mr. Darcy is

respected by the local people and he is also a good brother, who cares for his sister a lot. When walking inside the woods, Elizabeth unexpectedly meets Mr. Darcy, who has just arrived at home. To her surprise, Darcy treats her aunt and uncle with politeness and civility and also introduces her to his sister, Georgiana. During the short stay, Elizabeth has a new appraisal of Mr. Darcy and begins to realize her affection to him. However, a good time never lasts long; Elizabeth receives a letter saying that Lydia elopes with Mr. Wickham, who's already deeply in debt because of gambling. This depresses her a lot; she returns to Longbourn immediately to look for Lydia and Wickham and thinks Mr. Darcy will look down upon her because of her sister's disgrace. Lydia and Wickham are soon found and Wickham is persuaded to marry Lydia so that some of the reputation of the Bennet family can be kept. Mr. Bennet, Jane and Elizabeth originally believe that it is Gardiner who lends Wickham money to marry Lydia but soon Elizabeth is shocked to find that it's Darcy who finds the couple, persuades Wickham to marry Lydia and supports them with money without telling her. With no more time to quiet her heart, she is told that Mr. Bingley returns to Longbourn and successfully proposes marriage to Jane.

Lady Catherine de Bourgh pays an unexpected visit to Longbourn. She has heard a rumor that Elizabeth will marry Mr. Darcy and attempts to persuade Elizabeth to agree not to marry in a selfish motive of marrying her daughter to Mr. Darcy. Elizabeth refuses her demands, which annoys Lady Catherine de Bourgh and she promises Elizabeth that she can never marry Mr. Darcy. Having heard the news that Elizabeth refuses Lady Catherine de Bourgh, Mr. Darcy comes back to Longbourn to see Elizabeth, where he gets Elizabeth's thanks for all he has done and also her acceptance towards his proposal.

The story ends without any description of Jane or Elizabeth's wedding, but fortunately most of the main characters live a happy life and will be happy forever. Kitty grows to be more sensible after associating with Jane and Elizabeth and staying away from Lydia while Lady Catherine condescends to visit the Darceys eventually.

4. Case Studies of How Irony Helps Characterization in *Pride and Prejudice*

4.1 Verbal irony in conversations between characters

One of the features of *Pride and Prejudice* is the conversation between different characters. The violation of the cooperative principle and the four maxims makes it possible for verbal irony to be naturally used. Through verbal irony, Jane Austen not only makes conversations interesting and informative but also enables it to guide the readers to acquaint distinguished characters. In the following part, how irony helps characterization will be analyzed through specific characters, including Mr. Bennet, Mrs. Bennet, Elizabeth and Mr. Darcy.

4.2.1 Irony from Mr. Bennet

Mr. Bennet is the only male in the Bennet family. As the father of five girls, he is not responsible enough for most of the time. He doesn't teach the three younger girls well and sometimes he even refuses to offer help. But he still loves his daughters, especially Elizabeth, and gives her guidance and supports her much. He seldom talks a lot but he has an ironic, cynical sense of humor that he often uses to irritate his wife.

Example 1 : When Mrs. Bennet hears that a single, wealthy, handsome young man, Mr. Bingley, will be their new neighbour, she tries to persuade Mr. Bennet to visit him as soon as possible because she wants to marry one of her daughters to him. And Mr. Bennet gives out his answer as follows:

"I see no occasion for that. You and the girls may go, or you may send them by themselves, which perhaps will be still better, for as you are as handsome as any of them, Mr. Bingley may like you the best of the party."

(4)P2)

Mrs. Bennet is not young at all. She brings up five daughters and is over

forty; compared with her beautiful girls, she should not be “handsome” any more. Here, it can be easily referred that Mr. Bennet doesn’t conform to the category of Quality and says what is not true to mean the opposite --he doesn’t agree to visit Mr. Bingley in an impolite way.

Example 2 : When Mr. Bennet knows that Jane suffers from a heavy rain and catches a cold, thus has to stay at Mr. Bingley’s home, he says so to Mrs. Bennet:

“Well, my dear,” said Mr. Bennet, when Elizabeth had read the note aloud, “if your daughter should have a dangerous fit of illness--if she should die, it would be a comfort to know that it was all in pursuit of Mr. Bingley, and under your orders.”(P29)

It’s also an example of the violation of the category of Quality. If Jane should die due to a dangerous illness resulting from her pursuit of Mr. Bingley, it must be a piece of grievous news rather than a comfort. Mr. Bennet uses the word “comfort” to criticize Mrs. Bennet for her selfish behavior.

Example 3 : When Mr. Bingley leaves Netherfield, Jane is much disappointed and sad. Mr. Bennet says the following to Elizabeth to show his care and support.

Mr. Bennet treated the matter differently. “So, Lizzy,” said he one day, “your sister is crossed in love, I find. I congratulate her. Next to being married, a girl likes to be crossed a little in love now and then. …… Let Wickham be your man. He is a pleasant fellow, and would jilt you creditably.”(P134)

It’s obvious that, being crossed in love hurts Jane and it is not worth “congratulation”. Mr. Bennet congratulates her daughter because he knows that experience teaches and her daughter will grow be stronger. With the violation of Quality, Mr. Bennet passes his care to her daughter in his own way.

4) All the conversations are extracted from *Pride and Prejudice*, Wang, X. & Ji, F. (eds.) (2009), 1st ed. Beijing: Tsing Hua University Press. The following extracts will be marked only with page numbers.

Similarly, a pleasant fellow will not abandon his wife and this is in sharp contrast to the word "jilt". By violating the category of Quality, Mr. Bennet conveys his warning of not hanging around with those militiamen in a humorous and gentle way.

Example 1 and 2 are typical examples of how Mr. Bennet expresses his cutting remarks towards Mr. Bennet, his wife and the mother of five girls. With the ironic tone, his wit and humor is not only described incisively and vividly but also makes the conversations full of interest. Example 3 shows how Mr. Bennet plays his role as a father when his dear daughters meet with unhappiness. This time he still uses irony in his talk but in a much more gentle way to give her daughters comfort and support. The image of Mr. Bennet as a wise, humorous and cynical person is well built through irony and is of much help for readers to understand other characters.

4.2.2 Irony from Mrs. Bennet

In *Pride and Prejudice*, Mrs. Bennet often induces the readers to laugh with her "distinguished wisdom" towards Mr. Bennet's mockery by actively responding to whatever compliments, though usually the opposite. Though she has been a mother of five girls, among which the two eldest girls are polite and courteous, she still behaves in breach of etiquette and sometimes even rudely. The public climbing of hers often embarrasses Jane and Elizabeth and makes a fool of herself.

Example 1: "My dear, you flatter me. I certainly have had *my share of beauty*, but I do not pretend to be anything extraordinary now. When a woman has five grown-up daughters, she ought to *give over thinking of her own beauty*." (P2)

"In such cases, a woman has *not* often *much beauty* to think of."

Mr. Bennet is unsatisfied with Mrs. Bennet's urgency of visiting Mr. Bingley as soon as possible and as a result he mocks her and praises her "beauty". In fact, Mr. Bennet is intended to say Mrs. Bennet is not beautiful or young any more but Mrs. Bennet doesn't think so. She takes it as a real compliment and to show her modesty and politeness, she even plans to "give

up showing off her beauty". The sequent response made by Mr. Bennet, denying other women's beauty in violation of Quality, is to say what he believes to be false to indicate that Mrs. Bennet is not beautiful any more. And this obviously shows his sarcasm one more time. The foolishness of Mrs. Bennet can be seen from this.

Example 2: "Mr. Bennet, how can you abuse your own children in such a way? You take delight in vexing me. You have *no compassion* for my *poor nerves*." (P3)

"You mistake me, my dear. I have a *high respect* for your nerves. They are my *old friends*. I have heard you mention them with consideration these last twenty years at least."

In this segment, Mrs. Bennet complains that Mr. Bennet doesn't respect her nerves. Readers may not think the same as Mrs. Bennet. Due to her simple-mindedness, foolishness and the habit of getting excited over a little thing, Mr. Bennet often suffers a lot. It is Mr. Bennet who should claim that his nerves need to be respected and not Mrs. Bennet. This potential contrast together with Mr. Bennet exaggerated answer in violation of Quality, with phrases as "high respect" and "old friends", constitute an irony towards Mrs. Bennet.

From the inception of the story, distinguished from ordinary mothers, the only business of Mrs. Bennet is to get her five daughters married, the irony tone in characterization is abundantly clear. With the ironic utterances, example 1 reveals the frivolousness and foolishness of Mrs. Bennet in her character; example 2 shows the narrow-mindedness and whimsicalness of her, which makes the image of Mrs. Bennet better-rounded.

4.2.3 Irony from Elizabeth

As the heroine of the book, Elizabeth is totally different from her mother. She is highly cultured and stepped in propriety, quick-witted and also self respected; she is gifted with eloquence and also bravery; she is bold in talking straight and having the courage to correct her mistakes.

Example 1: On the ball, Sir William wants to introduce Elizabeth to Mr.

Darcy with the hope that the two can have a dance but Elizabeth refuses in a clever way. Then Sir William says the following to persuade her:

"You excel so much in the dance, Miss Eliza, that it is cruel to deny me the happiness of seeing you; and though this gentleman dislikes the amusement in general, he can have no objection, I am sure, to oblige us for one half-hour." (P24)

"Mr. Darcy is *all politeness*," said Elizabeth, smiling.

Sir William doesn't know Elizabeth's prejudice towards Mr. Darcy and wants to bring them together. Elizabeth, however, refused Sir William's enthusiastic invitation politely. The violation of Relation helps Elizabeth manifest her dislike of Mr. Darcy with an answer beyond question, which also shows her forthrightness and wisdom.

Example 2: Mr. Collins attempts to make a proposal of marriage to Elizabeth and Elizabeth refuses. However, Mr. Collins insists that Elizabeth do so in order to maintain her manner. Elizabeth has to refuse him again.

"Upon my word, sir," cried Elizabeth, "your hope is a rather *extraordinary* one after my declaration. I do assure you that I am not one of those young ladies (if such young ladies there are) who are so daring as to risk their happiness on the chance of being asked a second time. I am perfectly serious in my refusal……" (P105)

According to the previous description, Elizabeth is actually forced by Mrs. Bennet to stay and is reluctant to listen to Mr. Collins's speech. Having refused Mr. Collins's proposal directly, it won't be an extraordinary thing for Elizabeth to find Mr. Collins sticking to his view. With the violation of Quality, Elizabeth implicitly expresses her disagreement and inward impatience. The frankness embodied in her character can be seen.

Example 3: When Jane and Elizabeth were alone, the former, who had been cautious in her praise of Mr. Bingley before, expressed to her sister just how very much she admired him.

"I was very much flattered by his asking me to dance a second time. I did not expect such a compliment." (P12)

"*Did not you? I did for you.* But that is one great difference between us.

Compliments always take you by surprise and me never. What could be more natural than his asking you again? He could not help seeing that you were about five times as pretty as every other woman in the room. No thanks to his gallantry for that. Well, he certainly is very agreeable, and *I give you leave to like him*. You have liked many a stupider person."

"Dear Lizzy!"

"Oh! You are a great deal too apt, you know, to like people in general. You never see a fault in anybody. *All the world are good and agreeable in your eyes*. I never heard you speak ill of a human being in your life." (P14)

Jane screws up her courage to tell Elizabeth how she admires Mr. Bingley carefully. She uses words like "flatter", "expect" and "compliment" to show her happiness and surprise but Elizabeth doesn't think so. "Did not you? I did for you." She asks in reply to show her dissatisfaction towards Jane's being overmodest. Later, she starts to enumerate her disagreement over Jane's overkindness even if Jane tries to stop her. It's common sense to congratulate Jane because she falls in love with an excellent young man. Though loving and caring for Jane, Elizabeth doesn't do so. She is uncooperative in response and talks to Jane in an ironic tone. However, the truth is that Elizabeth wants to warn Jane to know Mr. Bingley deeper and do not make the same mistake as she liked many stupider persons before.

Elizabeth is good at using irony as her father. What is different is that the target of his irony is Mrs. Bennet for most of the time. Elizabeth's irony, however, is used whenever she emphasizes her own will, opinions or feels to be infringed. Compared with Jane, who is always gentle and kind, Elizabeth tends to believe in her own judgment of people and irony becomes a powerful weapon to convey her trenchant critics, especially when she talks with Mr. Darcy. Some of Elizabeth's ironic utterances toward Mr. Darcy accelerate the plot development and pave the way for the outbreak of Mr. Darcy and a new chance for Elizabeth to know Mr. Darcy.

4.2.4 Irony from Mr. Darcy

Example 1: When Mr. Darcy expresses his affection to Elizabeth and proposes marriage to her, Elizabeth refuses it. Mr. Darcy is too shocked to accept it.

"And this is all the reply which I am to have the honor of expecting! I might, perhaps, wish to be informed why, with so little endeavor at civility, I am thus rejected. But it is of small importance." (P187)

Mr. Darcy expresses his affection towards Elizabeth in a confident and arrogant way with the expectation that Elizabeth will be deeply moved. To the contrary, Elizabeth doesn't. This result is beyond expectation and Mr. Darcy feels surprised and also resentful. "The honor" used here is opposite to Mr. Darcy's current mood out of question. With the violation of Quality, Mr. Darcy's pride and self-respect are vividly established.

Example 2: Elizabeth refuses Mr. Darcy's proposal of marriage and then expresses her opinions on him which shocks Mr. Darcy.

"From the very beginning, from the first moment I may also say, one of my acquaintance with you, your manners impressing me with the fullest belief of your arrogance, your conceit, and your selfish disdain of the feelings of others ... and I had not known you a month before I felt that you were the last man in the world whom I could ever be prevailed to marry."(P190)

"and this is your opinion of me! This is the estimation in which you hold me! I thank you for explaining it so fully."

It can't be a pleasant thing that a proposal of marriage is refused. Obviously, Darcy doesn't mean to show his thanks; he wants to tell Elizabeth that he is not that kind of man in her thought and there must be some misunderstandings. With the violation of Relation, the grief and indignation in Darcy's heart can be clearly seen.

From the first appearance, Mr. Darcy is judged to be impolite, arrogant and antisocial in strangers' eyes. But for those who know him well, such as Mr. Bingley, he is a true friend who says less but does more and a real gentleman. Even when he is in fury, he keeps his manners well and shows his respect to Elizabeth. Example 1 and 2, show Mr. Darcy's pride and

self-respect on one hand and also his real courtesy and frankness on the other hand. The irony used by Mr. Darcy, gives Elizabeth another chance to reflect on her prejudice, and to some degree, draws the readers' attention to a Mr. Darcy in real life, who also has strong feelings and makes mistakes. Mr. Darcy is no longer a cold fish and becomes lifelike.

5. Conclusion

Ironic conversation is an inseparable part in *Pride and Prejudice*. With a particular word, phrase or the tone of voice, the image of characters is vividly established. Verbal irony, which is the main focus of this treatise, reveals characters' distinguished personalities and inner world as well. Mr. Bennet's wisdom and humor, Mrs. Bennet's worldliness, Elizabeth's frankness and Mr. Darcy's gentleness are all lively shown up. What's more, verbal irony also functions to show distinct aspects of a character when he or she in different roles. Mr. Bennet is sarcastic when talking to his wife as a husband, but gentle and patient when talking with Elizabeth as a father. Elizabeth acts as a muricate plant when faced with Mr. Darcy as a friend with prejudice but expresses her worries sincerely when talking to Jane as her dearest sister. Under the guidance of the cooperative principle, by analyzing particular words and phrases, which are in violation of the specific category the four maxims to make irony work, these diverse dispositions of varied characters can thus be naturally portrayed.

From all these analyses above, it can be realized that it's necessary and meaningful to study irony in *Pride and Prejudice* in light of the cooperative principle and the four maxims. The conversational setting of the cooperative principle helps to understand verbal irony better and this also enhances deeper comprehension of the characters and plots in turn.

This treatise, mainly concentrating on the analyses of verbal irony in *Pride and Prejudice*, is far from perfection and needs more improvement. Verbal irony is not all about the irony used in *Pride and Prejudice*, dramatic irony and situational irony can also be found in it.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conversational environment, the cooperative principle cannot be well fitted. On the other hand, the pragmatic study of Jane Austen's works actually covers more fields. Recently, Speech Act Theory (Chen, 2008) and Relevance Theory (Miao, 2011) are also taken as new ways to study Jane Austen's works. Compared with the category of Relation in cooperative principle, Relevance Theory is more specific and detailed. If focusing on the relation of utterances in conversations, the Relevance Theory could be a better choice.

Work Cited

- Abrams, M. H., & Harpham, G. G.,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9th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09.
- Elleström, L. *Divine Madness: On Interpreting Literature, Music and the Visual Arts*, Pennsylvania: Bucknell University Press, 2002.
- Grice, H.P. *Studies in the Way of Words*, London: Firs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Jiang, W. *Pragmatics: Theories and Applications*,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2000.
- Zhu, Y. On the Irony of Jane Austen. MA Thesis. Hunan Normal University, 2011.
- 王宏, 熊洁. 簡奧斯丁在中國. 九江學院學報, 2006(3), 72-76.
- 徐鵬. 修辭和語用-漢英修辭手段語用對比研究.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7.
- 黃任. 英語修辭与寫作.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6.

초록

협력 원칙에 보는 반어의 역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중심으로

Zhang Yinjun

이 논문은 화용론 범주에서 협력 원칙을 이용하고 소설 오만과 편견에 사용한 반어가 인물의 성격 묘사에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문학과 언어학의 연구 목적으로 반어의 역사를 검토 한이 책은 제인 오스틴 (Jane Austen)의 작품의 반어에 대한 현재의 연구를 보여 주며 오만과 편견에 대한 문학적 연구에서 협동 원리를 적용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네 개의 격언의 특정 범주에 대한 설명과 요약을 통해, 이 논문은 반어가 어떻게 다른 캐릭터 간의 대화의 예를 통해 특성화를 돕는 지 분석하려고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결핍과 개선 방법을 지적합니다.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가장 뛰어난 특징 중 하나 인 반어는 우리의 더 깊은 연구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암시했다.

Key Words

반어; 협력 원칙;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한영 소설번역에서의 복합주제부 번역 양상 고찰 -텍스트적, 대인적 주제를 중심으로

최 원 선

1. 서론

번역학을 다루는 이론 중 맥락을 배제하여 두 언어의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다. 적절한 번역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단어와 어휘, 의미를 넘어 맥락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Halliday(2014)의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은 번역학적 관점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론이다. 체계기능언어학자들은 언어를 규칙이 아닌 체계(system)로 보면서 언어라는 체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설명해 내려고 하며, 무엇보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 보는 의미의 위치와 기능이 번역학에서 보는 의미의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조의연 외, 2012: 54-55, 58).

본 연구의 목적은 Halliday(2014)의 체계기능언어학의 주제(theme)와 평언(rheme)¹⁾을 분석하는 틀 속에서 영어소설에 등장하는 두 개 이상의 주제로 구성되는 복합주제부(multiple theme)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는 데 있다. 이 때 복합주제를 구성하는 주제 중 유표적인 주제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번역과정에서 주제의 유표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Halliday(2014)는 주제는 사물과 같은 명사군이나 전치사구와 같은 단일 요소가 주제를 담당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단일 요소로 이루어진 주제 뿐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주제 또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복합주제부에 대해 설명한다. Halliday(2014)는 주제를 크게 텍스트적 주제(textual theme), 대인적 주제(interpersonal theme), 화제적 주제(topical theme)로 분류하였는데, 복

1) 체계기능언어학 관련하여 통번역 학계에서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최경희, 2017),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 또한 필자의 판단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밝힌다.

합주제부에 위치하는 텍스트적(textual)이거나 대인적(interpersonal) 주제는 유표적(marked)이다. 다시 말해 텍스트적이거나 대인적인 주제로 문장을 시작하는 주제 구조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번역과정에서는 이런 저자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는 형태적으로 다른 언어로서 주제를 연구하는 입장이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를 벗어나며 특정 요소를 주제화시키는 것은 그 의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어나 영어가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는 유형적으로 다른 언어이지만 절의 첫머리를 구성하는 경험적 요소가 그 절을 이끄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유사하다(조의연 외, 2012: 62). 절의 처음 요소를 무엇으로 놓느냐 하는 것을 화자의 선택과 의도로 본다는 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영어의 복합주제가 번역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복합주제의 적절한 번역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주제의 유표적 주제부의 영한 번역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영어소설에서 주제가 여럿인 복합주제문을 골라 Halliday(2014)의 주제 분류 방식에 따라 화제적 주제를 제외한 텍스트적 주제, 대인적 주제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주제에 따라 구분하고 원문에서의 유표적 주제성이 번역문에서도 유지되는지, 또는 변환되거나 생략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과 번역학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 말하는 주어의 기능과 주제의 의미를 살펴본 후 번역학에서 주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텍스트 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결과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체계기능언어학과 번역학

Hatim & Mason(1989)은 언어학 발전 초기에 번역학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의 관심 밖이었다고 말한다. 형태론과 통사론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고 의미조차 간과했던 구조주의 언어학적 관점이 번역학의 관심 대상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단일 언어 위주로 언어를 연구하는 구조주의와는 달리 번역학에서는 두 언

어를 동시에 비교 분석해야 하고, 문장의 구조를 통사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과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맥락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60-70년대에 체계기능(systemic-functional)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기능언어학이 Halliday에 의해 고안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조 의연 외, 2012). 언어가 일종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인식되는 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맥락과 의미가 주된 관심 대상이고, 이것은 번역학의 관점에서 보는 의미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때문에 번역학에서 관심을 두는 현상이 체계기능언어학 안에서 잘 설명되는 것처럼 보인다.

2.1.1 주어의 기능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어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다. Halliday(2014: 78-79)는 전통 서구식 문법 분석의 기본이 되는 중심 개념이 주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주어의 개념을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것, 서술되고 있는 것,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²⁾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주어를 기능에 따라 3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논리적 주어³⁾이다. 심리적 주어로서의 기능 안에는 ‘심리적’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화자의 마음이 의도하는 바가 메시지에 전달되도록 하는 주어의 역할이 포함된다. 즉, 메시지가 실제로 다루는 주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문법적 주어로서의 기능은 주어가 문장에서 보여주는 주어로서의 특정 문법적 역할을 설명한다. 문장에서 서술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 주는 주어의 역할, 주어에 따른 동사의 수, 성별 일치 등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주어의 역할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주어로서의 기능은 주어가 절에서 행위의 주체가 됨을 의미하고, 문장의 단어가 나타내는 대상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다. 논리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며 기호 간의 관계를 말하는 문법적 주어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위의 3가지 주어의 기능적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Halliday(2014)의 주어의 개념: the concern of the message, something is being predicated, the doer of the action

3) Halliday(2014)의 주어의 세 가지 기능: psychological subject, grammatical subject, logical subject

〈표1〉 Halliday(2014)의 주어의 기능과 문장과의 상관성

주어의 기능	문장과의 관련성
심리적 주어	주제
문법적 주어	통사
논리적 주어	관계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다루는 내용인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 심리적 주어의 기능이고, 통사적으로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가 나타나는 위치에서의 주체를 다루는 것이 문법적 주어의 기능이며, 문장의 지시 대상들 간의 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 논리적 주어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심리적 주어의 기능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주제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1.2 주제와 평언

절이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견해는 프라그 학파를 통해 소개되었다(김동연, 2013). Halliday(2014: 89)는 프라그 학파에서 처음 사용한 주제와 평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제구조(thematic structure)를 논하는 근간으로서의 두 개념을 설명하였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주제는 맥락 안에서 절의 시작을 나타내는 메시지의 출발점이 되는데, 다시 말해, 화자의 관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택하여 문장 앞에 두면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 즉 주제부가 아닌 부분은 문장의 평언부가 되는데, 이 평언부가 남아 있는 메시지를 완성함으로써 하나의 완벽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본다. Halliday(2014)가 말하는 주제부와 평언부의 구조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제부의 위치이다. 하나의 절이 주제와 그 주제를 뒤따르는 평언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을 때, 어떤 요소가 주제로 선택되든지 간에 주제는 문장의 가장 첫 위치에 온다고 본다. 주제 요소가 언제나 문장의 제일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Halliday(2014)의 이런 관점은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기능문장론 학자들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커(2011: 133)는 주제(theme)가 2가지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기능은 주제가 이전 발화와의 연장선상에서 맥락을 유지시키며 발화를 새로 시작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한 문장 안에서 주제를 뒤따라

나올 발화가 잘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언에 대해서는 화자가 주제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대화의 목적을 담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결국 평언이며, 이 평언이 발화의 소통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였다. 베이커(2011)도 문장은 주제와 평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주제와 평언의 배열이나 선택은 발화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또한 문장을 주어와 술어로 구분하여 분석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주어진 문장의 단어 배치 순서로 문법성(grammaticality)보다는 수용성(acceptability)을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청자나 독자의 수용성을 고려하는 것은 번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 중 하나이므로, 특정 맥락 안에서의 주제와 평언 구조, 주제 위치 논의, 주제 내용 선택 등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은 번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1.3 복합주제의 의미와 기능

절이나 문장이 단 하나의 주제부 요소(thematic element)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 이상의 연속된 주제부 요소들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Eggins, 2004: 307). 이 연속된 주제부 요소가 복합주제이며 문장에서 복합주제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복합주제부가 나타나는 문장을 복합주제문으로, 그러한 주제 구조를 복합주제부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1) a. I've given blood 36 times.

b. However, cries are discomfoting.

c. No, well I mean they don't know. (Eggins, 2004: 301-307)

(1a)는 주제가 하나, (1b)는 주제가 2개이며, (1c)는 주제가 4개인 구조의 문장이다. 복합주제문은 단순히 보면 주제로 다루어지는 요소가 여럿인 절이나 문장일 뿐이지만, 복합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주제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다. 화자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어 앞으로 다른 주제 요소들을 배치시킬 수가 있는데 이 때 이 주제 요소들은 유표적 성향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해, 화자가 시간, 장소, 태도, 의도 등이 드러나는 특정 요소들을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를 벗어나도록 하여 문장의 가장 앞으로 배치시킨다는 뜻이다.

- (2) a. Last week in the city Diana donated blood.
 b. Diana last week donated blood in the city.
 c. In the city last week Diana donated blood.
 d. Blood was donated last week in the city by Diana.

(Eggins, 2004: 307-308)

(2)의 예문들은 모두 같은 대상과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각각의 특정 맥락에서는 호환이 가능하지 않은 예문들이다. 좀 더 유표적인 문장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무표적으로 표현된 문장이 있다. (2a)는 (2b)에 비해 시간과 장소가 유표적이며, (2c)는 장소가 유표적인 반면 (2d)는 문장의 중심 주제가 변경되었다. 특정 의미나 상황을 문장의 가장 앞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화자의 맥락적 필요에 의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전적으로 화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의 가장 앞에서 주제화된 요소들은 실제 주어 역할을 하는 중심 주제와 함께 복합주제를 구성하면서 의미 전달과 독자의 수용성을 최대한으로 하는 번역과정을 필요로 한다. 번역가는 이를 위해 맥락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번역과정에서 의미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 주제부 번역 선행연구

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의미는 절 단위에서 다루어지고 이것은 담화상의 의미를 다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조의연 외, 2012: 56). 어휘문법을 절 단위로 확장하여 의미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번역학은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적인 틀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겠다. Kim(2007)은 Ho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적 접근에 따라 의미적 사용에 중점을 두어 한국어의 주제구조를 분석, 체계화하였다. 조의연 외(2012)⁴⁾는 체계기능언어학을 기반으로 하여 한영 단편 소설의 이끔부(theme)⁵⁾ 선택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이끔부의 선택은 번역가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번역가의 이끔부 처

4) 조의연 외(2012)내의 김미라(p.53-84)의 연구를 참고함.

5) 조의연 외(2012)는 Halliday의 'theme'을 '이끔부'라고 표현하면서, 기존에 학계에서 논의되는 '주제-평언' 등의 개념과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끔부'라는 용어 대신 '주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다른 용어들과 구분이 되어야 하는 데에는 동의한다.

리가 글의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번역가의 내적 의도가 번역문의 문맥적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김동연 외(2011)는 영한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구조를 Halliday(2004)의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어 원전과 한국어 번역문의 전체 절수의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세부적으로는 한국어와 영어의 다른 언어적 현상으로 인해 영어 원전의 주제 구조가 한국어 번역문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복합주제 또한 영어 원전에서보다 한국어 번역문에서 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번역과정에서 주제부의 하위분류인 연결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제부의 하위분류가 복합주제부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복합주제의 번역양상 연구는 주제성의 유지와 변화 혹은 생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복합주제의 수적인 변화 뿐 아니라 주제의 하위분류에 따른 세부적 주제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3. 텍스트 분석

3.1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분석을 위해 영어 소설 『Go Set a Watchman』(Lee, 2015)⁶⁾에서 복합주제가 포함된 문장 70개를 추출하여 한국어 번역본 『파수꾼』(공진호, 2015)에서 이에 대응되는 번역 문장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원문 텍스트의 복합주제부 요소는 Halliday(2014)의 주제 구분 방식에 따라 화제적 주제를 제외하고, 텍스트적 주제, 대인적 주제로 나눈다. 복합주제부의 구성은 화제적 주제의 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텍스트적 주제 혹은 대인적 주제가 1개 이상이면 복합주제부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적 주제부와 대인적 주제부는 비화제적(non-topical)인 주제로서, 문장구조로 보았을 때 선택적인 요소들이며 화제적 주제와는 구별된다. 각각의 주제는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6) ‘Go Set a Watchman’은 1957년에 쓰여지고, 2015년 7월 출간된 뉴욕 타임즈 선정 8월 베스트셀러 소설이다.

〈표2〉 Halliday의 텍스트적, 대인적 주제부 구분⁷⁾

주제 구분	상세구분	설명
텍스트적 주제부 (textual theme)	계속사 (continuative)	담화 연결
	연결사 (conjunction)	구조적 주제-절과 절을 연결
	접속부가사 (conjunctive adjunct)	담화부가사, 부사구, 전치사구 등
대인적 주제부 (interpersonal theme)	서법부가사 (modal adjunct)	서법 주제-화자의 태도나 판단
	호격 (vocative)	호칭
	정형동사운용소 (finite verb operator)	yes/no 질문의 대답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텍스트적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oh’, ‘well’과 같은 담화연결을 담당하는 계속사와 ‘and’, ‘yet’과 같은 통사적 연결을 담당하는 연결사 그리고 ‘however’, ‘instead’ 등의 이전 텍스트와의 연결을 돕는 접속부가사이다. 대인적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probably’, ‘in my opinion’ 등의 서법부가사와, 호칭을 드러내는 호격, 질문의 대답으로서의 ‘yes’, ‘no’ 등의 정형동사운용소를 포함한다. 텍스트적 주제와 대인적 주제는 번역과정에서 같은 위치에 그대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다른 위치에서 다른 요소로 변환되어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이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주제부 번역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3〉 텍스트적, 대인적 주제 번역 구분

구분	설명
주제 번역	원문의 주제 위치에 그대로 번역되는 경우
주제 변환	원문의 주제 위치와 변경되어 번역되는 경우
주제 생략	원문의 주제가 생략되어 번역되는 경우

7) <표2>의 세부적 주제 상세구분에 대한 한국어 용어와 설명은 김동연 외(2011)를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

번역가가 여러 개의 복합주제부를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번역한다는 전제 하에, <표3>에서와 같이 번역문에서 원문 그대로의 위치에 번역되는 경우를 주제번역이라 하고 원문에서의 주제 위치와 달라지거나 다른 구성요소로 변경되는 경우를 주제 변환이라 하였으며 원문의 복합주제부가 사라지는 경우는 주제 생략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텍스트적 주제가 번역문에서 그대로 주제로 번역 되는 양상을 보자.

- (3) a. Oh, by the way, I'm giving a Coffee for you Monday morning.
 b. 안, 참, 네가 와서 월요일 아침에 커피 모임을 가지려고 해.⁸⁾

(3a)에서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 화제적 주어 'I' 앞으로 나온 2개의 주제부 'oh'와 'by the way'는 모두 텍스트적 주제이다. 'oh'는 앞으로의 발화가 이전 담화에서 연결된 담화임을 알게 해 주는 계속사(continuative)이고, 'by the way'는 '대조, 전환'의 개념을 담은 접속부가사(conjunctive adjunct)이다. (3b)의 한국어 번역문에서 원문의 주제부가 원문에서의 순서 그대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문에서 유효적인 주제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번역되었다. 다음으로 대인적 주제의 경우 주제에 변화가 생기는 예를 보자.

- (4) a. Sometimes I think I've got you like this.
 b. 때론 너를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

(4a)의 복합주제를 구성하는 'sometimes'와 'I think'는 모두 화자의 판단과 태도를 드러내주는 서법부가사의 기능을 하는 대인적 주제이다. 이것이 (4b)의 번역에서는 'sometimes'만 '때론'으로 주제가 되었고 'I think'는 한국어 동사의 어미로 변경되어 주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같은데'로 문미에서 변환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원문에서의 주제로 선택된 'I think'의 의도가 번역문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8) 분석에 사용된 모든 예문은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텍스트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임.

3.2 분석 결과

총 70개의 원천텍스트 복합주제문을 살펴본 결과 화제적 주제를 제외한 텍스트적 주제 혹은 대인적 주제가 1개 추가된 경우는 61건이고, 2개 이상의 주제가 추가된 경우는 9건이었다. 명시적인 화제적 주어 앞으로 2개 이상의 또 다른 주제가 선행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수집된 원문의 복합주제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주제의 수에 따른 번역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4〉 주제의 수에 따른 번역양상 비교(비율은 반올림하여 제공)

주제 수 (화제적 주제 제외)	빈도	비율	한국어 번역양상	빈도	비율
1개	61	87%	주제 번역	44	72%
			주제 변환	15	25%
			주제 생략	2	3%
2개	9	13%	주제 번역	4	44%
			주제 변환/생략	5	56%
합계	70	100%	합계	70	100%(각각)

1개의 주제가 문장 첫 위치로 오는 경우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도 원문의 주제 위치와 동일하게 번역되는 경우가 72%나 되었다. 영어와 한국어는 다른 형태의 언어이지만 유표적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주제의 위치가 변경된 빈도는 15%에 해당하는데 원문 텍스트 처음에 있는 주제를 번역문에서 화제적 주어 뒤로 배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표적 주제가 1개인 경우 번역문에서 주제의 위치에 그대로 번역되는 경우의 예를 보자.

(5) a. Gradually, the cool air receded and it was stifling again.

b. 서서히 시원한 공기가 물러나고 다시 무더워졌다.

(5a)의 ‘gradually’가 화제적 주제를 선행하며 유표화되었다. (5b)의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같은 위치에 번역되었다. 다음으로 주제 수가 1개이면서 번역문에

서는 주제로 번역되지 않고 다른 요소로 변환되는 경우의 예를 보자.

- (6) a. On some days he wore two watches.
 b. 그는 어떤 날은 시계를 두 개 가지고 다녔다.

(6a)의 ‘on some days’는 화제적 주제 ‘he’를 선행하여 나타났는데, (6b)에서는 화제적 주제 ‘그는’이 ‘어떤 날은’을 앞서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문장 앞에 놓을 경우 은/는, 이/가 등의 조사가 붙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만약 원문과 마찬가지로 번역문에서 ‘어떤 날은’을 문장 앞에 두면 문장의 주어 ‘그는’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번역문에서 원문의 주제가 생략되는 경우이다.

- (7) a. “Baby, you won’t have a helpmate,” she said.
 b. 내조자로 나를 기대하지는 마.

(7a)의 ‘baby’라는 주제가 (7b)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baby’가 원문에서 갖는 주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여겨 번역문에서는 제외시켰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원문에서의 주제성의 정도에 따라 번역문에서는 유표적 주제가 하더라도 생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반면 2개의 주제가 문장 첫 위치에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 한국어 번역문에는 원문과의 동일한 순서대로 번역되어 나타나는 빈도가 44%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표적 주제가 1개일 경우에 비해 훨씬 낮은 빈도로서 원문에서 주제의 수가 늘어날 경우 원문 저자의 선택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제가 변경되어 번역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유표적 주제 수가 2개이면서 번역문에서는 주제로 대응되어 번역되지 않은 다음의 예를 보자.

- (8) a. Slowly and surely, if prodded correctly, Dr. Finch would unwind the real of his strange lore to reveal reasoning that glittered with a private light of its own.
 b. 핀치 박사는 올바로 쑺시기만 하면 이상한 학식의 물레를 돌려, 그 나름의 개인적인 빛으로 반짝이는 논법을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드러내곤 했다.

(8a)의 화제적 주어 ‘Dr. Finch’ 앞으로 2개의 텍스트적 주제 ‘slowly and surely’와 ‘if prodded correctly’가 선행하지만 (8b)에서는 모두 화제적 주어 ‘핀치 박사는’의 뒤에서 나타나고 있다. (8b) 이전, 이후 번역문 맥락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번역가의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은 복합주제부를 구성하는 유표적 주제들의 하위분류별로 번역양상을 상세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유표적 복합주제문은 총 70문장이지만 한 문장에 2개의 주제가 있는 경우를 합치면 총 77개의 유표적 주제가 된다.

〈표5〉 유표적 주제의 상세 구분에 따른 번역양상 비교

주제 구분	빈도 (비율)	상세 구분	빈도	비율	주제 번역 양상	빈도	비율
텍스트적 주제	61 (79%)	계속사 (continuative)	11	18%	주제 번역	10	91%
					주제 변환	1	9%
		연결사 (conjunction)	11	18%	주제 번역	8	73%
					주제 변환	2	18%
					주제 생략	1	9%
		접속부가사 (conjunctive adjunct)	39	64%	주제 번역	28	72%
					주제 변환	10	26%
					주제 생략	1	2%
대인적 주제	16 (21%)	서범부가사 (modal adjunct)	12	75%	주제 번역	4	33%
					주제 변환	7	58%
					주제 생략	1	9%
		호격(vocative)	3	19%	주제 생략	1	8%
					주제 번역	2	67%
		정형동사운용소 (finite verb operator)	1	6%	주제 변경	1	33%
					주제 번역	1	100%

원문의 유표적 복합주제로 선택된 주제 중 텍스트적 주제는 79%로 대인적 주제의 빈도인 21%보다 훨씬 많으며 그 중 접속부가사의 빈도가 계속사나 연결사보다 훨씬 높았다. 이것은 영어 소설 장르에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주제보다는 앞뒤 담화를 연결하는 종류의 주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 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치사구나 부사구 등의 시간, 공간적 관점을 전달하는 종류의 주제가 복합주제로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 (9) a. Well, as a general rule, most women, before they've got 'em, present to their men smiling, agreeing faces.
 b. 음,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를 완전히 손에 넣기 전에는 웃으면서 호의적인 표정을 짓거든.

(9a)의 텍스트적 주제 'well'은 계속사이고, 'as a general rule'은 접속부가사이다. 두 복합주제 모두 (9b)에서 순서나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번역되었다. 계속사나 접속부가사, 연결사의 기능을 하는 텍스트적 주제 모두 대부분의 경우에는 번역문에서도 문장의 첫 위치에 주제의 기능을 하도록 번역이 된다. 다음은 주제가 원문과 같은 위치에서 그대로 번역되지 않는 경우를 보자.

- (10) a. Maybe because he was a lawyer.
 b. 변호사라서 그런지도 모른다.

(10a)의 연결사 'because'는 (10b)에서 뚜렷한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 번역되지 않은 채 생략되었고, 서법부가사 'maybe'는 한국어 조사와 동사로 변환되면서 원문의 주제는 사라지고 없는 문장이 되었다. 'maybe'가 동사로 바뀌면서 'because'의 의미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 가독성을 높이려는 이유로 생략한 번역가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접속부가사 기능을 하는 텍스트적 주제의 경우, 번역문에서 주제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11) a. Of all her relatives, her father's sister came closest to setting Jean Louise's teeth permanently on edge.
 b. 진 루이즈는 많은 친척들 가운데 하필 아버지의 누나가 언제나 가장 신경에 거슬렸다.

(11a)에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화제적 주제는 'her father's sister'이다. 하지만 (11b)에서는 주어가 '진 루이즈는'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면서 텍스트적 주제 'of all her relatives'는 (11b)에서 화제적 주어 뒤로 위치했다. 이렇게 원문의 화제적 주어가 번역문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복합주제의 위치도 변경될 수 있다.

대인적 주제 중에서는 특히 서법부가사의 기능을 하는 주제가 다른 주제들에

비해 비교적 그 위치가 많이 변경되었다.

- (12) a. Surely you understand that.
 b. 그래, 너도 물론 이해하겠지.

(12a)의 ‘surely’는 저자의 태도를 반영해 주는 서법부가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이다. 부사의 위치가 중요한 언어인 영어에서 ‘surely’가 문장 처음 자리에 위치하며 복합주제를 이루는데, (12b)에서는 ‘물론’이 절의 중간에 위치하며 주제성이 사라지고 있다. 다음으로 대인적 주제인 호격의 경우를 보자.

- (13) a. Uncle Jack, don't hand me that kind of talk now
 b. 삼촌, 지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13a)의 ‘Uncle Jack’이 (13b)에서도 그대로 번역되었고 거의 모든 호격은 주제로서 문장에서 번역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형동사운용소 기능을 하는 대인적 주제는 빈도가 낮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영어 소설에 등장하는 복합주제부를 Halliday(2014)의 주제 분류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유표적 주제로 분류되는 주제부의 한국어 번역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Halliday(2014)의 주제 구분에 따르면 주제는 화제적 주제, 텍스트적 주제, 대인적 주제로 나뉘는데, 화제적 주제를 제외하고 1개 이상의 텍스트적 주제 혹은 대인적 주제가 문장 가장 앞에 나타나면 복합주제부를 구성한다. 텍스트적 주제와 대인적 주제는 유표적 성향을 띠며 항상 화제적 주제 앞, 즉 문장의 처음 자리에 오게 되는데, 이것은 저자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저자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자에 의해 선택된 유표적 주제 요소가 일반적인 문장구조를 벗어나며 절의 가장 앞으로 온다는 사실은 한국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제 하에 영어 원문의 유표적 복합주제가 번역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고 주제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생략되는 경우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다.

복합주제를 구성하는 70개의 문장과 이에 대응하는 번역문을 영어 소설과 한

국어 번역본에서 각각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유표적 주제가 1개인 복합주제부가 2개인 복합주제부에 비해 원문 그대로 번역되었다. 또한 77개의 유표적 주제 중 텍스트적 주제가 61건으로 대인적 주제의 16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대부분의 텍스트적 주제는 번역문에서도 같은 위치에 형태 변화 없이 번역되었으며, 생략된 경우도 매우 적었다. 이것은 영어와 한국어는 형태가 다른 언어이지만, 유표적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은 유사하다는 말이 된다. 한편 번역문에서 주제의 위치가 바뀌면서 주제성이 사라지는 텍스트적 주제는 접속부가사 기능을 하는 주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대인적 주제에서는 서법부가사 기능을 하는 주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접속부가사와 서법부가사의 기능이 포함된 복합주제문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영어 원문의 주제의 위치나 방식을 유지하지 않아도 원문의 주제가 의도한 바를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에 토대를 둔 주제부 번역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복합주제부 중 텍스트적, 대인적 주제만을 자세히 보고자 한 것으로 한국어에서 복합주제부의 주제성이 유지되는 관점에서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저자가 다른 여러 종류의 영어 소설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를 추가하여 텍스트 수집의 범위를 넓히고 개수도 늘려 좀 더 일반적인 번역양상 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으며, 비번역가 번역이나 기계 번역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복합주제부의 적절한 번역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하겠다.

Work Cited

- 김동연. 2013. 『영한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구조의 특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 김동연·최진숙·안동환. 2011. 「영한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구조 비교」, 『언어과학』 18(4): 21-46.
- 조의연·강지혜·김미라·김순영·김애주·신지선·이상빈·이상원·전현주. 2012.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 언어적·문화적·사회적 접근』 동국대학교출판부.
- 최경희. 2017. 「학부 한영번역에서 주제부 전개방식(thematic development)의 사용: 문제 진단 및 전문가 번역과의 비교」, 『번역학연구』 18(5): 252-276.
- Baker, M. 2011.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ggins, S. 2004.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New York : Continuum.
- Halliday, M.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Hodder Education.
- _____.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Milton Park, Abingdon, Oxon: Routledge.
-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Kim, M. 2007. *A Discourse Based Study On Theme In Korean And Textual Meaning In Translation*, Ph.D.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Analyzed Texts

- Lee, H. 2015. *Go Set a Watchman*, London: Harper Collins.
- 공진호 역. 2015. 『파수꾼』 서울: 열린책들.

Abstract

A Study on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Textual and Interpersonal Theme

Choi, Wonsun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marked multiple theme in the English novel. Holliday(2014) classifies theme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which are topical, textual and interpersonal theme. While topical theme is unmarked and the main theme in the clause, textual theme and interpersonal theme are marked, optional and located prior to topical theme. Locating textual theme or interpersonal theme in the front of the clause exclusively depends on the writer's decision. It seems to be important that translators must render marked multiple theme as the way they are understood in the source text

For the analysis, 70 sentences which contain multiple theme and corresponding Korean translations are collected from English source text and Korean target text. They are put into textual theme and interpersonal theme, which are marked in the clause. There are far more textual theme than interpersonal theme, for it tends to be more common to use linking elements than interpersonal elements in the novel. 91% of continuative, 73% of conjunction, 72% of conjunctive adjunct of textual theme and 33% of modal adjunct, 67% of vocative of interpersonal theme are translated in the same thematic position as the source text. This indicates that more textual theme don't lose their thematic feature than interpersonal theme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For conjunctive adverbs of textual theme and modal adjuncts of interpersonal theme tend to be the most element to be shifted into different elements which are not marked theme. This is because there are other ways to express those types of marked theme in Korean.

Key Words

multiple theme, marked theme, textual theme, interpersonal theme,
continuative, conjunction, conjunctive adjunct, modal adjunct, vocative

2017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3명)	2018년 8월 24일	최영이	영어 자음군 동화와 이화의 음향적 지각단서에 의한 자질보존성 분석	이상도
	2018년 8월 24일	황현미	영어 동사파생명사의 중의성에 관한 연구: 동사 어기의 의미특성을 중심으로	박기성
	2018년 8월 24일	이지연	영어 등위접속사의 정도성에 관한 연구	장경철, 이상도
문학석사 (3명)	2018년 8월 24일	백다윤	영어 사역구문의 구조에 관한 연구 - 사역동사 let을 중심으로 -	장경철
	2018년 8월 24일	우미례	결정체적 서사로서의 『몰로이』	윤화영
	2018년 8월 24일	홍지연	관광 가이드북의 기능적 번역 전략 연구	장경철
문학사	2018년 8월 24일	15명	심재훈, 강태욱, 최대일, 김민경, 김세희, 배민주, 유현지, 이서연, 이유진, 정태금, 김수진, 하진영, 웅웬터렘, 류소연, 윤소연	

2018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3명)	2019년 2월 22일	박진숙	단어 경계에서 나타나는 영어 설단폐쇄음의 변이 양상: 벅아이 코퍼스를 중심으로	이상도
	2019년 2월 22일	하선정	영어와 한국어 화자의 이동사건 경로와 방식의 인식과 부호화 비교 연구	박기성
	2019년 2월 22일	신상범	발터 벤야민의 번역론에 의거한 문학텍스트 번역연구	이재성
문학석사 (7명)	2019년 2월 22일	이동엽	영한 자막 및 더빙 번역에서의 서법 부가어 변이 양상 연구 -부사를 중심으로-	배만호
	2019년 2월 22일	권효정	영어 부정문의 통사적 연구	장경철
	2019년 2월 22일	배운영	영어 자음탈락의 불투명성에 관한 연구	이상도
	2019년 2월 22일	이희영	마샤 노먼의 『출옥』에서 음식의 정치와 남성지배	정병언
	2019년 2월 22일	정유진	존 오스본의 『연예인』에서 대중문화의 발흥과 불안	정병언
	2019년 2월 22일	최진희	영어 모음의 단음화에 관한 연구	이상도
	2019년 2월 22일	안진희	접경지대의 감정구조로서의 『테스』읽기	김용규
문학사	2019년 2월 22일	35명	임정민, 강민재, 김병관, 김준경, 김종호, 이병하, 김수정, 김유리, 류혜연, 박상언, 정영록, 김예담, 박재희, 박환지, 손채영, 안도연, 윤상지, 이다정, 이혜진, 정다솜, 차혜림, 최지인, 강현영, 김채연, 박예림, 박은희, 안예주, 이선경, 장인아, 정다빈, 차예은, 노원빈, 박수민, 윤수현, 이해은	

『효원영어영문학』 원고 기고 및 작성 요령

• 원고 기고

1. 마 감 일 : 매년 1월 30일
2. 내 용 : 영어학 및 영문학에 관한 논문, 번역, 또는 서평
3. 분 량 : A4용지로 15-20면 내외, 영문 논문은 500행 이내
4. 제출방법 : ‘아래아 한글’ 또는 ‘한글 97’에 담은 사본 1부
5. 제출자격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박사과정 및 수료자
박사학위 취득자, 시간강사, 교수
6. 제 출 처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46241)
『효원영어영문학』 편집위원(학과사무실 전화 510-1510)

• 원고 작성법

1. 논문은 제목부터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에 한자와 영문을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로 처리한다.
3. 고유명사는 우리말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영문 표기를 제시한다. 인용문은 번역하되, 분리 인용의 경우 번역문 아래에 원문을 제시한다. 단, 영어학 논문에서 영어 구절이나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 해당구절이나 문장은 번역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규정은 미국 현대 어문협회(MLA)에서 발행한 *MLA Handbook for Writers for Research Papers*(1995년판)를 따른다. 국내서적이거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자,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5. 외국 문헌과 국내 문헌을 함께 인용 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에 따라 열거한 다음, 국내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

6. 우리말 논문 뒤에는 20행 이내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영문으로 된 논문뒤에는 A4 용지 1면 이내의 우리말 요약을 붙인다.
7. 영문 원고와 영문 요약은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8. 원고 게재는 일정한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효원영어영문학

제37호

2018년 2월 19일 인쇄

2018년 2월 22일 발행

발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인쇄 만수출판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14-7

Tel : (051) 513-4042, 2662

E-mail : mansu4042@naver.com\

(비매품)